

중등

# 수능 독해

정답과 해설

# 1. 시

본문 014~015쪽

1. 시

접동새 \_ 김소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전통적, 민요적, 애상적, 향토적

**주제**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애절한 혈육의 정

- 특징**
- 설화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한'의 정서를 드러냄
  - 의성어를 반복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함
  - 7·5조, 3음보 민요조 율격을 계승하여 전통적이고 애상적인 느낌을 줌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설화 06 한  
07 오오 불설워

실력 문제

08 ⑤ 09 ④ 10 ③

- 01** 이 작품에서 죽은 누나는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래동생'을 두었다. 그런데 그 누나를 4연에서 '우리 누나'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이 작품의 화자는 아홉 오래동생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 02** 이 작품에서 '접동새'는 죽은 누나의 환신, 또는 누나의 한을 상징한다.
- 03** 이 작품은 '접동 / 접동 /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 / 가람 가에 / 살던 누나' 등과 같이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04** 이 작품에는 접동새가 우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 '접동'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05** 이 작품은 계모에게 박대를 당해 억울하게 죽은 처녀가 접동새가 되어 밤마다 동생들을 찾아와 울었다는 '접동새 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06** 이 작품에서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래동생을 /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밤이 깊으면 접동새가 산을 옮겨 다니며 슬피 운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접동새의 울음소리는 동생들을 잊지 못하는 누나의 한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 07** 이 작품의 화자는 2~3연에서 접동새에 얹힌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다가, 4연에서 '오오 불설워'라는 시구를 통해 죽은 누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알아두기 작품의 중심 정서

접동새 설화

- 의붓어미의 시샘으로 누나가 죽음
- 누나가 동생들을 잊지 못해 밤마다 접동새가 되어 찾아와서 울



누나의 한

**08** 표현

이 작품의 '우리 누나'라는 시구로 보아 화자는, 죽어서 접동새가 된 누나의 동생들 중 한 명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누나의 억울한 죽음과 한을 슬픔의 정서로 표현하며 누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시적 대상인 죽은 누나와 화자의 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의붓어미의 시샘으로 인한 누나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애상적 어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② '진두강 가람 가', '진두강 앞마을' 등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③ 이 작품에서는 2연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이라는 시구가 3연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2연에서 누나가 접동새가 되어 운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3연에서 누나가 우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된 이 시구가 두 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1연의 '접동 / 접동 / 아우래비 접동'은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표현한 음성 상징어로, 청각적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09** 시어(구)

①은 억울하게 죽은 누나의 환신이자 동생들을 잊지 못해 밤마다 찾아오는 누나의 한을 상징한다.

**오답 풀이** ① '아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운다고 한 것으로 보아 누나가 죽어서도 계모의 눈을 피해 다니는 처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누나가 복수심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접동새는 죽은 누나의 환신이므로, 의붓어미의 시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동생들을 잊지 못해 밤마다 찾아와서 울고 있으므로, 누나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접동새는 누나의 환신으로 동생들을 잊지 못하는 누나의 그리움과 한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 누나가 의붓어미의 시샘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으나, 가난한 현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배경지식 접동새의 상징성

접동새는 '귀족도', '두견이', '자규' 등으로도 불린다. 접동새는 특히 울음소리가 구슬퍼서 시가 문학에서 한이나 슬픔의 정서를 상징하는 소재로 자주 활용된다.

02 정답과 해설

이 작품에서 억울하게 죽은 누나가 접동새로 환생한 것은 억울한 죽음으로 인한 한과 아홉 동생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따라서 누나의 환생을 희망의 정서와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접동 / 접동 / 아우래비 접동’에서는 ‘aaba’ 구조로 시행을 배열하여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제시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② 3연까지의 ‘누나’가 4연에서 ‘우리 누나’로 변주되면서 민족이 지닌 슬픔의 정서, 한의 정서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④ ‘죽어서도 / 못 잊어 / 차마 못 잊어’는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사용하여 이별한 동생들에 대한 누나의 그리움과 한을 강조하며 이별의 정한을 드러낸 시구이다.

⑤ ‘이 산 저 산 숲아 가며 슬피 읊니다.’는 접동새가 된 누나는 죽어서도 계모의 눈을 피해 동생들을 보러 와야 하는 처지에 있는 설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구로, 이는 나라를 잃고 일제의 눈치를 보며 떠돌아야 했던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처지와 연결 지을 수 있다.

#### 배경지식 + 김소월의 시에 담긴 민족의 한

김소월의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고통을 작품에 담아냈기 때문이다. 나라를 빼앗기고, 오랫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삶의 터전마저 잃은 채 비참하게 방황했던 우리 민족에게 김소월의 시는 민족의 상실감과 한을 대신 풀어내 주는 것이었다. 「접동새」 역시 이러한 우리 민족의 슬픔과 한을 고전 설화를 차용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독해 체크

본문 016쪽

- ① 의붓어미    ② 동생    ③ 접동새    ④ 환신    ⑤ 한  
⑥ 애상적    ⑦ 설화    ⑧ 민요

#### + 어휘 체크

본문 017쪽

- 1 (1) 박대 (2) 시새움 (3) 야삼경  
2 오랩동생 - 생시 - 시샘 - 샘물 - 물가 - 가람

## 02

### 향수 - 정지용

본문 018~019쪽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향토적, 감각적, 묘사적, 회상적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특징**

- 후렴구가 반복되는 병렬식 구조로 구성됨
-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정겨운 느낌을 줌
-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모습을 선명하게 묘사함

####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하늘빛  
06 청각, 시각    07 설의

#### 실력 문제

- 08 ⑤    09 ⑤    10 ⑤    11 ②

01 이 작품은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정겨운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압축적으로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02 이 작품은 ‘~는 곳’이라는 형태의 시구와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03 이 작품은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향의 모습을 다채롭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감각적 표현은 시의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뿐, 시에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

04 이 작품에서의 고향은 2연, 4연에 그려진 것처럼 가난하고 고달픈 곳이기도 하지만, 1연과 5연에 묘사된 것처럼 평화롭고 정겨운 곳이며 따뜻하고 단란한 가족이 있는 곳이다.

05 ‘파아란 하늘빛’은 화자가 추구하던 어린 시절의 꿈, 이상 등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06 ‘금빛 게으른 울음’은 ‘울음’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금빛’이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시켜 나타낸 공감각적 표현이다.

07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는 의문문 형식인 설의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며, 이를 각 연에 반복하여 고향을 잊을 수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08 표현

이 작품은 시각, 청각, 촉각, 공감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향의 모습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2연과 5연에서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4연에서는 ‘햇살’을 통해 낮 시간이 배경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이 작품은 고향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을 뿐, 이와 대조되는 공간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이 작품에서 '도란도란'이라는 의성어가 사용되었으나, 그 외에는 의성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첫 연과 마지막 연은 서로 다른 고향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독립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첫 연의 내용을 마지막에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알아두기 감각적인 표현과 그 효과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공감각적 상상 등 다양한 상상을 사용함



고향의 모습을 다채롭게 묘사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함

### 09 표현

㉠은 각 연마다 반복되는 후렴구로, 연과 연을 구분하고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며 작품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한다. 또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오답 풀이** ①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는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므로, 시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은 각 연의 마지막에 후렴구처럼 반복되어 연과 연을 구분하는 기능을 할 뿐, 연과 연의 관계를 밝혀 주는 것은 아니다.

③ ㉠의 문장 전체가 후렴구로 반복되고 있을 뿐이지 특정 음운을 반복한 것은 아니다.

④ 이 작품에는 고향의 여러 가지 풍경이 유기적인 관련성 없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의미가 심화된다고 볼 수 없으며, 후렴구가 각 단계의 의미를 심화하는 것도 아니다.

#### 알아두기 후렴구의 기능

이 작품은 각 연의 마지막에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라는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다.

후렴구의 반복



- 운율감을 형성함
- 주제나 정서를 강조함
- 형태적인 통일성과 안정감을 줌

### 10 시어(구)

〈보기〉는 이 작품에 사용된 향토적인 소재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아란 하늘빛'은 어느 장소에서나 볼 수 있는 소재이므로, 시골적인 느낌을 주는 향토적 소재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질화로, 잠베개'는 주로 시골에서 볼 수 있는 향토적 소재이다.

#### 배경지식 + 향토적 소재

향토적 소재는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가 담긴 것들을 말한다. 이처럼 시골을 떠올리게 하거나 시골적인 정감이 담긴 소재들이 작품에 사용되면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 작품은 향토적 소재들을 활용하여 가난하여 고달픈 생활을 했지만 정겹고 단란했던 고향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11 주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고향의 평화롭고 정겨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2연은 겨울밤 고단하게 잠에 빠져드는 늙은이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가난하지만 아늑하고 평화로운 고향의 정경을 그려 낸 것이다. 노년의 아버지가 느끼는 서글픔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1연은 넓은 벌을 배경으로 하여 평화롭고 한가한 고향 마을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으므로, 마을 전체의 모습이 보이도록 먼 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3연에는 꿈을 찾아 자유롭게 뛰놀던 어린 시절 화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므로, 천진하고 순수한 분위기가 어울린다.

④ 4연은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누이와 아내의 모습을 회상하는 내용인데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소박하고 평범한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⑤ 5연은 깊은 밤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초라한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 도란거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어울린다.

#### 배경지식 + 이 작품의 창작 배경과 이미지즘

이 작품은 정지용이 일본에 유학 갈 때 고향을 그리며 쓴 시이다. 정지용은 모더니즘의 대표적 시인으로, 특히 감각적 이미지를 구체화함으로써 이미지즘의 독창적 경지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작품은 감각적이고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연마다 한 폭의 그림이 연상되도록 하여 인간의 공통된 정서인 향수를 마치 한 폭의 풍경화처럼 생생하게 그려 낸 그의 대표작이다.

#### + 독해 체크

본문 020쪽

- ① 고향 ② 겨울밤 ③ 그리움 ④ 통일성 ⑤ 실개천  
⑥ 회상

#### + 어휘 체크

본문 021쪽

- 1 (1) ㉠ (2) ㉡ (3) ㉢  
2 (1) 전형적 (2) 역동적 (3) 향토적

# 03

## 수라(修羅) 백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일상적, 경험적, 서사적, 상징적

**주제** 가족 공동체 해체의 비극 및 가족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소망

- 특징**
-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 화자의 특정한 행동이 반복되며 시상이 전개됨
  - 구조의 반복과 변용을 통해 정서의 점층적 심화 과정을 보여 줌

###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일상적   05 가족 공동체   06 차디찬 밤

### 실력 문제

07 ③   08 ②   09 ②   10 ③

- 01** 이 작품의 화자는 처음에는 무심한 태도로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지만,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거미 가족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 02** 이 작품은 거미 가족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통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던 1930년대 우리 민족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3** 이 작품은 연이 바뀔수록 행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화자의 정서가 점층적으로 심화되는 것과 연관된다. 처음에는 시적 대상인 거미에 대해 무심했던 화자가 시상이 전개될수록 거미에 대해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행의 수가 늘어나는 구조를 통해 시적 대상인 거미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 04** 이 작품은 방 안에 들어온 거미를 차례로 문밖으로 쫓아 버리는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05** ‘수라’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세계’,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흩어져 있는 현장’이라는 뜻인데, 한 가족이 함께 지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06** ‘차디찬 밤’은 시간적 배경에 촉각적 심상을 결합하여 거미 가족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 07 표현

이 작품은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거미를 쫓아 버리는 시적 상황과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시적 대상인 거미가 나타나는 시간(밤)과 공간(방 안)은 일관되게 나타나므로, 시간과 공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은 거미를 의인화하여 거미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연민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이 작품에는 ‘새끼 거미’, ‘큰 거미’,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차례로 등장하고 이를 문밖으로 버리는 화자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 ④ 이 작품은 거미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을 ‘차디찬 밤’이라는 촉각적 심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⑤ 이 작품은 ‘쫓아 버린다’, ‘짜릿한다’, ‘서러워한다’, ‘아물거린다’ 등 현재형 시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과 행동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알아두기 점층적 시상 전개

이 작품은 연이 바뀌면서 행의 수가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에 따라 시적 대상에 대한 묘사도 더 세밀해진다. 또한 화자와 시적 대상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화자의 정서도 점층적으로 심화된다.

1연 → 2연 → 3연  
행의 수 증가

- ⇒
- 거미에 대한 묘사가 더 구체화됨
  - 화자의 정서가 점층적으로 심화됨
  - 거미와 화자의 심리적 거리가 점차 가까워짐

### 08 시어(구)

화자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쫓아 버림으로써 거미 가족이 흩어지게 되므로 ㉠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공간이다. 이와 달리 ㉡은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엄마와 누나나 형’을 만날 수도 있는 공간이므로 가족과의 재회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다.

- 오답 풀이**
- ① ㉡은 가족과 재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추고 위험한 곳이므로 생명의 보존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은 ‘새끼 거미’가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 공간이므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도 가족이 만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추운 공간이므로 안락함을 누리는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④ ㉠은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 공간이므로 생존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도 생존할 수 있고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가족의 화합이 결정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⑤ ㉠은 화자로 인해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되는 공간이므로 화자와의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 알아두기 ‘문밖’의 의미

시적 공간은 작가가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설정한 곳으로, 일상적 경험을 하는 공간과는 성격이 다르며 시인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공간이다. 이 작품에서 ‘문밖’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공간을 의미하는데 3연의 ‘문밖’은 1연의 ‘문밖’과 동일한 공간이지만 작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1연의 ‘문밖’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09 화자·대상

1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쏘아 버렸던 (㉔) 화자가 2연에서 죄책감과 거미에 대한 연민을 느끼기 시작(㉖)하였으므로, 이때부터 화자의 정서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③, ④, ⑤ 3연인 ㉔, ㉕, ㉖에서는 거미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계속 유지되거나 심화되고 있다.

**알아두기** 화자의 정서 변화

|    |             |                  |
|----|-------------|------------------|
| 1연 | 새끼 거미       | 별다른 생각이 없음       |
| ↓  |             |                  |
| 2연 | 큰 거미        | 가슴이 찢어지고 서러움을 느낌 |
| ↓  |             |                  |
| 3연 | 무척 작은 새끼 거미 | 가족을 만나기를 바라며 슬퍼함 |

10 화자·대상

이 작품은 거미가 처한 상황을 통해 가족과 헤어져 살아가는 화자 자신의 상황과 나아가 1930년대 우리 민족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시적 대상인 거미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투영하고 있으므로 대상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시적 대상에 연민과 슬픔을 느끼고 있으므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작품은 자연물인 '거미'를 시적 대상으로 하여 '거미'가 처한 상황을 통해 가족과 헤어져 살아가는 화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④ <보기>에서 작품 속 화자는 곧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화자는 처음에는 '거미'를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쏘아 버리지만,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거미'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된다.

⑤ 이 작품은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된 상황을 통해 시인이 살았던 1930년대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배경지식** + 작품에 투영된 시대상

1930년대에 일본의 폭압적인 식민 정책과 경제 수탈로 인해 우리 민족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만주와 연해주 등으로 이주하였고,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작가는 외부 환경에 의해 문밖으로 쫓겨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거미들의 상황을 보며, 일제 강점기라는 외적 현실 상황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다.

**독해 체크**

본문 024쪽

- ① 문밖 ② 큰 거미 ③ 가족 ④ 거미 ⑤ 해체  
⑥ 연민 ⑦ 슬픔 ⑧ 의인화 ⑨ 점층

**어휘 체크**

본문 025쪽

- 1 (1) 성찰 (2) 우회적 (3) 본질  
2 <가로> ① 아리다 ② 거미 ③ 수라 ④ 투영  
<세로> ① 아물거리다 ③ 수영

04

광야\_이육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저항적, 미래 지향적

**주제**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

**특징**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역동적·남성적인 어조로 강한 의지와 신념을 드러냄  
• 각 연의 시행(3행)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얻음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닭 우는 소리 05 매화 향기 06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실력 문제**

- 07 ② 08 ④ 09 ④ 10 ⑤

01 4연의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에서 '내(나)'를 통해 이 작품의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이 작품은 '-라/-라'의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지만, 4음보 율격으로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3 화자는 '지금 눈 내리고'라는 표현으로 현재는 부정적이고 암담한 현실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천고의 뒤에 /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를 보았을 때 미래에는 민족의 구원이 실현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과 기대를 안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부정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4 '닭 우는 소리'는 새벽을 알리는 것이므로, 생명의 기적 또는 인류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시구로 볼 수 있다.

05 '매화 향기'는 전통적인 소재로 고고한 기상, 절개, 굳은 의지 등을 상징하는데, 이 작품에서도 시대의 억압에 굴하지 않는 기개, 조국 광복의 기운, 현실 극복의 의지 등을 의미한다.

06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일제 강점하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존재로, 해방된 조국을 이끌어 갈 민족의 지도자,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주도할 후손을 의미한다.

**표현**

이 작품은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시어를 통해 투철한 역사의식을 형상화하고 있을 뿐, 토속적인 시어를 통해 향토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각 연을 '-라/-라'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끝맺음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까마득한 날에 / 하늘이 처음 열리고'에서 천지개벽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이 작품은 각 연을 3행씩 균등하게 배열하고 있고, 각 연의 1행에서 3행으로 갈수록 시행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시행의 규칙적 배열 방식

식을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⑤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와 같이 산맥의 형성 과정을 활용법을 사용하여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8 화자·대상

4연에서 화자는 암울한 현실에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후손을 위한 터전을 닦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난한 노래의 씨'는 조국 광복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화자의 생각을 담은 것으로, 민중들에 대한 연민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지금 눈 내리고'에서 '눈'은 일제의 탄압으로 볼 수 있고,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은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③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에서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속죄양 모티프가 드러난다.

⑤ 자신이 뿌린 씨를 통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선구자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09 시어(구)

이 작품에서 ㉔ '눈'은 맑고 깨끗한 생명의 순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의 탄압에 의한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하늘이 처음 열리고'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터전인 광야의 탄생을 의미한다.

② '광음'은 햇빛과 그늘, 즉 낮과 밤이라는 뜻으로, 시간이나 세월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끊임없는 광음'은 '끝없이 이어지는 세월'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③ '강물'은 주로 인류의 역사, 문명을 의미하는데, 이 작품에서도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의 흐름을 '큰 강물'로 표현하고 있다.

⑤ '광야'는 우리 민족의 삶이 이어져 온 공간적 배경이자, 역사의 현장이며 조국의 광복이 실현될 미래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10 화자·대상 + 시어(구) + 표현

초인은 화자가 기다리는 존재로, 조국에 광복을 가져올 구원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화자가 초인과의 대결을 준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광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② '까마득한 날',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를 통해 태초에 광야가 열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알 수 있다.

③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를 통해 화자가 과거 광야의 신성한 분위기를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조국 광복의 기운을 의미하는 '매화 향기'라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 독해 체크

본문 028쪽

- ① 광야 ② 미래 ③ 눈 ④ 초인 ⑤ 생명 ⑥ 매화 향기 ⑦ 광복 ⑧ 천고 ⑨ 종결 ⑩ 운율

## + 어휘 체크

본문 029쪽

- ㉠ - ㉡ - ㉢ - ㉣ - ㉤

## 05

꽃 김춘수

본문 030~031쪽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관념적, 주지적, 상징적

**주제**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특징** • 간절한 어조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나타냄  
• 존재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심화하고 확대함  
•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이름  
06 꽃 07 우리

실력 문제

- 08 ② 09 ① 10 ④

01 '몸짓'은 '나'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의 모습으로, 의미 없는 존재를 나타낸다. 그런데 '꽃'은 '나'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줌으로써 '그'에게 의미가 부여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몸짓'이 의미 없는 존재를 뜻한다면, '꽃'은 의미 있는 존재로, '몸짓'과 '꽃'은 의미상 서로 대조된다.

02 이 작품에서 이름을 불러 주는 행위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데, 1연에서 이름을 불러 주는 인식의 주체는 '나'이고 인식의 객체(대상)는 '그'이다.

03 '눈짓'은 서로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존재를 뜻하는데, '몸짓'은 의미 없는 존재를 뜻하므로 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04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등에서 '~ 되고 싶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간절한 어조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05 이 작품에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로, 이름을 불러 줌으로써 그 상대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이름이 불리기 이전의 존재는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즉 의미를 갖지 못한 존재가 된다.

06 이 작품은 '꽃'을 소재로 하여 사물과 그 이름 및 의미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물의 존재론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름을 부를 때, '꽃'이라는 의미 있는 존재로 '나'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07 1~2연에서 '나'는 '그'의 이름을 불러 줌으로써 '그'를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3연에서 '나'는 자신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4연에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라며 '우리들은 모두'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나'와 '그'는 '우리'로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다고 할 수 있다.

## 08 표현

1연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2연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3연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으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 3연과 4연에서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와 같이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에서는 이름을 불러 주는 행위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을 뿐, 시적 공간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시적 공간의 대립적 설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③ 역설적 표현은 모순된 표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법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수미상관의 구성은 시의 처음과 끝을 같게 하거나 비슷하게 구성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1연과 4연은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미상관의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자연물인 '꽃'이 등장하지만, 이때 '꽃'은 자연물로서의 의미가 아닌 '의미 있는 존재'라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표현 방식인 의인법도 사용되지 않았다.

### 배경지식 시에서의 반복과 변주

시에서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어 또는 시구, 시행, 더 나아가 문장 구조 등을 반복하는데, 이러한 반복은 시의 운율감을 더해 주며, 시의 의미를 강조해 주는 효과가 있다. 한편, 시에서는 단순히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내용에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 이를 변주라고 한다. 김춘수의 「꽃」에서 '~이 되고 싶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되, 그 앞의 내용을 '그의 꽃이', '무엇이',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로 변주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반복과 변주를 통해 운율감을 주면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 09 시어(구)

이 작품에서 '나'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본질에 알맞은 의미를 부여받기를 소망하고 있다. 즉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그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다. 이때 '빛깔과 향기'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본질적 특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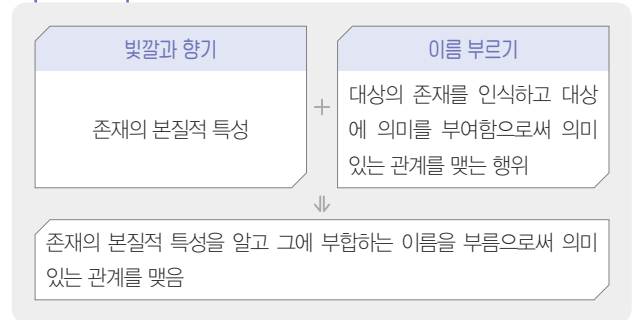
**오답 풀이** ② '나의 이 빛깔과 향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빛깔과 향기'는 '나'가 이미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그'로부터 얻고자 하는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빛깔과 향기'는 '나'가 이미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가 지니고 싶어 하는 특성이 아니다.

④ '나'는 자신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 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빛깔과 향기'는 '그'에게로 가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특성이 아니다.

⑤ '빛깔과 향기'는 '나'가 지닌 본질적 특성으로, '그'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다. '빛깔과 향기'는 '나'의 본질적 특성이기에 '빛깔과 향기'에 부합하는 '나'의 이름은 '그'의 이름과 다른 것이다.

### 알아두기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 부르기



## 10 주제

이 작품에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는 것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존재에서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를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가 변하지 않아야 진정한 관계 맺음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시구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은 의미 없는 존재였던 '하나의 몸짓'을 의미 있는 존재인 '꽃'으로 바꿔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름을 불러 주는 행위는 주체가 어떤 대상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름으로 불리기 전,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존재로서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낸다.

③ 이 작품에서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고, 이름을 불러 준 이후에는 그 대상은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 따라서 '나'가 이름을 불러 준 이후 '그가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의미 있는 존재로서 '나'와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⑤ '우리들은 모두 / 무엇이 되고 싶다'는 '나'의 소망이 '우리들'의 소망으로 확대된 것으로, 우리는 모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의미이다.

### + 독해 체크

본문 032쪽

- ① 무의미    ② 의미    ③ 몸짓    ④ 꽃    ⑤ 무엇  
⑥ 우리

### + 어휘 체크

본문 033쪽

- 1 (1) 몸짓 (2) 빛깔 (3) 눈짓  
2 명명 - 명역 - 의미 - 미인 - 인식 - 식별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사실적, 비판적

주제 피폐해져 가는 농촌 현실에 대한 한과 분노

특징 •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 역설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농무  
06 운동장    07 도수장

실력 문제

08 ②    09 ④    10 ④    11 ⑤

- 01 이 작품은 '운동장 → 소줏집 → 장거리 → 쇠전, 도수장'으로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02 이 작품에서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며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03 이 작품에서 화자는 '우리'로, 농무를 추는 농민이며 당시 농촌의 실상을 보여 주는 존재들이므로 농촌 공동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 04 이 작품의 화자는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살기가 힘든 농촌의 암울한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고 있을 뿐,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05 화자는 농민들이 떠나 공동체적 삶이 파괴되고, 농사를 지어도 비릿값도 안 나오는 현실에 울분을 토하면서 농무를 추고 있다. 따라서 농무는 울분을 표출하는 수단이 된다.
- 06 이 작품에서 '텅 빈 운동장'은 소외당하는 농촌의 현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부정적 현실에서 느끼는 농민들의 쓸쓸함, 허무감, 소외감 등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07 이 작품에서 '도수장'은 농민들의 울분을 표출하는 수단인 농무가 절정에 달하는 공간으로, 농민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08 **표현**  
화자는 농무를 추는 과정에서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비릿값도 안 나오는 농사' 등과 같이 당시 피폐해진 농촌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에서 화자가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마지막 두 행에서 '~를 불거나', '~를 흔들거나'와 같이 비슷한 어구를 찍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이 작품에서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는 찾을 수 없다.
- ⑤ 이 작품에서 명령형 어조를 사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09 시어(구)

'쇠전'은 농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농사에 필요한 소를 팔아야 하는 농촌의 피폐한 현실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이 작품에서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낼 수 있는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0 화자·대상

①~③에서 화자는 암울한 농촌 현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 농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③에서 암울한 현실이 '답답하고' '고달프고' '원통하게' 느껴지는 화자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⑥에서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라며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비릿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에서 농사를 지어 팔아도 비릿값만큼도 얻지 못하는 농촌의 모순적인 현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③~⑥ 모두 화자는 농촌에 사는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암울한 현실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11 화자·대상 + 표현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드는 행동의 나열을 통해 신명 나는 농무를 추며 울분과 분노를 표출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화자는 농무를 통해 울분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뿐, 현실에 순응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막이 내렸다'에서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무대 공연이 끝났음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농촌 공동체가 막을 내린 현실, 즉 농촌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② '분이 얼룩진 얼굴'은 이중적 표현으로, 공연하며 흘린 땀으로 '분'장이 지워져 얼룩진 얼굴'이라는 시적 상황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울분으로 얼룩진 얼굴'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기도 한다.

③ 농무를 따라붙는 사람이 '조무래기들뿐'임을 보여 줌으로써 농촌의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떠나고 농촌에는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④ '신명이 난다'는 화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답답함·원통함과 대비되는 역설적 상황으로, 현실의 암울함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 + 독해 체크

본문 036쪽

- ① 원통함    ② 울분    ③ 역설적    ④ 모순적    ⑤ 막  
⑥ 분장    ⑦ 농사    ⑧ 신명    ⑨ 도수장    ⑩ 농무

## + 어휘 체크

본문 037쪽

- 1 (1) 원통 (2) 신명 (3) 발버둥  
2 <가로> ① 조무래기 ④ 날라리  
<세로> ② 기름집 ③ 팽과리

# 07

## 첫사랑 \_고재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낭만적

**주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위한 시련과 고난

**특징** • '눈'을 의인화하여 사랑의 모습을 표현함  
•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변화에 시적 의미를 부여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눈꽃    05 관찰자  
06 싸그락 싸그락

**실력 문제**

07 ⑤    08 ①    09 ②

01 이 작품은 눈이 내리는 겨울에서 꽃이 피는 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눈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03 이 작품은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등과 같이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4 이 작품의 1~3연에서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5 이 작품의 화자는 시에 등장하지 않는 숨겨진 화자로 시적 대상인 눈이 눈꽃을 피우는 과정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다.

06 이 작품의 2연에서 '싸그락 싸그락'은 음성 상징어로, 눈이 내리는 소리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시구이다.

**07 표현**

이 작품에서 사랑을 이루어 내려고 노력하는 주체는 '눈'이며, 눈이 사랑하는 대상은 '나뭇가지'이다.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2연에서 '싸그락 싸그락'은 눈 내리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로, 음성 상징어를 통해 눈이 오는 시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② 4연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꽃의 황홀한 모습을 '아름다운'으로, 눈이 꽃을 피우기까지의 시련과 고통의 과정을 '상처'로 표현한 시구이다. 표면적으로는 모순이 되는 역설적 표현이지만, 시련과 고난을 겪은 뒤 얻은 사랑의 결실을 강조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③ '눈'을 의인화하여 시련을 이기고 도전하며 마음을 다 퍼부어 주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④ 1연에서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이루기 위해 한 많은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08 시어(구)**

눈이 시련을 이기고 수많은 도전 끝에 마침내 눈꽃을 피워 낸 것을 '황홀'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황홀'은 눈꽃의 보조 관념이자, 눈꽃을 피워 낸 기쁨을 함축한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바람 한 자락 불면 흰 날아갈 사랑이긴 하지만 '황홀'은 눈이 눈꽃이라는 결실을 맺은 기쁜 순간을 표현한 것으로, 눈꽃이 필 연적으로 사라지는 슬픔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③ 눈 내리는 풍경보다는 눈꽃에 대한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시적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지도 않다.

④ 바람에 의해 눈꽃이 날리는 것은 어렵게 피워 낸 눈꽃, 즉 사랑이지만 금방 끝나는 속성을 표현한 것으로, 풍경에 대한 예찬을 드러낸 시어는 아니다.

⑤ 나뭇가지가 눈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운 것이 아니라, 눈이 시련 속에서도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워 낸 것이다.

**알아두기 시어(구)의 의미**

|         |                                              |
|---------|----------------------------------------------|
| 싸그락 싸그락 | 눈이 내리는 소리                                    |
| 난분분 난분분 | 눈이 하늘에서 흠날리며 내리는 모습                          |
| 황홀      | • 눈의 헌신과 노력으로 피워 낸 눈꽃<br>•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      |
| 아름다운 상처 | • 봄에 꽃이 핀 모습<br>• 첫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 이루어 낸 성숙된 사랑 |

**09 주제**

2연에서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는 눈이 사랑(눈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1연에서 '많은 도전'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눈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③ 2연에서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은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과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 4연에서 '한 번 덴 자리'는 눈꽃을 피웠던 자리이자, 눈꽃이 녹은 자리로, 첫사랑의 아픔(이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⑤ 4연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시련과 헌신 끝에 얻은 사랑의 아름다움, 사랑의 결실로 볼 수 있다.

**+ 독해 체크**

본문 040쪽

- ① 눈꽃    ② 노력    ③ 봄    ④ 상처    ⑤ 덴 자리    ⑥ 황홀  
⑦ 의인법

**+ 어휘 체크**

본문 041쪽

- 1 (1) 데어 (2) 피우면 (3) 퍼부었다  
2 상처 - 처세 - 세상 - 상전 - 전황 - 황홀

# 08

## 청산별곡 \_작자 미상

**갈래** 고려 가요

**성격** 현실 도피적, 애상적

**주제** 삶의 고통과 슬픔

**특징** •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 ‘ㄹ’, ‘ㅇ’ 음을 반복하는 후렴구를 통해 경쾌한 리듬감을 형성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돌  
06 물 아래      07 멀위, 다래

**심력 문제**

08 ②      09 ③      10 ①      11 ④

- 01** ‘자고 니러 우니노라’, ‘마자서 우니노라’ 등의 시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작품에는 삶의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다.
- 02** 이 작품의 화자는 현실에서 삶의 고통과 비애를 느끼는 상황 이므로 자연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만끽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3** 이 작품은 화자가 특정한 청자를 상대로 자신의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백체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04** 이 작품의 ‘청산’은 일상적 삶의 공간이 아니라 화자가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찾아가려는 현실 도피의 공간을 의미한다.
- 05** 5연의 시어 ‘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 또는 운명적 삶의 비애를 상징한다.
- 06** 공간적 측면에서 1연의 ‘청산’과 6연의 ‘바다’는 화자가 살아가려고(찾아가려고) 하는 이상 세계 또는 현실 도피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면, ‘물(물) 아래’는 화자가 살았던 세속의 공간에 해당한다.
- 07** 6연의 ‘바다’에서 먹는 음식인 ‘나마자기 구조개’는 나문재, 굴, 조개와 같은 소박한 음식으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을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은 ‘청산’에서 구할 수 있는 소재인 1연의 ‘멀위’, ‘다래’이다.

### 08 화자·대상

이 작품은 시구의 해석에 따라 화자와 주제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가던 새’를 ‘갈던 사래(발)’로, ‘임무든 장굴’을 ‘이끼 묻은 쟁기(농기구)’로 해석한다면 화자는 삶의 터전인 농

토를 잃고 청산에 들어가 머무, 다래 등을 먹고 살아야 하는 유랑민(농민)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의 화자를 ‘사랑에 실패한 여인’으로 볼 경우, ‘임무든 장굴’은 ‘이끼 묻은 은장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③ 이 작품의 화자를 ‘술로써 고뇌를 잊으려는 지식인’으로 볼 경우, ‘가던 새’는 ‘갈던 발이랑’이 아닌 ‘날아가던 새(뜻을 같이 했던 벗)’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④ 이 작품의 화자를 ‘국경의 주변 지역을 지키는 군인’으로 볼 경우, ‘임무든 장굴’은 ‘날이 무딘 병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⑤ 이 작품의 화자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현실에서 겪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산’이나 ‘바다’와 같은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향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물의 덕성을 본받으려는 사대부는 이 작품의 화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알아두기 시구와 화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

|          |                                                                                                                                                                                                                            |
|----------|----------------------------------------------------------------------------------------------------------------------------------------------------------------------------------------------------------------------------|
| ‘가던 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날아가던 새’의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li> <li>• ‘물 아래’와 ‘장굴란(연장을)’을 근거로 ‘갈던 사래(발)’로 해석하는 견해</li> </ul>                                                                                           |
| ‘임무든 장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끼 묻은 쟁기’로 해석하는 견해 → 화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으로 해석됨</li> <li>• ‘이끼 묻은 은장도’로 해석하는 견해 → 화자는 사랑에 실패한 여인으로 해석됨</li> <li>• ‘날이 무딘 병기’로 해석하는 견해 → 화자는 지식인 또는 변방에서 국경을 지키는 군인으로 해석됨</li> </ul> |

### 09 표현

㉠은 의미 없는 후렴구로, 이 작품에 나타나는 고독이나 슬픔의 정서와 상반되게 경쾌하고 명랑한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화자의 주된 정서를 집약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노래의 리듬에 맞추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흥을 돋우어 준다.
- ② 경쾌하고 명랑한 느낌을 주어 시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삶의 괴로움을 잊으려는 당시 사람들의 낙천성을 드러낸다.
- ④ ‘ㄹ, ㅇ’의 율림소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경쾌한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 ⑤ 1연부터 8연까지 마지막 행에 후렴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 작품 전체에 안정감과 통일감을 부여한다.

### 10 시어(구) + 표현

2연에서는 삶의 고통과 슬픔을 눈물로 달래는 화자가 ‘새’ 또한 그러한 감정을 가졌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2연의 ‘새’는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 화자의 분신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② ⑥ ‘바므란’은 고독과 절망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병상련과는 관련이 없다.
- ③ ③ ‘에정지’는 외딴 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의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④ ㉔ '사슴이'는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의 감정 이입의 대상이 아니다.
- ⑤ ㉔ '설진 강수'는 고뇌 해소의 수단을 뜻하는 것으로 화자가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대상과는 관련이 없다.

#### 배경지식 + 감정 이입

시적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시적 대상과 화자가 서로 같은 감정이나 정서를 느끼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감정 이입'이라고 한다.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은 보통 화자와 동일시된다. 이 작품에서 2연의 '새'는 화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자연물로, 화자와 같은 '슬픔'의 정서를 느끼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

#### 11 표현

이 작품은 5연과 6연의 위치를 바꿀 경우, 1연('청산')과 6연('바다'), 2연('우리라')와 5연('우니노라'), 3연('본다')와 7연('드로라'), 4연('엇디 호리라')와 8연('엇디 하리잇고')이 표현과 내용 면에서 서로 짝을 이루는 대칭적 구조가 된다.

-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꿀 경우, 전반부인 1~4연은 '청산 노래', 후반부인 5~8연은 '바다 노래'로 나눌 수 있다.
- ② 2연의 '자고 니러 우니노라'와 5연의 '마자셔 우니노라'가 표현과 내용 면에서 서로 짝을 이룬다.
- ③ 4연과 8연은 각각 '엇디 호리라', '엇디 하리잇고'와 같이 의문문으로 끝나면서 해당 연의 시상을 마무리하는 기능을 한다.
- ⑤ 1연은 '청산', 6연은 '바다'로 공간이 다르지만, 두 공간 모두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가 찾아가서 살려고 하는,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독해 체크

본문 044쪽

- ① 동경 ② 미련 ③ 술 ④ 유랑민 ⑤ 바다 ⑥ 새  
⑦ 밤 ⑧ 돌 ⑨ 경쾌

#### + 어휘 체크

본문 045쪽

- 1 (1) 만끽 (2) 집약적 (3) 동병상련  
2 <가로> ① 유유자적 ③ 덕성  
<세로> ② 유랑민 ④ 낙천성

## 09

### (가) 님이 오마 하거늘~ (나) 동짓달 기나긴 밤을~

본문 046~047쪽

#### 가 [님이 오마 하거늘~\_작자 미상]

**갈래** 사설시조

**성격** 해학적, 과장적

**주제**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특징** •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해 화자의 행동을 과장되게 표현함  
• 자연물을 임으로 착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함

#### 나 [동짓달 기나긴 밤을~\_황진이]

**갈래** 평시조

**성격** 서정적, 낭만적

**주제** 임을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

**특징** • 의태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살림  
•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함

####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주추리 삼대  
06 사설시조 07 동짓달 기나긴 밤, 정든 임 오신 날 밤

#### 실력 문제

- 08 ② 09 ③ 10 ② 11 ③

- 01 (가), (나)의 화자는 모두 사랑하는 임과 헤어져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 02 (가)에는 '곰비곰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과 같은 의태어와 '위령충창'과 같은 의성어가, (나)에는 '서리서리, 굵이굽이'와 같은 의태어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의성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 03 (가)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한 화자가 조금이라도 임을 빨리 만나기 위해 허둥대는 행동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04 (나)의 화자는 동짓달의 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내 임이 오시는 날 밤에 굵이굽이 편으로써 임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05 (가)의 시어 '주추리 삼대'는 삼의 줄기를 말하는 것으로, 화자가 오지 않는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상황에서 임으로 착각하는 대상이다. 중장의 '주추리 삼대 살뜰이도 날 속였고나'에서 보듯이 '주추리 삼대'는 화자의 착각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06 3장 6구 45자 내외를 기본형으로 하는 평시조인 (나)와 달리 (가)는 초장과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지고 종장도 어느 정도

길어져 장형화되면서 산문의 성질을 띠는 사실시조에 해당한다.

07 (나)의 '동짓달 지나긴 밤'은 임이 없이 화자 홀로 지내는 부정적인 시간을, '정든 임 오신 날 밤'은 임과 함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간을 뜻하는 시구로, 그 의미가 서로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 08 화자·대상

(가), (나)의 화자는 모두 사랑하는 임과 헤어져 있는 상황에서 임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임에 대한 절실한 기다림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 (나) 모두 임의 부재 상황은 맞지만,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 (나)의 화자는 모두 임과 헤어져 외롭게 지내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 (나)의 화자가 임과 헤어진 상황은 맞지만, 절망적 슬픔에 빠져 있지는 않다.

⑤ (가), (나)에서 이별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후회하는 화자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9 시어(구)

〈보기〉의 화자는 창밖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임으로 착각해 뛰어나갔다가 자신의 착각임을 깨닫고 멧찍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임에 대한 화자의 절실한 기다림과 그리움을 보여 주는 소재는 ㉔ '주추리 삼대'이다.

**오답 풀이** ① ㉑ '저녁밥'은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② ㉒ '남'은 화자가 애타게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대상이다.

④ ㉓ '동짓달 지나긴 밤'은 임이 없이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부정적 시간을 의미한다.

⑤ ㉔ '정든 임 오신 날 밤'은 그리던 임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 10 표현

화자가 임을 기다리다가 무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임이라고 생각하여 우당탕 갔는데 주추리 삼대였다. 화자가 허둥대며 가는 모습이나, 자신의 착각임을 알고 겹언쩍어 하는 모습 등이 독자에게 웃음을 주는 요소로 해학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밤이라서 자신이 착각해서 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남에게 보이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밤'을 탓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기다리던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화자는 이른 저녁을 먹고 임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해학성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진술함에서 해학성을 찾기는 어렵다.

④ 화자는 임을 기다리는 간절함에 마당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때문에 나가 기다리고 있다.

⑤ 임이라고 생각하여 가는 모습을 과장되게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말고 위령총창' 건너간다고 표현한 것은 위험해 보인다고보다는 웃음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 알아두기 (가)에 나타나는 표현의 해학성

##### 해학적 요소

-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행동을 과장되게 묘사함
- 의인화 방법을 통해 주추리 삼대가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말하며 실망감보다 멧찍음을 드러냄



##### 웃음을 유발함

#### 11 시어(구)

(나)에서 화자는 임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임에 대한 그리움만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도 임의 집을 찾아가는 꿈을 수없이 꾀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 꿈에서 많이 찾아가서 '석로'가 닳을 만큼 화자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그를 슬퍼하노라'는 흔적이 남지 않아 화자 자신의 마음을 임이 모를 것이라는 아쉬움에서 나온 표현이므로 임을 원망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의 화자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의 밤의 시간을 잘라서 임이 오는 날에 붙여서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따라서 (나)의 '한 허리를 베어 내'는 것에는 임과 함께하게 될 밤의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의 '석로'는 화자가 꿈속에서 임을 보기 위해 임의 집으로 다니던 길이다. 이 길이 닳았다는 것은 그만큼 화자가 임을 보기 위해 많이 다녔다는 의미이므로, 임을 보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이 매우 큼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을 '베어 내'고 '서리서리 넣었다가' '굽이 굽이' 펼 수 있는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이와 같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에서는 '정든 임이 오신 날 밤'이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임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 〈보기〉에서는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면'이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매우 큼을 나타내고 있다.

#### + 독해 체크

본문 048쪽

- ① 착각    ② 춘풍    ③ 그리움    ④ 기다림    ⑤ 부정  
⑥ 과장    ⑦ 웃음    ⑧ 밤    ⑨ 서리서리

#### + 어휘 체크

본문 049쪽

- 1 (1) ㉑ (2) ㉔ (3) ㉒  
2 (1) 묘미 (2) 해학적 (3) 추상적

**갈래** 양반 가사, 서정 가사, 정적 가사

**성격** 서정적, 충신연주지사

**주제**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

**특징** •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림  
•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대화    05 꿈  
06 안개, 물결

**실력 문제**

07 ③    08 ③    09 ③    10 ④

01 이 작품은 4음보 연속체의 가사로 일정한 음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02 ‘님다히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님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등에서 화자가 임의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이 작품에는 화자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04 이 작품은 갑녀와 을녀의 대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지문에 제시된 부분에서는 1~27구가 을녀의 말로 임에 대한 걱정과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 마지막 28구가 갑녀의 말로 을녀인 ‘각시님’을 위로하고 있다.

05 화자의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서라도 임을 보게 되었는데, 이는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꿈으로라도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06 이 작품에서 임과 화자의 사랑을 방해하는 기능을 하는 소재는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이다.

07 **화자·대상**

‘님다히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 오늘도 거의로다.’를 볼 때, 물가에 가 뱃길을 보려 하는 것은 임의 소식을 전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임과 떨어져 있는 현실을 슬퍼하며 임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을 뿐, 현실을 벗어나 탈속적 공간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임의 소식을 전해 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이는 임과의 거리를 좁혀 보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② ‘산천’이 어두워서 ‘천 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화자가 느끼는 임과의 거리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장이니’는 임의 소식을 알고자 산과 강으

로 이리저리 다녔던 화자의 노력들을 표현한 것이다.

⑤ ‘방정맞은 닭소리’는 화자가 임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꿈에서나마 이룰 수 있었는데 닭소리에 꿈을 깨어 아쉬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08 **표현**

‘내일이나 사람 올까.’, ‘어디로 가잔 말까.’, ‘안개는 무슨 일가.’, ‘천 리를 바라보랴.’, ‘빈 배만 걸렸는가.’, ‘누굴 위해 밝았는가.’ 등과 같이 문장을 의문형으로 끝맺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계절의 변화와는 관련되지 않는다.

② 과거와 미래를 대비한 표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대상을 의인화한 표현은 이 작품에서 찾을 수 없다.

⑤ 이 작품에서 음성 상징어가 활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9 **시어(구)**

밝은 ‘반벽청등(靑燈)’은 임의 부재에 따른 외로운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화자가 기억하고 있는 임의 모습을 지문에서 찾아본다면 ‘옥 같은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안개’는 ‘구름’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임을 볼 수 없게 하는 대상으로 화자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

② ‘빈 배’는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④ ‘닭소리’에 화자가 꿈에서 깨어나므로, 화자가 임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꿈을 통해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상이다.

⑤ 을녀는 임을 멀리서 비추는 ‘낙월’이 되고자 하는데 갑녀는 오랫동안 내리며 가까이에서 임을 볼 수 있는 ‘꽃은비’나 되라며 적극적인 애정관을 드러내고 있다.

10 **시어(구) + 주제**

‘옥 같은 몸이 반이나마 늙으셨네.’는 꿈에서 본 임의 모습으로, 임이 많이 변해 버렸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화자가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늙으셨다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지, 임금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님’은 ‘임금’을 의미하고, ‘일월’은 해와 달로 ‘임금’을 상징한다. ‘옥 같은 얼굴’은 ‘임’을 뜻하므로 이들은 모두 임금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② ‘산천’이 어둡다는 것은 당시의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이 처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드러난다.

③ ‘바람’과 ‘물결’은 임과 화자 사이에 놓인 장애물을 뜻하는 소재로, 화자가 임금에게 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⑤ 화자가 죽어서라도 ‘낙월’이 되어 임 계신 창 안을 비추겠다고 한 것은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독해 체크**

본문 052쪽

① 그리움    ② 구름    ③ 꿈    ④ 빈 배    ⑤ 낙월    ⑥ 적극적  
⑦ 임    ⑧ 다짐

**+ 어휘 체크**

본문 053쪽

• ㉠ - ㉡ - ㉢ - ㉣ - ㉤

## 2. 소설

본문 060~061쪽

01

고향 ① \_현진건

**갈래** 단편 소설, 액자 소설

**성격** 사실적, 현실 고발적, 비판적

**주제** 일제 강점기 민중들의 비참한 삶

**특징**

- 관찰자인 '나'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 '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액자식 구성임
- '그'를 통해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 줌
- 민요를 삽입하여 인물의 심리와 작품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빈주먹  
06 동양 척식    07 액자식

실력 문제

08 ①    09 ②    10 ⑤

- 01 '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 02 '그'는 실제 스물여섯이었지만 가난과 고생으로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 03 (가)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고향 사람들은 세상이 뒤바뀌기 전(일제 강점기 전)에는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넉넉하지는 못해도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 04 (가)와 (나)는 내부 이야기로, 내부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인 '나'가 '그'와 대화를 하면서 들은 사연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05 서간도로 이사를 간 '그'의 가족은 남의 밑천을 얻어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 가을이 되어도 남는 것이 없었다. 이를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는 말을 통해 압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06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독점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이를 통해 이 작품이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7 이 작품은 '나'가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를 만나는 이야기 속에 '그'의 과거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식 구성으로 전개된다.
- 08 **인물·사건**  
(나)를 보면,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② '그'의 가족이 서간도로 이사한 후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영양 부족과 심한 노동으로 돌아가셨다.

③ '그'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그'가 과거 고향에서는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한 역둔토를 경작하였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뿐, '그'가 자신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⑤ 서간도에 황무지가 많았지만, 황무지를 개간하는 동안에는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남의 밑천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다 보니 가을이 되어도 남는 것이 없어 힘겹게 살았던 것이다. 현진건의 핍박으로 쫓겨났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알아두기**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

이 작품에서 '그'는 일제의 강압적인 수탈로 인해 고향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서간도로 이주하게 된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부모를 모두 잃고 만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주권을 잃은 조선의 현실과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09 **서술**

(가)~(나)는 내부 이야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전지적 서술자가 '그'의 과거 내력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나)는 주인공인 '그'의 과거 이야기를 이야기 밖의 서술자('나')가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주인공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나)는 주인공인 '그'의 과거 이야기를 이야기 밖의 서술자('나')가 요약적으로 전달하면서 '그'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인물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나)는 내부 이야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전지적 서술자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시점을 전환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나)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나')가 '그'에게 들은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직접 관찰하여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알아두기** 액자식 구성

이 작품은 이야기 속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나'와 '그' 사이의 외부 이야기와 '그'가 들려주는 내부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외부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를 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외부 이야기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나'가 '그'를 만나 과거 이야기를 들음  
(1인칭 관찰자 시점)

내부 이야기

'그'의 고향 이야기와 인생 역정  
(전지적 서술자 시점)

## 10 주제

(가)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모습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중간 소작인의 수탈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반일 감정을 품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모습이라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그’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역둔토를 경작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이 땅이 모두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소유가 되면서 점점 먹고살기 힘들어진다. 이는 일제의 강압적인 수탈로 인한 일본의 폭력적 식민 지배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중간 소작인의 수탈로 인해 고향을 떠나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만 늘고 동리가 점점 쇠진해 가는 모습은 일제 강점기하의 피해해진 우리나라 농촌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③ ‘그’의 가족은 살기 좋다는 소리를 듣고 서간도로 이주했지만 여전히 먹고살기도 힘들었고, 결국 부모님마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하의 해외 동포들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그’의 고향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수탈로 인해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타처로 떠나고 점점 쇠진해 갔다. 삶의 터전인 고향이 쇠진해지고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식민 지배의 직접적 피해 계층이 조선 민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배경지식 + 현진건 문학의 특징

이 소설의 작가인 현진건은 우리나라 근대 단편 소설의 기틀을 확립했으며, 사실주의 문학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특히 1920년대의 사회 현실과 그 속에서의 삶의 모습을 사실주의 기법으로 표현하면서, 일제 강점기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그려 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 중 하나가 ‘고향’으로, 일제 강점하의 조선 민중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어 일제에 의해 판매 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 01 고향 2

본문 062~063쪽

###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술  
06 무덤, 해골    07 농촌, 민족

### 실력 문제

08 ③    09 ③    10 ④

**01** (다)로 보아 ‘그’가 서간도를 떠난 것은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기 때문이고, 한곳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게 된 것은 이따금 율화만 치받치기 때문이었다.

**02** (다)로 보아 ‘그’는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림기도 하여 고국으로 돌아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기 위해 고향에 간 것이다.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향을 찾은 것은 아니다.

**03** 이 작품은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04** (라), (마)의 ‘나’와 ‘그’의 대화를 보면, ‘나’는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라며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겠지요.’, ‘그러면 아주 폐농이 되었던 말씀이요.’ 등과 같이 ‘그’의 말에 적절히 반응하며 ‘그’가 다음 말을 이어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05** (다)에서 ‘나’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다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친구들이 사 준 정종병 마개를 빼서 ‘그’와 함께 술을 마신다. 따라서 ‘술’은 ‘나’가 ‘그’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를 위로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06** (라)를 보면 ‘그’는 폐허가 된 고향의 모습을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다고 묘사하였다.

**07** 폐허가 된 고향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발견한다. 이는 ‘그’의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하 조선 민중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조선 민중, 즉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고, 폐허가 된 고향은 일제의 수탈로 피해해진 일제 강점기의 우리나라 농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08 인물·사건

(다)를 보면 ‘그’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서간도를 떠나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러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품을 팔았다는 것은 샅을 받고 일을 했다는 것으로, 장사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그’가 중국 여기저기를 떠돌며 산 것은 맞지만 장사를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다)와 (라)에서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폐허가 된 고향 이야기를 한 후, 눈물을 흘리며 술을 마시고 있다.

② (다)를 보면 부모님을 잃고 서간도를 떠난 ‘그’가 중국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구주 탄광과 대만 철광공에서도 일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마)를 보면 ‘그’가 고향에 갔다가 이웃에 살던 여자를 만나 죽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라)에 ‘그’가 오랜만에 찾아간 고향에서 터만 남은 옛집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알아두기 폐허가 된 고향의 상징성

(라)에는 폐허가 된 고향의 모습이 ‘그’의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고향의 모습은 ‘그’가 처한 비극적 상황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일제에 수탈당한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폐허가 된 고향의 모습



일제에 수탈당한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

09 인물·사건

‘그’의 삶의 내력을 들으며 ‘나’는 ‘그’의 처지에 대해 연민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게 된다. ㉔은 타국에서 부모를 잃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오랜만에 고향에 찾아간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의 반응이므로, ‘나’의 안타까움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분노나 무력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㉔에는 서간도에서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영양 부족과 심한 노동으로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상황을 떠올리는 ‘그’의 슬픔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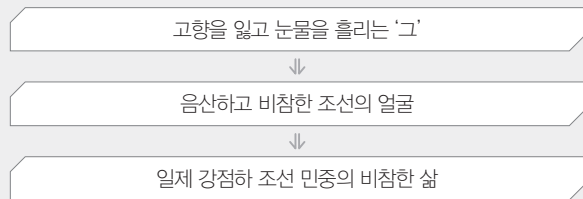
② ㉔에서 ‘나’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친구들이 사 준 정종병 마개를 빼고 있다. 이는 ‘그’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㉔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발견하는데, 이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일제 강점하 우리 민족의 비참한 모습을 떠올린 것이다.

⑤ ㉔에서 ‘나’는 고향에 갔다가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는지 묻고 있는데, 이 질문을 계기로 ‘그’의 이웃에 살던 여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알아두기** ‘조선의 얼굴’에 담긴 의미

(라)에서 ‘그’의 눈물 속에서 ‘조선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고향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에서 주권을 상실한 조선의 모습과 고향을 잃고 떠도는 조선 민족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서술

이 작품의 외부 이야기는 서술자인 ‘나’가 ‘그’와의 대화를 서술하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그’를 바라보는 ‘나’의 감정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이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로, 3인칭 전지적 시점에 따라 ‘그’가 살아온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그’가 살아온 내력을 다룬 내부 이야기는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서술자인 ‘나’가 등장하지 않는다.

③ ‘그’의 모습을 ‘나’가 바라보는 장면은 기차 안에서 ‘나’가 ‘그’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므로 외부 이야기에 해당한다.

⑤ 폐허가 된 고향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은 ‘나’와 ‘그’의 대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으므로 외부 이야기에 해당한다.

**배경지식** ⚡ 일제 강점기의 현실과 궁핍의 문학

이 시대의 작품들은 대부분 국권을 상실한 후,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리고 있다. 일제의 통치로 인해 비참했던 역사적 비극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 민족의 고통과 일제 강점기의 궁핍한 민족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01 고향 ③

본문 064~065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수탈, 억압  
06 유곽

실력 문제

07 ⑤    08 ①    09 ④    10 ①

01 (바)를 통해 부모 사이에 ‘그 여자’와의 혼인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했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2 (바)를 보면 ‘그 여자’는 이십 원 몸값을 십 년을 두고 갚았지만 그래도 주인에게 빛이 육십 원이나 남았는데 몸에 몸쓸 병이 들고 늙고 나니 주인이 특별히 빛을 탕감해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고향에 찾아오니 집도 부모도 없어 읍내로 돌아다니다가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 여자’가 빛을 갚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이 작품의 마지막에 삽입된 노래(민요)는 일제 강점기의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며, 일제로 인해 비극적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현실을 풍자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주제 의식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작품에 생동감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04 이 작품은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를 삽입한 액자식 구성으로, ‘나’가 ‘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방식을 통해 ‘그’의 이야기가 진짜 있었던 일인 듯한 신뢰감을 준다.

05 (사)에 제시된 노래(민요)에서 ‘신작로’는 새로 만든 길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제가 농민의 논과 밭을 수탈하여 건설한 것이다. 또한 민요의 내용을 통해 일제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은 ‘감옥소’로 끌려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요의 ‘신작로’와 ‘감옥소’는 일제의 수탈과 억압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6 (바)를 보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십 원을 받고 ‘그 여자’를 대구 유곽에 팔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딸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일제 강점기의 비참한 민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07 서술

(바), (사)에서는 요약적 제시와 ‘그’와 ‘나’의 대화를 통해 ‘그 여자’가 살아온 내력과 현재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외부 이야기는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진행되는 사건으로 ‘나’와 ‘그’의 대화를 통해 서술되고 있으며, 내부 이야

기는 '그 여자'의 살아온 내력으로 전지적 서술자가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을 여러 서술자가 번갈아 전달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바), (사)에 배경 묘사는 나타나지 않으며, (사)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으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③ 외부 이야기는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이고, 내부 이야기는 '그 여자'의 살아온 내력으로 과거의 사건이다. 따라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나란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
- ④ (바), (사)에서 여러 장면을 반복적으로 교차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도 드러나지 않는다.

#### 알아두기 소설의 서술 방식

|        |                                                                                                                        |
|--------|------------------------------------------------------------------------------------------------------------------------|
| 요약적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술을 통해 인물의 상황을 압축하여 말하거나 시간의 흐름을 압축하여 서술하는 방법</li> <li>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름</li> </ul> |
| 장면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화나 묘사 등을 통해 장면을 제시하는 방법</li> <li>사건의 전개 속도가 느림</li> </ul>                      |

### 08 배경·소재

[A]의 노래(민요)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일제로 인해 우리 민족이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당시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일제 강점기의 비극적인 현실을 압축하여 보여 주고 있을 뿐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 현실은 드러나지만 이를 이겨 내려는 강한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압축하여 보여 주고 있을 뿐 비유를 통해 다양한 상상이 가능하도록 열어 둔 것은 아니다.
- ⑤ '나'와 '그'가 취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인물들이 흥겨움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알아두기 노래(민요) 삽입의 효과

이 작품의 마지막에서 '나'는 '그'와 함께 술에 취해 어린 시절에 부르던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의 내용은 일제 강점기의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일제의 수탈과 억압으로 인해 비극적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현실을 풍자하는 효과가 있다.

|            |                                       |
|------------|---------------------------------------|
| 신작로가 된 농토  | 일제의 토지 강탈, 농민에 대한 수탈                  |
| 감옥소로 간 친구  | 일제의 지식인에 대한 억압과 핍박                    |
| 공동묘지로 간 노인 |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망국의 비운                    |
| 유곽으로 간 계집  | 일제 강점기에 극심한 가난으로 인한 조선 여성의 고난과 비참한 운명 |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겪는 수난과 고통을 압축적으로 보여 줌

### 09 인물·사건

(바)로 보아 '그'는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우연히 '그 여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따라서 '그'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읍내에 들른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을 통해 '그'와 '그 여자'가 이웃에 살았다는 것과 두 사람 사이에 혼인 말이 있었음이 드러난다.
- ② '그 여자'는 유곽으로 팔려 가 이십 원 몸값을 십 년이나 갚았지만 오히려 빚이 육십 원이나 남았고, 병이 들고 늙어서야 주인이 놓아주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약자를 가혹하게 수탈했던 당시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그 여자' 역시 십 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왔지만, 집과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 ⑤ '그 여자'는 아버지에 의해 유곽으로 팔려 갔는데, 이는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딸을 팔 수밖에 없었던 민중의 비참한 삶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10 주제

이 작품은 고향을 잃고 비참하게 살아온 '그'의 이야기를 통해 일제 강점하 우리 민족의 참담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처지에 공감하고 '그'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민족 간에 발생한 갈등과 불화를 연구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가 '그'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그'의 처지에 공감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그'와 '귀녀'는 일제 강점기에 비참한 삶을 산 우리 민족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전쟁으로 인해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현실을 대하는 '나'와 '그'의 태도 차이는 드러나지 않으며, 역사적 혼란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삶의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 알아두기 작품 창작 당시 조선의 농촌 현실

-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농민들은 농토를 빼앗기고 소작인으로 전락함
- 일제의 수탈로 비참한 생활을 하다 고향(농촌)을 떠나 유랑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 감
- 일제의 농촌 수탈 정책으로 농촌은 황폐화되고, 극심한 가난으로 여성은 유곽으로 팔려 가 고통받음

- ↓
- |                         |                                                                                                                       |
|-------------------------|-----------------------------------------------------------------------------------------------------------------------|
| 일제의 수탈로 인한 당시 조선의 농촌 현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를 수탈당한 조선의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음</li> <li>가혹한 농촌 수탈 정책으로 당시 민중의 생존권은 짓밟임</li> </ul> |
|-------------------------|-----------------------------------------------------------------------------------------------------------------------|

#### + 독해 체크

본문 066쪽

- ① 고향 ② 유랑 ③ 술 ④ 거부감 ⑤ 공감 ⑥ 풍자  
⑦ 관찰자 ⑧ 액자식 ⑨ 소작인 ⑩ 얼굴

#### + 어휘 체크

본문 067쪽

- 1 (1) 피폐 (2) 이완 (3) 황무지  
2 (1) ㉠ (2) ㉡ (3) ㉢

**갈래** 중편 소설, 풍자 소설, 가족사 소설

**성격** 풍자적, 해학적

**주제** 한 지주 집안의 붕괴 과정과 식민지 현실에 순응하는 타락한 삶에 대한 풍자

**특징**

-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남
- 판소리 사설의 문체와 경어체를 사용함
- 반어적 표현과 희화화를 통해 인물을 풍자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소재목    05 배경  
06 체중

실력 문제

07 ④    08 ①    09 ②

- 01 윤 직원 영감은 심장 비대증으로 천식기가 좀 있지만 서른 살 먹은 장정을 능가할 정도로 정정한(몸이 굳세고 건강한) 인물이라고 하였다.
- 02 (다)에서 윤 직원 영감의 이목구비, 즉 눈, 코, 입은 '수부귀다 남자의 상(오래 살고 부귀를 누리며 아들을 많이 낳을 복을 가진 관상)'이라고 하였다.
- 03 이 작품은 이야기 밖 서술자가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등장 인물의 행동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알고 있으며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전지적 서술자 시점을 취하고 있다.
- 04 (가)의 '1 윤 직원 영감 귀택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각 장마다 소재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소재목을 통해 각 장에서 다룰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05 (가)~(다)는 소설의 발단 부분으로, (가)에서는 '추석을 지나 ~ 어느 날 석양', '계동'의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윤 직원 영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다)에서는 윤 직원 영감의 외양 등을 제시하여 중심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 06 (나)의 '빚빚이 경사가 진 이십여 칸을 끌어올리기가 ~ 정말 허가 나올 뻔했습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인력거꾼은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거구의 윤 직원 영감을 태우고 경사진 길을 오르느라 몹시 고생하고 있다.

## 07 인물·사건 + 서술

㉔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 즉 윤 직원 영감이 내릴 때 부축해 주지 않은 인력거꾼을 나무라는 내용을 통해 ㉔은 윤 직원 영감이 인력거꾼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려 없이 책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허가 나오다'는 '허가 빠지다'와 유사한 말로, 매우 힘들

다는 의미이다. ㉔에서 '정말 허가 나올 뻔'했다는 것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윤 직원 영감을 싣고 비탈길을 오르는 일이 매우 힘들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② 인력거꾼이 몸집은 작지만 직업적으로 단련된 몸이기 때문에 어렵사리 거구인 윤 직원 영감을 집 앞까지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③ 인력거 좌판은 일반적인 몸집의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좌판이 비좁다는 것은 윤 직원 영감의 몸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㉔은 윤 직원 영감이 정정한 몸이 서른 살 먹은 젊은 나이의 장정을 능가할 정도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능가하다'는 '능력이나 수준 따위가 비교 대상을 훨씬 넘어서다.'라는 말이므로, ㉔은 젊은 나이의 장정과 비교를 통해 윤 직원 영감이 매우 정정함을 강조한 것이다.

## 08 인물·사건

〈보기〉에는 인력거꾼이 고생을 해서 윤 직원 영감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으나 인력거 삿을 얼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A]는 앞으로 인력거꾼에게 불운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보기〉에 제시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 [A]가 그것을 미리 알려 주는 기능을 한 것은 아니다.

③ '인력거꾼'은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말이지만 〈보기〉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④ [A]는 당일 아침의 일을 열거하였을 뿐 과거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⑤ 〈보기〉에서 인력거 삿을 주지 않으려는 윤 직원 영감과 인력거꾼 사이의 외적 갈등을 엿볼 수 있는데, 이 갈등의 원인은 윤 직원 영감의 인색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A]와는 관련이 없다.

## 배경지식 + 암시와 복선

암시와 복선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독자에게 넌지시 알려 주는 방식으로 사건에 필연성을 부여하는 장치이다. 즉, 앞에서 이어질 사건의 단서를 미리 서술함으로써 사건 전개에 우연성을 피하고 각각의 사건이 논리적 인과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 09 서술

'아파 무어라더냐'는 작중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시 생각이 나지 않거나 일부러 뜬을 들여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말로, 창자가 관객에게 작중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덧붙이는 말을 활용한 것이다. 주관적인 생각이나 평가를 드러낸 말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입니다'는 창자가 관객에게 말을 건넬 때 경어체를 사용하는 것을 이 작품에서 활용한 것이다.

③ '실상인즉 뻔히 섰던 것이 아니라, 가쁜 숨을 돌리면서 땀을 씻고 있었던 것이냐'는 인력거꾼이 서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판소리에서 창자가 관객에게 작중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④ '나이……? 올해 일흔두 살입니다.'는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서술자가 묻고 뜬을 들이다 답하는 형식을 취해 독자의 궁금증이나 관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는 판소리에서 창자가 일부러 뜬을 들이며 시간을 끌어 관객이 이어지는 내용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⑤ '그러나 시뻘 여기진 마시오'는 칠십이 넘은 윤 직원 영감의 나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독자의 반응을 예측해 언급한 것이다. 이는 판소리처럼 서술자와 독자의 상호 소통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 02 태평천하 ②

본문 070~071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별명    05 군수, 경  
찰서장    06 판소리

실력 문제

07 ⑤    08 ①    09 ③    10 ③

01 (마)의 끝부분, 즉 종수를 훈계하는 윤 직원 영감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윤 직원 영감은 종학의 씹씀이가 해퍼졌다고 생각하지만 언짢아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여전히 종학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02 '네 아우 종학이만 못히여!'를 통해 종학이 종수의 동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학이는~내년 내후년이머년 대학교를 졸업허잖나?', '그래서 지난달에도 오백 원 꼭 쓸 다가 있다가 핀지히었길래'를 통해 종학이 현재 집을 떠나 대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3 윤 직원 영감은 손자들에게 친일적인 성격을 가진 직업인 군수나 경찰서장이 되라고 할 정도로 일제 강점기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부조리한 현실 상황에 순응하는 인물이다.

04 '윤 두꺼비 시절', '말 대가리 윤용규'와 같이 등장인물들의 별명을 통해 그들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면서 풍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05 (마)에서 종수를 훈계하는 윤 직원 영감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윤 직원 영감은 큰손자 종수는 군수가 되고, 작은손자 종학은 경찰서장이 되길 바라고 있다.

06 이 작품은 'ㄴ' 겹다요'와 같은 조롱하는 어투로 된 판소리 사설 형식의 문체를 활용하여 윤 직원 영감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7 인물·사건  
(라)의 '시아버지 윤 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방 고 씨만 빼놓고'를 통해 고 씨가 윤 직원 영감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그 이유는 (라)~(마)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종락 부분 줄거리와 (라)에서 윤 직원 영감은 소싯적 부친의 시체 옆에서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라고 하였고, 현재는 '승리를 했겠지요.'라고 서술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② (마)에서 종수를 훈계하는 윤 직원 영감의 말을 통해 윤 직원 영감이 종수보다는 종학을 더 긍정적으로 여기며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마)의 '너 경손 애비, 부디 정신채리라', '너치를 허랑허지도 않고'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종락 부분의 줄거리와 (라)의 '자기 부친 말 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죽은'에서 알 수 있다.

## 08 서술

이 작품에서는 '윤 두꺼비', '말 대가리'와 같이 우스꽝스러운 등장인물의 별명 등을 통해 대상을 희화화해 풍자하고 있다. 또한 서술자가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라고 한 윤 직원 영감의 부르짖음에 대해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라고 반어적으로 평가한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윤 직원 영감의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면모를 조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④ 등장인물의 회상이 아닌 서술자가 윤 직원 영감의 과거를 서술하여 등장인물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부각하고 있다.

⑤ 이 글은 전지적 서술자 시점을 취하고 있으며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 배경지식 +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이야기 속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 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 편집자적 논평은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주로 사용되며, 고전 소설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이다.

## 09 인물·사건

[A]에서 윤 직원 영감은 종수가 군수가 되고 종학이 경찰서장이 되면 너희들(손자들)이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손자들의 출세를 통해 가문의 재산을 지키고 이익과 번영을 꾀하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윤 직원 영감이 종학보다 종수가 더 성공하길 바라고 있지는 않다. 두 손자 모두 가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을 가지길 바라는 것이다.

② 윤 직원 영감은 종수의 직업인 군 서기가 남부끄러운 것이라며 비하하고 있다.

④ [A]에서 군수, 경찰서장 되는 것이 다 손자들이 호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윤 직원 영감의 속마음은 자신의 가문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손자들이 군수, 경찰서장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지, 손자들이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군수, 경찰서장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⑤ [A]에 나타난 표면적 의미만을 보면 손자들의 직업이 자신과 상관없지만 이것은 숨은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10 서술

㉠은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라고 하며 세상을 저주하는 윤 직원의 말을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한 서술자적 논평이다. <보기>의 ㉡는 어사포의 정체가 이

몽롱임을 모르는 춘향이 자신에게 수청을 들라고 요구하자 ‘정치를 잘하여 이름이 난 관리’라는 뜻의 ‘명관’이라며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수절’과 ‘정절’은 같은 의미로 비슷한 발음의 말을 반복한 언어유희가 사용되었다.

② ‘살기를 바랄싸냐’는 ‘살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의문문 형식을 통해 강조한 표현으로 설의법에 해당한다.

④ ‘중암절벽 높은 바위’는 춘향의 절개를 비유하고, ‘바람’은 춘향에게 닥친 시련을 비유한 말로, 비유(은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⑤ 거지의 모습이었던 이몽룡이 어사가 되어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극적 반전이 나타난 부분이다.

#### 배경지식 + 반어법

반어법은 나타내려는 뜻과 상반되게 표현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기법을 뜻한다. <보기>에서 춘향은 자신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어사 또에게 ‘명관’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명관이 아니라는 자신의 생각과 반대로 나타내어 어사또의 요구를 비꼬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 02 태평천하 3

본문 072~07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전보 05 고사

실력 문제

06 ⑤ 07 ⑤ 08 ⑤

01 (바)에서 윤 직원 영감은 갑작스럽게 방문한 윤 주사에게 ‘뭇하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라고 말하며 아들 창식의 방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02 (바)에서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둘러 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윤 직원 영감의 경망스러운 행동을 풍자하고 있는 표현이다.

03 (사)의 ‘윤 직원 영감은 시방~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윤 직원 영감은 사회주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집안을 망하게 했던 부랑당패는 화적패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이 사회주의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윤 직원 영감의 입장에서 화적패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가문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다.

04 이 작품에서 ‘전보’는 작품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등장하는 종학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05 이 작품의 서술자는 (사)에서 소재목에 제시되었던 ‘망진자는 호야나라’의 고사를 활용하여 윤 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그의 자손들임을 암시하고 있다.

## 06 인물·사건 + 어휘

(사)의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신이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윤 직원 영감은 손자 종학의 신변에 대한 걱정보다는 다른 것, 즉 자신의 가문을 더 걱정하고 있다. ‘우왕좌왕’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견원지간’은 ‘개와 원숭이의 사이’라는 뜻으로, 사이가 매우 나쁜 두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윤 직원 영감과 아들 창식의 좋지 않은 관계를 나타내기에는 적절하다.

② ‘망연자실’은 ‘멍하니 정신을 잃음’을 뜻하는 말로, 종학의 피검으로 충격에 빠진 윤 직원 영감의 모습을 나타내기에는 적절하다.

③ ‘청천벽력’은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변이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종학이 사회주의에 참여해 피검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윤 직원 영감의 상황을 나타내기에는 적절하다.

④ ‘배은망덕’은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을 뜻하는 말로, 평소 종학을 믿으며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윤 직원 영감의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그의 상황을 나타내기에는 적절하다.

## 07 배경·소재

[A]에서는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진시황의 아들 ‘호해’였다는 고사를 활용해 윤 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종학임을 암시하고 있다. 즉, 윤씨 일가의 가부장인 윤 직원 영감은 ‘진시황’에, 사회주의에 참여해 붙잡힌 종학은 ‘호해’에 해당한다.

## 08 인물·사건 + 배경·소재

반영론적 관점은 시대 현실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이다. ⑤에서는 당시 시대 현실을 바탕으로 작품의 내용을 감상하였으므로,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④ 작품과 독자와의 관계를 중시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효용론적 관점의 예에 해당한다.

② 작품의 내적 요소에 대해 감상하는 관점인 구조론적 관점의 예에 해당한다.

③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삶과 세계관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인 표현론적 관점의 예에 해당한다.

#### 배경지식 + 문학 작품의 감상 방법

|        |         |                                         |
|--------|---------|-----------------------------------------|
| 내재적 관점 | 구조론적 관점 | 내용, 형식, 표현 등 작품 자체의 요소에 대해 감상하는 관점      |
|        | 표현론적 관점 |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일생과 세계관 등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
| 외재적 관점 | 반영론적 관점 | 작품의 창작 배경이 되는 시대 현실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
|        | 효용론적 관점 |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효용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

확인 문제

01 × 02 ○ 03 태평천하 04 장수, 죽음

실력 문제

05 ⑤ 06 ② 07 ⑤

01 (아)의 ‘허긴 그놈이 작년~그런 기미가 좀 뵈긴 했어요!’의 부분을 통해 가족 중 창식은 종학의 사회주의 참여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2 윤 직원 영감이 편지를 써서 종학이 징역을 살게 하겠다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으로 보아, 윤 직원 영감은 종학이 경시청에 잡혀갔다는 사실보다 믿었던 손자가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더 분노하고 있다.

03 ‘……이 태평천하에! 이 태평천하에…….’에서 알 수 있듯이 윤 직원 영감은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여기는 왜곡된 역사 의식을 지닌 인물이다.

04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에서 ‘장수’는 ‘윤 직원 영감’을, ‘죽음’은 ‘윤 직원 영감의 몰락’을, ‘군졸들’은 ‘윤 직원 영감의 가족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수의 죽음’은 ‘윤 직원 영감’과 그 가문의 몰락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05 인물·사건 + 배경·소재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다 잡혀간 종학에게 분노하며 절망하는 윤 직원 영감을 본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불안해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윤 직원 영감은 큰손자인 종수는 군수가 되고 작은손자인 종학은 경찰서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② ㉡을 받은 이후 윤 직원 영감이 종학이 사회주의를 한 것에 분노하는 것으로 보아, ㉡은 종학이 일본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구속됐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③ ㉢으로 인해 사건이 전환되는데, 윤 직원 영감은 ㉢ 이전에는 종학을 집안을 일으킬 인물로 보며 긍정했지만, ㉢ 이후 종학을 집안을 망치는 인물로 평가하며 저주하고 있다.

④ 전보를 통해 종학의 사회주의 운동 참여 사실을 알게 된 윤 직원 영감은 종학에게 분노하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알아두기 ‘전보’의 기능

|        |                                                    |
|--------|----------------------------------------------------|
| 사실의 전달 | 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검거되었음을 알림                          |
| 서사의 전개 | 사건 전개에 극적인 반전을 유도함                                 |
| 인물의 제시 | 작품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종학이 일본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냄 |
| 주제의 암시 | 윤 직원 영감 집안의 몰락을 암시함                                |

#### 06 주제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는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여기는 윤 직원 영감의 왜곡된 역사 의식을 풍자하면서 한 가문의 몰락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당시 부유했던 집안의 몰락을 그려 냈을 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이나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시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과 고난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에서는 일제 강점기라는 식민지 현실을 태평천하로 받아들이며 일제에 순응하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며 살아가는 윤 직원 영감을 통해 식민지 현실에 순응하는 도덕적 타락상을 풍자하고 있다.

③ 일제 강점기라는 식민지 현실에 무관심하며 오로지 가문의 부귀영화를 생각하는 윤 직원 영감의 행태를 통해, 작가는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한 역사적 현실에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윤 직원 영감의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면모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당시 현실에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가치관이 무엇이고, 당시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 07 인물·사건

이 작품에서 윤 직원 영감은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로 받아들이고 있고, 〈보기〉의 ‘나’ 또한 일제 강점기가 백성들을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보아 두 사람 모두 당시의 사회를 질서가 바로잡힌 긍정의 시기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윤 직원 영감이나 〈보기〉의 ‘나’는 모두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현실보다는 자신이 얻게 될 이익이나 행복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② 윤 직원 영감이나 〈보기〉의 ‘나’ 모두 사람들의 인심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③ 윤 직원 영감이나 〈보기〉의 ‘나’ 모두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국가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④ 윤 직원 영감이나 〈보기〉의 ‘나’는 모두 사회주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금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 + 독해 체크

본문 076쪽

- ① 전보 ② 분노 ③ 태평천하 ④ 사회주의 ⑤ 풍자  
⑥ 긍정적 ⑦ 논평 ⑧ 경어체 ⑨ 반어 ⑩ 타락

#### + 어휘 체크

본문 077쪽

- 1 (1) 망연자실 (2) 청천벽력 (3) 면면상고  
2 <가로> ① 왜곡 ④ 화적패  
<세로> ② 곡해 ③ 희화화

# 03

## 달밤 1 \_이태준

**갈래** 단편 소설

**성격** 서정적, 애상적

**주제**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

**특징**

- 세밀하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인물과 사건을 선명하게 제시함
- 주인공의 성격을 보여 주는 여러 가지 일화를 나열하는 구성을 취함
- '달밤'이라는 서정적인 배경을 통해 비극성을 심화시키지 않고 독자에게 여운을 남김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반편    05 신문  
06 배달복, 방울

**실력 문제**

07 ③    08 ③    09 ③

- 01 황수건은 원배달이 되기를 원했지만, 원배달은 물론 보조 배달부의 일마저도 못하게 된다. '나'는 이러한 소식을 (나)에서 황수건 대신 온 신문 배달부를 통해 듣게 된다.
- 02 황수건이 원배달이 되지 못하고 보조 배달마저 떨어져 '나'의 집에 올 길이 없어졌다는 내용은 드러나지만, '나'를 피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03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작품 속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인 황수건의 말과 행동을 관찰한 것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 04 '반편'은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모자라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황수건 대신 온 신문 배달부가 황수건을 '반편'이라고 칭하는 것에서 황수건이 좀 모자라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05 황수건은 신문 보조 배달부로서 우리 집에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찾아왔다.
- 06 황수건은 '나'에게 원배달이 되어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떨렁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하며 기대감에 떠들었다.
- 07 **인물·사건**

㉠은 방울 소리를 듣고 황수건이 왔을 것이라 생각한 '나'의 반가움이 드러난 것이다. 배달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을 안 것은 ㉡ 이후의 일이므로, 황수건 대신 온 배달원에 대한 패essim한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내일부터 원배달일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신이 나서 돌아가는 황수건의 모습에서 기대감과 자랑스러움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원배달이 되어 오겠다고 한 날 그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원배달이 되는 것에 문제가 생겼음을 짐작하게 하면서 그가 원배달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 ④ 황수건을 '반편'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들이 황수건에 대해 보통 사람보다 지능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는 황수건이 보조 배달부 자리마저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의 아박함을 원망하는데, 이는 순박한 황수건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원망이라 볼 수 있다.

### 알아두기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

이 작품이 창작된 1930년대는 일제 강점기로, 당시 우리 민족은 대부분 궁핍한 삶을 살았다. 조선은 실업자와 결인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조선인의 삶과 일본인의 삶은 경제적 격차가 점점 더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수건처럼 모자라고 어리숙한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더 외면당하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 08 서술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인 '나'가 황수건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은 이야기 안의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②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으며, 서술자의 심리나 정서는 드러나지만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이 작품은 황수건에 대한 '나'의 태도나 정서는 드러나지만, 주관적인 논평이나 인물들의 성격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는 황수건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알아두기 1인칭 관찰자 시점과 그 효과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나'가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함



- 독자가 인물의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방지함
- 서술자인 '나'의 태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함

## 09 인물·사건

'나'는 황수건이 원배달은 물론 보조 배달부의 일까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고 빗대어 표현하였을 뿐, 황수건이 실제로 사업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황수건은 원배달이 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를 통해 황수건의 소박하고 순수한 성품이 드러난다.
  - ② 황수건은 원배달이 될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똑똑하지 못하다고 보조 배달부 자리마저 잃게 된다. 그런데 <보기>에서 황수건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비극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였으므로, 황수건이 보조 배달부 자리를 잃은 것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삶의 일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황수건이 보조 배달부 자리마저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섭섭해하고 마음 아파하는데, 이는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⑤ '나'는 황수건이 원배달이 될 기대에 부풀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함께 기대한다. 이는 황수건에 대한 호의와 애정이 드러난 것으로 이를 통해 황수건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읽을 수 있다.

### 03 달밤 2

본문 080~081쪽

확인 문제

01 ○ 02 × 03 우두 04 장사 05 돌멩이

실력 문제

06 ① 07 ③ 08 ④

- 01 삼산학교에 새로 들어온 급사의 근력을 시험하기 위해 큰 돌멩이를 삼산학교 대문에 가져다 놓았다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우두를 넣지 말라는 말을 하는 등에 대해, '나'는 적절한 호응을 하며 황수건의 말에 맞장구를 쳐 주고 있다. 이를 통해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의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02 우두를 맞으면 근력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황수건 자신이 생각해 낸 말이다.
- 03 (마)에서 황수건은 우두를 맞으면 근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나'에게 말해 주기 위해 찾아왔다.
- 04 황수건은 돈만 있다면 소사 노릇을 하지 않고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 05 황수건은 새 급사와 싸워야 할 것 같은데 그의 근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 망설이고 있다가, 이를 시험해 보기 위해 큰 돌멩이 하나를 굴러다 삼산학교 대문에 가져다 놓은 것이다.

### 06 배경·소재

황수건은 삼산학교에서 급사로 일하다가 쫓겨난 후에 자기 대신 들어온 새 급사의 근력이 얼마나 센지 확인해 보기 위해 돌멩이를 삼산학교 대문 앞에 가져다 놓는다.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황수건의 어리석음을 부각한다.

**오답 풀이** ② 황수건이 돌멩이를 가져다 놓은 것은 새로 온 급사의 근력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지만 그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새로 온 급사가 황수건보다 약자인 것도 아니다.

③ 삼산학교 대문에 돌멩이를 가져다 놓은 것은 새로 온 급사의 근력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상대를 이기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황수건의 엉뚱함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치밀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돌멩이를 삼산학교 대문에 가져다 놓고 새 급사의 근력을 확인해 보는 것은 삼산학교에 급사로 다시 들어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돌멩이를 삼산학교 대문에 가져다 놓은 것은 황수건으로, 새 급사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다. 또한 새 급사가 교만과 허세가 있는지는 이 작품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 07 서술

이 작품에서는 '나'와 황수건의 대화를 통해 황수건이 삼산학교의 급사로 다시 들어가려 한다는 것과 엉뚱하고 어리석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황수건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가 황수건에게 질문을 하고 황수건이 이에 대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황수건의 성격이 드러날 뿐이지 사건의 숨겨진 의미가 밝혀지지는 않는다.

② '나'는 황수건의 엉뚱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의 말에 동조하고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가 진행되며 인물 간의 대립이 심화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작품에서는 서술자인 '나'의 심리가 제시되지만, 논평을 통해 현재 사건의 원인이 된 과거의 사건을 밝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두 사람의 대화는 '나'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병렬식 구성을 통해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 08 인물·사건

삼산학교 학생들이 선생들보다 자신을 더 좋아한다는 말을 통해 황수건의 허풍스러운 성격이 드러난다. 따라서 황수건이 삼산학교 학생들의 말에 위로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처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우두를 넣지 말라고 알려 주러 와서 고맙다는 '나'의 말에 황수건은 좋아서 병긱거리며 머리를 긁는다. 고맙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씩씩워하는 모습으로 보아, 황수건의 순박하고 천진난만한 성격을 알 수 있다.

② 삼산학교 급사였다가 밀려난 것으로 보아,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여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우두를 넣으면 사람의 근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황수건 자신의 생각일 뿐이다.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을 사실로 믿는 것으로 보아, 황수건이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나'에게 우두를 넣지 말라고 알려 주려고 일부러 찾아온 것을 보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03 달밤 3

본문 082~08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돈 삼 원 05 담배

06 무안

실력 문제

07 ⑤ 08 ③ 09 ⑤

01 (사)에서 '들으니~것이라 한다.'고 하여 서술자인 '나'가 들은 황수건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02 황수건이 부르는 일본 노래의 가사는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라는 뜻으로, 연속된 좌절과 실패로 인해 삶에 지친 황수건의 모습과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03 이 작품은 달밤이라는 서정적인 배경을 제시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지친 황수건의 삶이 슬프게 느껴지는 하지만 비극성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 주고 독자에게 여운을 주는 역할을 한다. 삶에 지치고 답답해하는 황수건의 모습으로 결말을 맺고 있으므로, 황수건의 현재 처지가 지속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밝은 달빛을 통해 인물의 미래가 변화될 것임을 암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나'는 황수건에게 삼산학교 앞에서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돈 삼 원'을 주었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지 않아도 좋다'고 하였다. 이는 황수건에 대한 '나'의 연민과 애정이 반영된 것이다.

05 황수건은 달빛 아래 처량한 노래를 부르며 담배를 퍽퍽 빨면서 지나가는데, 여기서 '담배'는 황수건의 답답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06 '나'는 달밤에 우연히 황수건을 보고 반가워하면서도, 황수건이 자신을 보면 무안해할 일을 생각해 일부러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고 황수건을 몰래 바라본다.

#### 07 인물·사건

'나'는 황수건이 주고 간 대여섯 송이의 포도를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라고 생각하며 오래 바라보고 아껴 먹는다. 즉,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황수건이 훔쳐 온 포도를 맛보며 그의 순박한 마음씨에 애정을 느끼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황수건에게 '돈 삼 원'을 주지만, 이내 장마가 들어 황수건은 밀천만 까먹게 된다.

② 황수건의 아내가 집을 나간 것은 동서가 못 견디게 곱았기 때문이다.

③ 포도원 주인은 황수건의 뒤를 날새게 따라와 다짜고짜로 그의 먹살을 쥐고 끌고 나가고, 황수건은 새하얗게 질려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간다.

④ '나'는 포도원 주인이 황수건의 먹살을 잡고 끌고 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준다.

#### 08 배경·소재

'참외 세 개' (㉠)와 '포도' (㉡)는 모두 황수건이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가져온 것들이다.

**오답 풀이** ㉠ '돈 삼 원'은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민을 의미한다.

㉡ '노래'는 삶에 지친 황수건의 모습과 심리를 반영한다.

㉢ '담배'는 황수건의 답답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 알아두기 황수건이 겪은 주요 사건들

- 삼산학교 급사 자리에서 쫓겨남
- 뚝뚝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문 원배달이 되지 못하고, 보조 배달부 자리에서도 쫓겨남
- '나'가 준 돈으로 참외 장사를 시작하나,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음
- 동서가 못 살게 곱어 아내가 달아남
-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포도를 훔쳐 오는데, 포도원 주인에게 발각되어 곤욕을 치름

황수건의 연이은 실패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임을 부각함

#### 09 배경·소재

(자)에서 '달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황수건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이완해 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자)와 (보기)는 모두 '달빛'이 비치는 밤을 배경으로 하여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② (자)에서는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달빛이 길을 간 듯하였다.', (보기)에서는 '이지러는 젖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라고 하여 달빛이 비치는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④ (자)에는 삶에 지친 황수건의 슬픈 모습이 나타나는데, 달밤은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이러한 황수건의 슬픈 처지를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인물들이 이동하는 공간에 서정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 인물의 슬픈 처지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 알아두기 '달밤'의 기능

| 황수건의 좌절과 상처 부각 | 서정적이고 애상적인 분위기 조성 | 황수건에 대한 연민의 감정 투영 |
|----------------|-------------------|-------------------|
|----------------|-------------------|-------------------|

슬픔과 비애가 느껴지지만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막아 줌

#### + 독해 체크

본문 084쪽

- ① 못난이 ② 참외 ③ 포도 ④ 욕심 ⑤ 우두
- ⑥ 호기심 ⑦ 간접적 ⑧ 비극성 ⑨ 애정 ⑩ 돌맹이
- ⑪ 노래

#### + 어휘 체크

본문 085쪽

- 1 (1) 달포 (2) 깃 (3) 금실
- 2 <가로> ① 당자 ④ 자력 ⑤ 직각
- <세로> ② 자의적 ③ 군력 ④ 자각

- 갈래** 장편 소설, 관념 소설, 분단 소설  
**성격** 관념적, 철학적, 회고적  
**주제** 분단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바람직한 삶과 사회에 대한 추구  
**특징** • 상징적인 소재와 배경이 사용됨  
 • 남북한의 이념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룸  
 • 주인공이 회상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됨

확인 문제

01 ○ 02 × 03 종기 04 지식인

실력 문제

05 ⑤ 06 ② 07 ③ 08 ①

01 (가)~(나)는 북한 측과 남한 측의 설득자들이 명준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다. (나)에서는 남한 측 설득자의 말에 명준이 '중립국'이라고 대답했을 때 남한 측 장교와 미군이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명준이 실제 겪은 일과 명준이 상상한 일을 병치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명준은 북한 측과 남한 측의 어떠한 설득에도 계속 '중립국'이라는 말만 반복함으로써 양쪽의 설득을 모두 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나)에서 남한 측 설득자는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 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라고 하며 '조국'을 '제 몸'에, '남한 사회의 작은 모순'을 '종기'에 비유하여 당시 남한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04 (나)에서 남한 측 설득자는 과도기적인 남한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언급하고 있다.

## 05 인물·사건

(가)에서 명준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있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존경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북한 측 설득자는 명준에게 참전 용사로서 누구보다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③ 참전 용사는 연금 법령을 통해 제도적·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는 명예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② 중립국도 자본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④ 계속해서 '중립국'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명준이 혹시 북한으로 갔을 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라 판단한 북한 측 설득자는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한다며 명준을 안심시키고 있다.

## 06 인물·사건

북한 측 장교가 명준에게 앉으라고 말하였으나 명준이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길게 이야기하거나 설득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거운 분위기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북한 측 장교는 명준을 회유하기 위해 부드럽게 웃으며 긍정적 인상을 주고자 함을 알 수 있다.

③ 뒤통을 테이블 위로 바짝 내미는 것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행동으로 볼 수 있다.

④ 한 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임을 일깨워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⑤ 적극적으로 명준을 설득하던 장교가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는 것에서 자신의 설득이 실패하자 명준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7 인물·사건

(가)에서 명준은 북한 측 설득자의 어떤 말에도 '중립국'만을 말하며 자신의 결심이 단호함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상대를 설득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북한 측 설득자이며, 명준은 그들의 설득에도 '중립국'만을 말하며 결심이 확고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명준은 북한과 남한의 삶을 모두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므로, 현실에 순응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④ 북한과 남한에 환멸을 느껴 중립국을 선택하는 것으로 세상일에 초월했다기보다는 현실 도피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⑤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인데, 명준의 '중립국' 선택은 이와는 무관하다.

## 08 서술

(가)와 (나)에서는 북한 측과 남한 측의 설득자와 명준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야기 속의 서술자가 상황을 전달하는 것은 '나'가 등장하는 1인칭 시점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위치해 있는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③ '말한다', '한다', '울려다본다' 등 현재형 시제로 서술하고 있다.

④ (가)와 (나)에서는 인물의 내면 심리에 대한 서술보다는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가)와 (나) 사이에 한번 장면의 전환이 나타나 있을 뿐, 잦은 장면 전환이 이루어진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건의 긴장감이 고조되지도 않았다.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마술사  
06 물 07 난파꾼 08 바다

실력 문제

09 ① 10 ③ 11 ④

- 01 (다)의 후반부에 제시된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뚝대가 부러진 셈이다.'는 은혜의 죽음으로 명준의 삶의 희망이 꺾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은혜가 명준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드러낸다.
- 02 명준은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좇던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3 (다)에 나타난 명준의 '웃음'은 남과 북의 선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저항에서 오는 후련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중립국을 선택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조적인 웃음이라 이해할 수 있다.
- 04 명준은 남한과 북한의 현실에 대해 실망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중립국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중립국은 남과 북의 문제점이 해소된 공간이 아니라 도피적인 공간일 뿐이다.
- 05 '미술사'는 미술로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로, 문맥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균중을 속인 남한과 북한의 권력자라고 볼 수 있다.
- 06 '한 잔의 물'은 개인이 경험하는 현실, 즉 사람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 사람을 살 수 있게 하는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07 '난파꾼'은 명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데올로기라는 환상이 허황된 것임을 깨달은 존재를 의미한다.
- 08 '바다'는 남한과 북한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로, 거창하지만 쓸모없고 허황된 것을 의미한다.
- 09 **인물·사건**  
'바다'는 남한과 북한이 주장하는 이상적 이데올로기를 의미하고, '한 잔의 물'은 개인이 경험하는 현실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의 '잘못'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바다)에 집착하여 현실(한 잔의 물)을 망각한 것을 가리킨다.
- 10 **서술**  
(다)~(라)는 명준의 의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명준이 남한과 북한, 6·25 전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악하고 판단한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명준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 꿈의 세계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② 서술자는 명준의 심리를 모두 알고 전달하는 전지적 서술자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 이해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④ (다)~(라)에서는 명준의 심리가 제시되었을 뿐, 특정한 사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명준은 허황된 이념을 좇았던 자신의 과거와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을 통해 명준이 겪는 인식의 변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1 **인물·사건 + 주제**  
㉢은 명준이 중립국행을 선택했음이 제시되어 있다. 명준은

이데올로기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대립적인 이데올로기를 표방한 남한과 북한에서 이데올로기의 허황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명준은 이데올로기의 허상과 대립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의 일상적 삶을 살고자 중립국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명준의 중립국 행이 이념 대립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지식인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은 명준이 중립국 선택을 마치고 명부에 이름을 적고 나선 후에 보인 반응이다. ㉠에서처럼 '마음껏 웃음을 터뜨린' 것에는 이념적 선택을 강요받았던 억압적 상황에 대한 저항에서 오는 명준의 후련한 심정이 담겨 있다.  
② 미술사를 언급한 부분은 '허황하고', '철없는', '잘못', '환상', '마술' 등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여 매우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술사라는 표현 자체가 실제 미술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하며 체제를 유지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체제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은 헛된 이념을 좇는 현실의 모순에 대해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들'에 대해 명준은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⑤ ㉢은 무엇인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 일상적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로 이념적 대립 구도에 갇힌 현실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 04 광장 ③

본문 090~091쪽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유토피아    05 부채  
06 사북    07 바랜 심장

**실력 문제**

- 08 ㉡    09 ㉡    10 ㉣

- 01 (마)에서 '스르르 눈을 감는다.'는 부채를 보던 명준이 과거 회상을 시작하는 행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준이 상념에 빠짐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 02 (바)에서 명준은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명준은 그곳에서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
- 03 (바)의 마지막 문장인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그들의 사랑을.'을 통해 보았을 때, '두 마리 새들'은 은혜와 은혜가 임신하고 있었던 아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명준과 과거 북한에서의 명준을 의미하는 소재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04 (바)에서 '고기 썰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라는 부분은 명준이 북한으로 밀항하던 배 안의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이다. 이를 통해 명준의 월북 이유가 '유토피아의 꿈'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5 (마)에서 명준은 부채를 쭉 펴고 그 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다가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르르 눈을 감으며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한다. 이후 (바)에서 명준은 부채에 자신의 삶이 그려져 있다고 여기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06 (바)에서 '그는 지금, 부채의 사복 자리에 서 있다.'라는 부분은 명준의 과거 회상이 끝나고 현재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삶이 명준을 현재 중립국행 배 위에 있게 하였지만, 현재의 순간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극한적 상황임을 '사복 자리'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07 (바)에서 유토피아의 꿈을 안고 월북한 명준이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북한 사회도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른 사회임을 깨닫게 된 명준이 실망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던 상황을 나타낸다.

#### 08 인물·사건 + 서술

㉠에서는 명준의 조심스러운 행동을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명준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면서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명준이 선장의 뒤를 쫓고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명준이 복도를 거쳐 선장실로 올라가는 행동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지만 상황이 긴박하지는 않다.  
 ④ 복도에서 선장실로의 공간 이동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명준이 선장을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복도에 인기척이 없는 분위기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짧게 제시되었을 뿐, 연속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 09 서술

현재 명준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중립국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배 안에서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던 명준은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기 시작한다. 대학생이었던 명준의 삶, 그 이후 월북한 일과 북한에서의 삶,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은혜와 재회하였던 일 등을 회상하면서 명준의 삶의 광장이 부채꼴의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부채의 사복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명준의 삶의 광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인물의 내면 의식을 제시하면서,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③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1인칭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④ 바다 위의 배가 현재 명준이 있는 공간이다. 회상을 통해 제시된 내용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서술자를

달리하고 있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도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⑤ 과거의 일이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약적 진술로 인물 간의 갈등 해소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10 인물·사건

〈보기〉에서 '부채'의 각 부분은 주인공인 명준의 삶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부채에서 호의 가장자리에 있는 가장 넓은 부분은 남한에서의 대학 시절을, 그 아랫부분은 월북해 은혜와 함께 생활하던 시절을, 또 그 아랫부분은 인민군 장교로 전쟁에 참전해 낙동강 전선에서 은혜를 극적으로 만났던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부채의 가장 좁은 자리, 즉 사복 자리는 명준이 중립국행 배에 탄 상황을 의미한다. 사복 자리는 삶의 광장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좁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준이 느끼는 삶의 위기감이 고조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를 삶의 위기감이 해소되기 시작한 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 간다는 것을 통해 ㉠가 부채의 넓은 테두리 부분으로 표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명준은 대학 신문을 꺼내 들여다보고 그러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이때 명준은 정치를 경멸했다고 하였다.  
 ② ⑥는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로 표상되어 ㉡ 시절보다 삶의 광장이 좁아진 때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명준은 이상향에 대한 꿈을 지녔으며 은혜와의 만남을 하숙집에서 갖고는 했다.  
 ③ ㉢는 ⑥를 표상하는 부분보다 조금 더 부채의 안쪽 부채꼴로, 사복 자리의 바로 위쪽으로 표상되고 있다. 이때 명준은 은혜를 전장에서 만나 동굴에서 은혜와 시간을 보내고는 했다.  
 ⑤ ㉤에서 ⑥를 거쳐 ㉢로 전개된 삶의 과정은 명준의 삶의 광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알아두기 '부채'의 각 부분과 명준의 삶의 과정

| 부채의 각 부분                  | 명준의 삶                            |
|---------------------------|----------------------------------|
| 끝 넓은 테두리                  | 남한에서의 대학 시절                      |
| 안쪽 좀 더 좁은 너비              | 월북 이후의 삶                         |
| 안쪽 부채꼴                    | 전쟁 중 은혜와의 재회                     |
| 사복 자리                     | 중립국행 배를 탄 상황                     |
| 부채의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그라들고 있음 | 명준의 현재 처지가 더 이상 갈 곳 없는 극한 상황에 있음 |

#### 04 광장 4

본문 092~09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명준 04 큰 새, 꼬마 새

심력 문제

05 ② 06 ⑤ 07 ② 08 ①

01 (사)에서 명준은 '큰 새와 꼬마 새'가 은혜와 태어나지 못한 은혜의 아이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이전에는 명준이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총으로 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에는 새들에 대한 명준의 인식의 전환이 나타난다.

02 (아)에서 명준이 바다로 투신했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선장에게 석방자 한 사람의 행방불명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03 (사)의 마지막 문장인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에서 거울 속의 남자는 명준 자신으로, 활짝 웃는 이유는 은혜와 은혜의 아이가 마음껏 날고 있는 광장에 몸을 던질 것을 결심한 후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이다.

04 (사)의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잇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라는 부분을 통해 명준은 바다에서 본 '큰 새와 꼬마 새'를 은혜와 자신의 딸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5 인물·사건

막바지까지 몰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뒤로 돌아선 명준은 '푸른 광장'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은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무엇인가를 대안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오답 풀이** ①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고민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현실적인 상황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극한적인 상황임은 맞지만, 명준이 위축된 마음 상태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④ 명준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함을 깨닫고 더 이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⑤ 명준이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 심리적인 갈등을 하고 있지는 않다.

#### 06 배경·소재

명준은 남북한 모두에서 회의를 느껴 제3국을 향해 가고 있으므로 잃어버린 것의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명준은 이전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푸른 광장'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푸른 광장'은 명준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벗어난 곳으로, 이념이 배제되고 사랑과 자유라는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바람직한 공간인 광장을 명준은 남한과 북한에서 찾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만다.

④ '푸른 광장'은 은혜와 자신의 딸을 표상하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광장으로, 명준이 투신함으로써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 07 인물·사건

명준의 죽음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허상, 남북한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은혜와 이루지 못한 사랑의 성취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무관심은 명준의 죽음과는 무관하다.

#### 08 주제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광장은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밀실은 개인의 자유가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명준이 바라는 이상 사회, 즉 '활발한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삶'이 있는 사회는 광장과 밀실이 조화를 이룬 사회이다. 따라서 명준이 광장과 밀실 이외의 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보기〉의 '타락과 방종에 가까운 개인의 자유만 있는 밀실', '개인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밀실'을 참고할 때, '밀실'은 자유로운 개인적 삶이 있는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보기〉의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광장', '모든 사회적 결정이 공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강요되는 광장'을 참고할 때, '광장'은 공동체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통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보기〉의 '명준은 활발한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상 사회를 꿈꾸었다'는 내용을 통해 명준은 광장과 밀실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곳을 바란직한 삶의 공간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⑤ 북한은 광장만 있고 밀실은 없는데, 여기서 광장도 '모든 사회적 결정이 공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강요되는 광장'으로 진정한 의미의 광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남한은 밀실만 있고 광장은 없는데, 여기서 밀실도 '타락과 방종에 가까운 개인의 자유만 있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밀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명준은 북한과 남한 사회 모두 진정한 의미의 광장과 밀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알아두기 '광장'과 '밀실'의 의미



#### + 독해 체크

본문 094쪽

- ① 중립국    ② 바다    ③ 자유    ④ 이념    ⑤ 부채  
⑥ 새

#### + 어휘 체크

본문 095쪽

- 1 (1) 포로 (2) 경멸 (3) 참전 (4) 낚새  
2 광장 - 장소 - 소재 - 재채기 - 기자 - 자조

# 05

## 아름결례의 구두로 남은 사내 ① \_윤홍길

- 갈래** 중편 소설, 세태 소설  
**성격** 사실적, 현실 비판적  
**주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고달픈 삶  
**특징** •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드러냄  
 •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도시민의 삶에 대해 연민 어린 시각을 드러냄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수술비 05 내적

실력 문제

06 ① 07 ⑤ 08 ②

- 01 이 작품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을 허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 쓴 소설이다. 서술자가 '나'이긴 하지만 허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썼다고 할 수 없다.
- 02 (가)의 '뜻밖에도 권 씨가 나를 찾아왔다'를 통해 두 사람이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03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권 씨가 철거민의 입주권을 샀지만 당국의 부당한 조치로 좌절을 겪고, 생존권 투쟁에 휘말려 전과자가 되었으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막일을 하며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로 보아 이런 권씨가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나'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 04 (가)의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어나 모두 위험하대요.'를 통해 권 씨가 '나'에게 돈을 빌리려는 이유가 출산 직전인 아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05 (나)에서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권 씨에게 '십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빌려줄 경우에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과 집안에서 경제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 씨에게 돈을 빌려줄지 말지를 고민하는, 내적 갈등 상황이 나타나 있다.
- 06 인물·사건  
 '나'는 초등학교 교사이지만 셋방살이를 하다가 어렵게 집을 장만하였고, 아직 집을 살 때 진 빚을 절반도 갚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다.

**오답 풀이** ② 앞부분 줄거리 중,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된 권 씨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막일을 하며 궁핍하게 산다.'를 통해 권 씨가 막일을 하며 어렵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의 '뒤늦게나마 오 선생 말씀대로 했기 망정이지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를 통해 출산을 앞둔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려는 '나'의 권유에 따라 권 씨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 '나'는 '십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받고 갈등을 하며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 ⑤ (가)의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어나 모두 위험하대요.'를 통해 출산 직전인 권 씨의 아내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07 인물·사건

㉔은 '나'가 집안에서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권 씨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아내가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나'가 그런 아내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㉔은 '나'를 찾아와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는 상황에서도 구두를 반짝이게 유지하는 권 씨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반짝이는 구두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권 씨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㉔에는 권 씨가 아내의 수술비로 쓸 돈인 '십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빌리러 '나'를 찾아왔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③ ㉔은 비록 아내의 위급한 수술비를 빌려 달라고 하는 구차한 상황이지만, 비굴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권 씨의 심리를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④ ㉔에서는 태아가 탯줄을 목에 감고 있어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 모두 위험한 상황이지만, 수술비가 없어 권 씨의 아내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 드러나 있다.

### 08 주제

〈보기〉에서 제시한 '광주 대단지 사건'은 권 씨가 집 장만을 위해 철거민의 입주권을 샀다가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에 대한 생존권 투쟁에 휘말려 전과자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의 배경이 된다. 이 작품에서는 〈보기〉의 사건 이후 궁핍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권 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과 당시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이주민의 생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도시화 정책으로 인해 실업 상태에 빠지고 투쟁 위원회의 생존권 투쟁에 참여하였다가 많은 주민이 구속되었다고 하였는데, 작품 속 권 씨 또한 이러한 삶을 산 인물이다. 정부의 대책 없는 도시화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전과자로서 전락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피해자들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에서 정부는 이주민의 생업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자급자족 도시를 키우겠다는 계획을 진행시켜 권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권 씨와 같이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민의 고달픈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정부의 무계획적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주민들이 투쟁 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는 사람들의 의지적인 모습

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작품에서는 권 씨와 같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궁핍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으므로 의지적인 삶의 모습을 알리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없다.

⑤ 권 씨는 투쟁 위원회의 생존권 투쟁에 휘말려 전과자가 되어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된 후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막일을 하며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 씨가 처한 상황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노력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리려는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

#### 알아두기 이 작품의 갈등 양상

|            |                                                                   |
|------------|-------------------------------------------------------------------|
| 내적 갈등      | 권 씨가 아내의 출산 문제로 돈을 빌리러 왔을 때, 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 '나'가 겪은 갈등      |
| 인물과 사회의 갈등 | 권 씨가 투쟁 위원회의 생존권 투쟁에 휘말려 전과자가 되고, 사회 빈민층으로 전락해 가는 과정에서 겪는 사회와의 갈등 |

### 05 아홉 결례의 구두로 남은 사내 ②

본문 098~099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강도 05 호의적

심력 문제

06 ① 07 ② 08 ③ 09 ④ 10 ⑤

01 '나'의 집에 침입한 강도는 '나'가 무척 모자라다고 생각할 만큼 강도 행각에 어설플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 어렵다.

02 (라)의 '터지려는 웃음을 꼭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런 행각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어설플 행동을 보이는 강도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그를 도와 주려 하고 있다.

03 '나'는 강도가 권 씨임을 알아차리고, 그가 상처 입지 않도록 우호적인 말과 도와주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

04 '나'가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해 준 사실을 모르는 권 씨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

05 착한 성품을 지닌 강도의 어설플 행동을 본 '나'는 도리어 그를 도와주려 하는 등 강도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06 인물·사건

이 작품에서 '나'는 강도를 보자마자 그의 정체를 눈치챈 것이 아니라, 들고 있는 식칼이 덜덜 떨리는 모습이나 구두를 벗고 들어온 모습 등 강도의 어설플 행동을 보면서 그가 권 씨임을 짐작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다)의 강도에게서 '술 냄새가 확 풍겼고 강도가 '뜬에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돋웠을 텐데도'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강도가 술의 힘을 빌려 용기를 내어 강도 짓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다)의 '먹을 겨는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를 통해 강도가 자신의 행동에 겁을 먹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라)에서 '나'는 강도에게 돈이 있는 위치를 알려 주는 등 그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편안히 이루고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⑤ '나'는 일어나라는 강도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면서도 강도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야만 손쉽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리어 충고하고 있다.

### 07 인물·사건

'나'의 먹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슬은 '나'에게 위협이 되는 요인이므로 '나'의 집에 침입한 강도가 강도 짓에 서툰 무척 모자란 강도라고 판단하는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 돈을 뺏기 위해 타인의 집에 침입한 일반적인 강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설플 행동들로, '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를 초보 강도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 08 서술

이 작품은 이야기 속 등장인물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집을 공간적 배경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배경 묘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배경 묘사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② (다)와 (라)까지 '나'의 집에 침입한 강도가 어설플 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서술자의 시각에 따라 서술되고 있을 뿐, 잦은 장면 전환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라)의 앞부분은 짧은 문장이 자주 사용되었으나, 이 작품은 '—었다'의 과거형 시제가 주로 사용되었다.

⑤ '나'와 강도의 소소한 신경전을 엿볼 수 있지만, 강도에 대한 '나'의 태도를 고려할 때, 중심인물 간의 첨예한 대립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며 극도의 긴장감 역시 느껴지지 않는다.

### 09 인물·사건 + 어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의 집에 침입한 강도가 집주인을 억박질러야 하는데, [A]에서는 집주인인 '나'가 도리어 강도에게 신경질을 부리며 충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표현하기에는 '주인과 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경중·선후·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뀜을 이르는 말'인 '주객전도'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귀를 뜻한다.

②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있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③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비열하게 다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0 인물·사건 + 서술

권 씨는 술의 기운을 빌려 강도 행각을 벌이고는 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권 씨의 지나친 떨림으로 인해 '나'가 상처를 입게 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권 씨가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한 것임에도 신발을 벗고 들어오거나 아이의 칭얼거림에 놀라 엎드려 아이를 다독이거나 식칼을 이부자리에 떨어뜨리는 행동은 강도로서는 매우 어설피고 어리숙한 면모를 드러내는 것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행동에 해당한다.

④ 강도가 될 수 없는 착한 천성을 지닌 권 씨가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도가 되어야 하는 상황을 통해 권 씨의 처지에 대한 연민을 유발한다.

05 아홉 결례의 구두로 남은 사내 ③

본문 100~101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피치 못할 사정 05 자존심

심력 문제

06 ④ 07 ① 08 ⑤

01 '나'가 권 씨가 떨어뜨린 칼을 되돌려 주자 권 씨가 다시 '나'의 먹을 겨누었지만, '나'는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되는 줄 간파하고 칼을 되돌려 준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02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맘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강도 행각을 벌이는 권 씨의 '피치 못할 사정'을 이해하면서 그가 목적을 달성하고 편안하게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

03 '나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권 씨의 자존심을 지켜 주기 위해 강도에게 대문의 위치를 알려 주고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가 권 씨라는 사실을 모른 척하며 그의 강도 행각을 덮어 주고 싶어 한다.

04 권 씨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강도 행각)의 이유를 '피치 못할 사정', 즉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한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둘러대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05 권 씨는 '나'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음을 깨닫고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로 '나'가 묻지도 않은 학력을 밝히고 있다.

06 인물·사건

이 작품에서 강도의 정체가 권 씨임을 확신한 '나'는 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의 자존심을 지켜 주려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 씨는 '나'의 배려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는 하지만, '나'가 의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나'는 강도의 정체가 권 씨라고 확신하며 그의 사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② '개수작 매 그 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를 통해 권 씨는 '나'가 아내의 수술비를 대신 내준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에서 권 씨는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나'를 보고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당황하고 있다.

⑤ '도둑맞은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에서 알 수 있듯이, 권 씨는 '나'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의 살림살이를 지적하고 있다.

07 인물·사건 + 서술

이 작품에서 '나'는 아내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강도 행각을 벌이는 권 씨를 안타깝게 여기며 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권 씨의 행동을 조롱하거나 비꼬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② 권 씨는 피치 못할 사정(아내의 수술비 마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도 짓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③ '나'에게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기 위해 찾아갔다가 거절당한 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권 씨는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라고 말하며 사람에게 대해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나'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권 씨의 자존심을 지켜 주기 위해 강도에게 대문의 위치를 알려 주고 있다. 이는 강도가 권 씨라는 것을 모른 척하려는 '나'의 배려이지만 권 씨의 자존심을 자극하게 된다.

⑤ '나'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음을 깨닫고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권 씨는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나'가 묻지도 않은 학력을 밝히고 있다.

08 인물·사건 + 배경·소재 + 서술

권 씨는 '나'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여 분개하고 있다. '나'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는지?'라고 한 말은 권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나'가 수술비를 대신 내준 사실을 우회적으로 밝히려 한 것인데, 권 씨가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사람에게 대한 불신과 현실에 대한 깊은 좌절감만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로, 서술자인 '나'의 시선에서 관찰한 권 씨(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② (마)에는 '방 → 대청마루 → 현관 → 마당 → 대문'으로의 공간 이동에 따른 사건 전개 과정이 나타난다.

- ③ (마)의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밤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에서 공간적 배경인 '우리 집', 즉 '나'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권 씨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했다가 '나'에게 정체가 탄로 나자 급히 '나'의 집을 나가게 된다.

## 05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④

본문 102~10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대우 05 구두

실력 문제

06 ④ 07 ① 08 ④ 09 ④

- 01 '나'는 의도와 달리 서툰 배려로 권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자신의 방법이 졸렬했음을 확인하며 자책하고 있다.
- 02 (사)를 보면 권 씨가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마지막이란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식들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나'의 추측으로, '나'가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막은 것에 화가 나서 권 씨가 가출한 것은 아니다. 권 씨는 '나'에게 정체를 들키게 되면서 자존심이 상해 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03 (아)의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곤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은 몇 점 도구들이 전부였다.'를 통해 권 씨의 세간살이는 이사 온 후에도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04 (사)로 보아 '나'가 강도가 권 씨인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강도로 대우한 이유는 권 씨가 술이 깬 후 자신을 뒤흔들고 보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병원으로 가서 아내와 태어난 아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 05 이 작품에서 권 씨가 구두를 꿩이 나게 닦는 이유는 가난으로 상처 입은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두'는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주인공 권 씨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알아두기 '구두'의 의미

#### 열 켄레의 구두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자신은 지식인이라는 권 씨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상징함

#### 아홉 켄레의 구두

권 씨의 가출을 상징하며, 마지막 자존심마저 잃게 된 권 씨의 처지를 드러냄

## 06 인물·사건

권 씨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였지

만, '나'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분개하며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나'에게 강도 행각이 들뜬 권 씨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가 행방불명된 권 씨가 쉽게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는 그의 행방불명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므로 권 씨가 연행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나'는 아내에게조차 권 씨의 강도 행각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권 씨가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권 씨가 아내에게 미안했다면 강도 행각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돈을 마련하려 했을 것인데, 그러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7 인물·사건

'나'는 자신의 서툰 배려로 권 씨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귀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권 씨가 '나'를 뒤흔들게 대할 수 있게 '나'는 그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였다.
- ③ '나'가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자신의 소시민적 이기심을 후회하는 내용은 결말 부분이 아니라 권 씨가 강도로 변장해 '나'의 집을 침입하기 전인 '위기' 부분의 내용이다. ①에서는 '나'의 의도와 달리 어설픈 배려로 권 씨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을 자책하고 있다.
- ④ '나'는 권 씨가 행방불명된 이후, 그가 강도로 침입한 날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 ⑤ '나'는 강도의 서툰 행동을 보고 그가 권 씨임을 확인하고 그에게 연민을 느끼며 그를 도와주려 했다.

## 08 배경·소재

①은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암울한 삶을 살아가던 권 씨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권 씨의 문간방에 세간은 몇 점밖에 없고, 권 씨의 구두만 정갈하고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권 씨가 가족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기보다는 권 씨의 마지막 자존심을 상징하는 구두에 더 애정을 쏟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서술자는 구두의 손질 정도에 따라 권 씨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③ 반짝반짝 닦아 놓은 구두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권 씨에게 마지막 자존심이지만, 그의 가난한 삶과는 대비된다.
- ⑤ 권 씨는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져 있을 때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이 울려져 있었을 것'이며, 이와 같이 권 씨는 현실에서 겪는 좌절을 반짝거리는 구두를 통해 심리적으로나마 보상받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9 인물·사건 + 배경·소재 + 서술 + 주제

이 작품은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이루어진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④는 엮어 읽기를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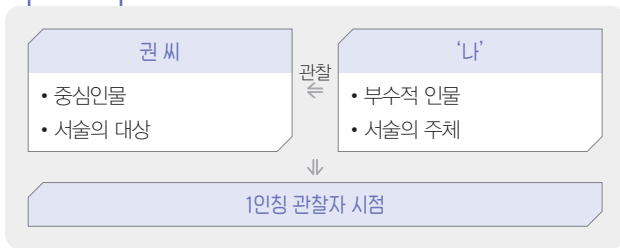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권 씨가 행방불명된 이후 그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한 채 이야기를 끝맺는 열린 결말 처리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여운을 주고 있다.

② 이 작품은 '구두'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③ 이 작품에서는 관찰자의 입장에 있는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인 권 씨의 삶을 연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서술하고 있다.

⑤ 이 작품의 주인공인 권 씨는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로, 그의 삶의 이력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고달픈 삶'이라는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면서 1970년대 우리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알아두기 이 작품의 시점



#### + 독해 체크

본문 104쪽

- ① 수술비 ② 강도 ③ 행방불명 ④ 주인공 ⑤ 자존심  
⑥ 서술자 ⑦ 연민 ⑧ 구두 ⑨ 소외

#### + 어휘 체크

본문 105쪽

- 1 (1) ㉞ (2) ㉟ (3) ㊸  
2 (1) 망정 (2) 일환 (3) 세간

## 06

### 도요새에 관한 영상 1 \_ 김원일

본문 106~107쪽

**갈래** 현대 소설, 환경 소설

**성격** 사실적, 현실 비판적

**주제** 산업화로 인해 생긴 환경 문제에 대한 비판과 순수한 인간성 회복의 의지

**특징** • 제1장(병식), 제2장(병국), 제3장(아버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제4장은 전지적 서술자 시점으로 서술함  
• 산업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환경 문제와 분단 문제를 동시에 다룸  
•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와 주제를 드러냄

확인 문제

01 ○ 02 ○ 03 자유 04 자연, 기계

심력 문제

05 ② 06 ④ 07 ④ 08 ①

**01** (가)는 '나'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사용되었고, 서술자 '나'는 병국이다. (나) 또한 서술자인 병국이 도요새의 입장에서 자신의 내면 의식을 반영하여 서술하고 있다.

**02** (나)는 도요새의 입장에서 인간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도요새를 가리키며 이는 서술자인 병국의 내면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03** (나)의 도요새의 입장에서 서술된 부분인 '우리의 여행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도정이다.'에는 병국의 내면 의식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서술자인 병국이 도요새의 긴 여정을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도정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04** (나)는 도요새의 입장에서 제시된 것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이 '사악하고 간사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권력욕에 차 있어,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고 '기계와 조직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05** 서술

(가),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병국)는 개펄에서 새 떼를 만난 경험과 인간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③ 서술자인 병국은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 낸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어리석은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⑤ 전지적 서술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배경지식 +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 '나'의 입장에서 사건을 관찰하고 서술하기 때문에 주인공의 심리가 잘 드러나며, 독자가 등장인물인 주인공에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가 바라보는 사건을 독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인공의 주관적인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 06 주제

(나)는 도요새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형식의 우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파괴시키며 기계와 조직의 노예가 되는 인간 세상을 비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도요새들 간의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바다와 하늘이 맞물려 있는 무궁 천지에 길을 열어' 봄가를 두 차례의 대이동을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동하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없으며,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부각한 부분도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인간이 자연환경을 파괴한다고는 하였지만, 도요새가 희생당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도요새의 이동 경로가 단계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으며, 인간과 공존하는 도요새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

## 배경지식 + 우화적

'우화적'이란 말하려는 바를 동물이나 식물 등의 세계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되며, 이를 통해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낸다.

## 07 인물·사건

㉔에서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내 사고의 굳게 닫힌 문을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실의에 빠져 있던 '나'의 사고가 도요새로 인해 깨어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나'가 고향으로 돌아와 희망 없이 사는 모습을 '생존의 늪을 허우적거릴 때'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나'의 머릿속이 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수백 마리로 떼를 이루어 의식의 공간을 무한대로 휘저었다.'라는 역동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도요새와의 만남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나'의 염원을 임에 대한 구도자적 갈망을 노래한 만해의 시(「만해의 님」)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 ⑤ '나'가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를 도요새의 관점에 빗대어 도요새가 말을 하는 형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8 배경·소재

도요새는 닫혀 있던 '나'의 의식을 일깨우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 세상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존재이다.

- 오답 풀이**
- ② '나'의 태도에서 자신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도요새에 의해 '나'의 의식이 살아나고 '나'가 도요새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으므로, 도요새를 인물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④ '나'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물과 환경의 갈등이므로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 ⑤ '나'는 도요새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으므로, 도요새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알아두기 '도요새'의 상징적 의미

| 병국                                      | 도요새                                                                                                       |
|-----------------------------------------|-----------------------------------------------------------------------------------------------------------|
| 좌절된 현실적 제약에서<br>자유롭고자 하는 의지<br>(정신적 자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국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 주는 존재</li> <li>• 인간적인 삶과 자유 같은 절대적 가치</li> </ul> |

## 06 도요새에 관한 명상 2

본문 108~109쪽

확인 문제

01 ×    02 ○    03 공장, 폐수    04 석교천  
05 자연수

실력 문제

06 ④    07 ⑤    08 ⑤

01 (다)~(마)는 1인칭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02 (마)에는 공업 단지가 들어서기 이전의 맑고 깨끗했던 과거 석교천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03 (다)에 공장 지대에서 흘러내린 폐수로 인해 동진강의 수질이 크게 오염되고 말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04 (다)의 마지막 부분에 석교천이 동진강의 지류로 수질 오염도가 아주 높다는 내용이 드러나며, (라)에 수질 오염으로 죽어 버린 석교천 물이 악마의 혼이 되어 동진강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05 (라)에서 '나'는 '기필코 석교천은 물론 동진강까지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06 서술

(다)~(마)는 '나'가 석교천 아래 냇물을 시험관에 담고 그 주변을 돌아보며 떠올리는 생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가 석교천 주변을 돌아보며 동진강의 오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비슷한 내용을 가진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석교천 주변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만을 보여 주고 있을 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현재의 오염된 석교천의 모습과 과거의 깨끗했던 석교천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이야기와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교차하고 있지는 않다.

⑤ 과거 깨끗했던 석교천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한 것은 아니다.

## 07 인물·사건

(라)의 ‘지구의 절반을 한 해에 두 번씩이나 건너다니는 그 작은 도요새의 고통보다는 그 일이 내게 결코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다.’에서 ‘그 일’은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일이다. 즉 ‘나’는 자유를 향한 도요새의 고통스러운 여정보다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것이 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다)의 ‘나는 여름 내내 도요새의 이런 재잘거림을 꿈을 통해, 또는 환청으로 들어 왔다.’를 통해 ‘나’는 여름 내내 도요새를 생각하며 도요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음을 알 수 있다.

② (라)의 ‘석교천 물은 이미 죽어 버렸다.’를 통해 석교천 물의 오염이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이 폐유가 결국 동진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가.’를 통해 폐유로 인해 오염이 심각한 석교천이 동진강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라)의 “두고 보라. 내가 기필코 석교천은 물론 동진강까지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고 말 테니.”라는 말에서 석교천과 동진강의 현재 상태를 60년대 시절의 자연수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는 ‘나’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난다.

④ (라)의 ‘또 석교천 주민 중 십 년이나 이십 년 뒤 육가크롬화로 알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 현재의 오염 상태가 지속되면 시간이 흐른 뒤에 공해병을 앓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예상함을 알 수 있다.

### 알아두기 병국의 처지와 태도 및 성격

- 서울의 대학에 다니던 수재이지만 학생 운동을 하다가 퇴학을 당하고 고향으로 내려 옴
- 환경 오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함
- 도요새를 자유의 상징으로 생각하며 지키려 함



현실보다 이상을 추구하며 행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물

## 08 주제

(마)의 맑은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와 처녀들’의 모습은 수질이 오염되기 이전, 즉 맑고 깨끗했던 과거 석교천의 평화로운 풍경이다. 즉 이는 경제 개발과 산업 근대화로 인해 우리의 삶이 황폐화되기 이전의 모습이다.

**오답 풀이** ① (다)를 통해 가을이 되어도 도요새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동진강의 오염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② (라)의 ‘석교천 물은 이미 죽어 버렸다.’는 것은 폐유로 인한 오염이 심각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보기>와 관련지어 볼 때, 이는 산업화로 인해 황폐화된 환경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마)를 보면 정부가 동남만 일대를 대단위 중화학 공업 단지로 고시했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이를 <보기>의 설명과 관련지어 볼 때, 동남만 일대는 경제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신흥 공업 단지임을 알 수 있다.

④ <보기>를 참고할 때, (마)의 ‘군청 소재지조차 못 되었던 동진읍이 일약 시로 승격’된 것은 경제 개발과 산업 근대화로 인해 외형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룬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06 도요새에 관한 영상 3

본문 110~111쪽

확인 문제

01 × 02 × 03 독살 04 술집 05 도요새

실력 문제

06 ⑤ 07 ② 08 ⑤

01 (바), (사)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도요새를 둘러싼 병국과 병식의 갈등을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2 (사)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병식의 말을 보면, ‘족제비란 친구를 따라 심심풀이로 같이 다녔’던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따라서 새 밀렵과 관련된 일에 가담한 자신의 행동이 형을 위 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병국은 병식이 새들을 독살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 하여 그 일을 시킨 사람을 대라고 다그치고 있다.

04 병국과 병식은 도요새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술 집에서 몸싸움까지 벌이며 갈등하고 있다.

05 병국은 도요새를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병식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은 갈등하고 있다.

### 06 서술

(바), (사)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병국과 병식의 말과 행동을 통해 도요새를 둘러싼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주모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병국과 병식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② 병국과 병식의 말과 행동을 통해 두 사람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평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을 뿐, 서술자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작품 전체로 볼 때 (바), (사)에서 시점의 전환이 나타나지만, (바), (사)에서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07 인물·사건

㉠은 병식이 형과의 다툼을 피하려고 일부러 화제를 돌리려 하는 것이므로, 형의 동정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병식은 새를 독살한 것이 벌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것이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병식은 ‘인간이 새로운 새를 창조해 낼 순 없’기 때문에 새를 보호

해야 한다는 병국의 생각을 ‘개떡 같은 이론’이라고 말하며 무시하고 있다. 즉 병국의 생각이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생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참새구이도 없애’고, ‘닭도 진화를 도와 하늘로 해방시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다.

④ 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병국의 감정이 격해져서 동생의 역사를 틀어쥐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병국은 격하게 다투어도 동생 병식에게 집에 꼭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형으로서 동생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알아두기 병식의 성격

도요새를 밀렵해서 박제사에게 팔면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음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즐거움만을 생각함

이기적  
타산적  
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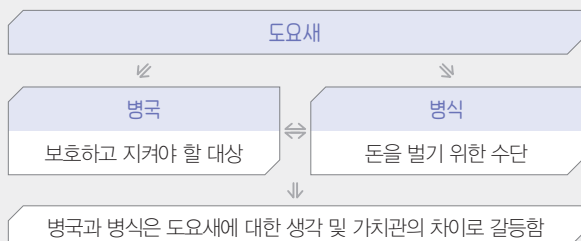
#### 08 인물·사건

병국은 도요새를 밀렵하는 사람들을 돕는 병식을 형으로서 호되게 질책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병식이 도요새를 독살하는 일에 가담하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지,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게 될까 봐 염려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병국과 병식이 갈등하는 이유는 도요새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이다. 병국은 도요새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병식은 돈벌이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갈등이 자연 보호라는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사)에서 병식은 병국이 학생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던 일을 언급하며 냉소적인 태도로 비아냥거리고 있다.

#### 알아두기 ‘도요새’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 06 도요새에 관한 영상 ④

본문 112~11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실력 문제

04 ② 05 ⑤ 06 ③ 07 ⑤

01 (아), (자)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병국)의 심리를 모두 파악하여 전달하는, 전지적 서술자 시점으로 서술되었다.

02 (아)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자유로운 삶의 터를 찾아 고통의 길고 긴 도정 중에 나는 그렇게 낙오되는 도요새가 아닐까’라는 말을 통해 병국이 낙오되는 도요새와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병국은 버스에 올라타 눈을 감고 잠을 자듯 늘어져 도요새의 무리가 등장하는 꿈을 꾸고 있다. 꿈에서 도요새 무리는 자유를 찾아 날다가 암흑천지의 밤에 등대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낮에는 매나 사냥꾼에게 쫓기고 오염된 폐수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먹이로 인해 피해를 보기도 한다. 따라서 병국의 꿈에는 자유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는 여정 속에서 도요새가 겪는 피해의 모습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04 서술

(아)에는 버스에 탄 병국이 꾸는 꿈이 제시되어 있다. 이때 병국이 꿈이라는 환상적 상황에서 바라본 도요새의 모습을 통해 병국의 내면 심리가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아)에서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병국의 행동과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아)의 마지막 부분에 병국이 1인칭 서술자가 되어 이야기하는 부분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병국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등장인물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등장인물과 자연물이 대화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아)의 서술자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와 병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연물이 서술자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병국의 행동과 생각을 전달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배경지식 문학 작품 속 ‘꿈’의 여러 가지 기능

문학 작품에서 ‘꿈’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 꿈을 통해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던 소망을 이루기도 하고, 현실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도 한다. 반면 현실의 상황이 꿈속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거나, 꿈에서 깨어난 후에 현실은 그 이전과 변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게 되기도 한다.

#### 05 배경·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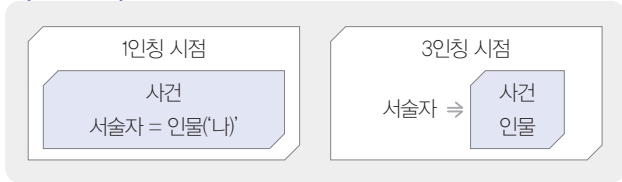
이 작품에서 도요새는 이상과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존재로, 병국은 이를 매개로 현실의 좌절을 극복하고 자유로움을 찾아 날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보기>와 같은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데, ㉠에서 병국은 도요새가 나오는 꿈을 꾸면서 낙오된 새에 동일시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따라서 ‘버스’는 병국이 꿈을 통해 자신의 현재 처지를 되돌아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06 서술

<보기>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병국(그)의 심리를 서술해 주는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고, ㉡는 병국(나)이 자신의 내면을 직접 드러내는 1인칭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로 고치면 인물의 심리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 오답 풀이** ① ㉔에서 서술자가 병국으로 바뀌고 있을 뿐, 병국의 내적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 ② ㉔에서 서술자가 병국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없다.
- ④ ㉔에서는 병국으로 서술자만 바뀔 뿐, 더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되지는 않는다.
- ⑤ <보기>와 ㉔ 모두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㉔에서 병국의 심리가 보다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알아두기**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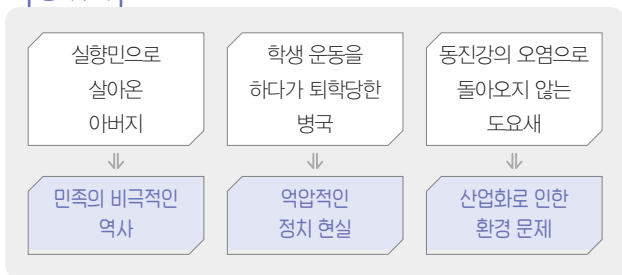


**07 배경·소재**

㉔ ‘자유로운 삶의 터’는 병국이 지향하는 공간이므로, 환경 오염이 없고 정치적으로도 사상과 비판의 자유가 허용되는 공간을 상징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풍요롭게 살아가는 산업화 사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㉔ ‘낙오된 새’는 병국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학생 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쫓겨난 병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㉔ ‘몇십 마리의 새’는 등대 벽에 머리를 박고 떨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㉔ ‘매 한 마리’는 ‘도요새’를 포획하는 존재로서 폭력적인 힘을 상징하므로,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정치적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㉔ ‘오염된 폐수’는 공장 지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므로 중화학 공업 위주의 산업화로 인해 생긴 환경 오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알아두기** 작품 전체에 반영된 현실



**+ 독해 체크**

본문 114쪽

- ① 환경    ② 도요새    ③ 양심    ④ 오염    ⑤ 주인공  
⑥ 병국    ⑦ 자유    ⑧ 산업화

**+ 어휘 체크**

본문 115쪽

- 1 (1) ㉔ (2) ㉔ (3) ㉔  
2 (1) 도래 (2) 치부 (3) 고시

본문 116~117쪽

**07**

**유자소전 ①** \_이문구

- 갈래** 단편 소설, 세태 소설  
**성격** 전기적, 해학적, 풍자적, 비판적  
**주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  
**특징** • ‘전(傳)’이라는 일대기 형식을 취함  
 • 희극적 상황을 설정하여 사건을 전개함  
 • 사투리를 사용하여 생생한 느낌을 주고 토속적인 정서를 유발함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전  
06 사투리

**실력 문제**

- 07 ④    08 ⑤    09 ③

- 01 이 작품은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인 유자(유재필)를 관찰하여 서술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자와 관련된 여러 일화(유자와 총수의 이야기 등)를 삽화 형식으로 제시할 때에는 전지적 서술자 시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 02 (나)에 성품이 곧고 죽대와 주견이 뚜렷한 유재필의 인물됨이 서술되어 있다.
- 03 이 작품은 비단잉어 사건을 통해 총수의 허영과 사치를 비꼬며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할 말을 다 하는 유자의 죽대와 주견 있는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04 이 작품에서 비싼 비단잉어를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는 사람은 유자가 아니라 총수이다.
- 05 이 작품은 유자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 행적 그리고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서사 문학의 전통 양식인 전(傳)의 형식을 차용한 것이다.
- 06 이 작품은 지역 사투리를 사용하여 토속적인 정감과 사실성을 부여하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풍자의 대상을 더욱 우스꽝스럽게 보이도록 하고 있다.

**07 인물·사건**

‘나’는 유자의 친구이자, 이 작품의 서술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라)에서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나의 월급으로 계산을 해 보니’라고 하였으므로 ‘나’는 총수의 직원인 아님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총수’는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로, (라)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는 사회 고위층의 인물임을 추측할 수 있다.
- ② (나)에서 유자가 ‘심성이 밝고’, ‘생각이 깊고 침착하’다고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의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썩밭에서 우뚝하였다.’는

곧은 성품과 뚜렷한 주건을 지닌 유자의 삶을 드러낸 것으로,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는 유자에 대해 예찬적인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

⑤ (가)에서 유자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솜기로 또래에서 별종 맞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 08 서술

‘뱀어낸벤또(베토벤)라나 웨라나를~차에코폴구쉬어(차이콥스키)라나 웨라나’에서 언어유희를 사용하고, ‘판따라’, ‘꼬랑지’라는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해학성을 유발하면서 총수의 허영과 사치를 비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내적 독백이 나타나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라)에서 외양의 묘사를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고, 유자가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총수의 허영과 사치를 풍자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다.  
 ③ (라)는 유자가 비단잉어 사건을 '나'에게 전해 주고 있는 부분으로,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라)에는 '나'와 유자의 대화가 제시되고 있을 뿐, 간접 인용을 활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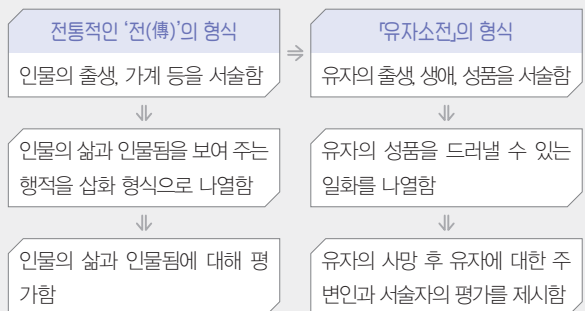
## 09 주제

〈보기〉에서 과거에는 '전(傳)'이 위인들의 일대기를 다루어 역사적인 기록으로서의 가치에 중점을 두었다면, 오늘날에는 인물의 생애와 성품에 대한 일대기적 기록과 평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인물의 일대기적 기록과 평가가 제시된다고 하였다. (가)의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예사 허름승이는 아니었다.'에서 작가를 대변하는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유자에 대한 평가를 덧붙이고 있다.  
 ②, ⑤ 〈보기〉에서 전(傳)은 인물의 독특한 행적을 기록하였다는 것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총수의 비단잉어와 관련된 일화를 제시하여 쯔대와 주건이 뚜렷한 유자의 예사롭지 않은 성품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오늘날 전(傳)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인물의 생애와 성품에 대한 일대기적 기록과 평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였으므로, 작가는 유자의 삶을 통해 독자에게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알아두기 전(傳)의 형식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학의 한 갈래인 '전(傳)'은 어떤 사람의 독특한 행적을 중심으로 그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여기에 교훈적인 내용이나 비판을 덧붙인 글이다. 「유자소전」은 이러한 전통적인 '전(傳)'의 형식을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계승하고 있다.



## 07 유자소전 2

본문 118~119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혐의자 05 비단잉어

실력 문제

06 ② 07 ① 08 ⑤ 09 ④

01 (바)에서 죽은 비단잉어로 매운탕을 끓여 먹은 것에 매우 화가 난 총수가 '아는 문자는 다 동원하여 호통을 쳤으면 하나 혈압을 생각하여 참는 눈치'라고 한 부분과 '우악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랫것들하고 따따부따해 봤자 공연히 위신이나 흠이 가고 득 될 것이 없다'고 한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02 (마)에서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를 통해 유자는 비단잉어가 죽은 진짜 이유가 시멘트의 독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03 (바)에서는 총수와 유자의 대화가 제시되는데, 이때 비단잉어로 매운탕을 끓여 먹은 일은 '나'와 유자의 대화 이전의 상황이므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거의 일을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등장인물(유자와 총수)의 대화를 통해서 제시하기도 하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기도 한다.

04 (마)에서 유자는 총수가 자신을 비단잉어를 죽인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에 비위가 상하여 의문을 떨었다.

05 총수가 비단잉어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유자나 직원들에게는 매우 화를 내며 독종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보다 물고기를 더 우선시하는 총수의 위선과 비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 06 서술

이 작품에서 빠른 장면 전환이 이루어진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다급하고 긴박한 분위기도 느낄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유자와 총수의 대화를 중심으로 비단잉어와 관련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③ 지역 사투리를 사용하여 희극적 상황을 부각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이야기에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④, ⑤ 사람보다 값비싼 비단잉어에 더 가치를 두는 위선적인 총수와 강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은 다 함으로써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표현하는 인물인 유자를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7 인물·사건

'한 마리가 황소 너댓 마리 값이나 나'가는 비단잉어를 관상용으로 키우는 총수의 모습에서 부와 사치를 과시하는 허영에 찬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총수가 비단잉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작은 생명체도 아끼고 소중히 다루는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비단잉어의 몸값이 매우 비쌌기 때문이다. 작은 생명체도 아끼는 마음을 가졌다면 유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물인정한 태도를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③, ⑤ 총수는 비단잉어로 매운탕을 끓여 먹은 유자를 관용을 베풀어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약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랫것들하고 따따부따해 봤자 공연히 위신이나 흠이 가고 득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총수는 사회 고위층에 해당하는 인물이지만, 그에 맞는 기품을 지닌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알아두기 총수의 행동에 드러난 인물됨

##### 총수의 행동

- 값비싼 비단잉어를 사고 연못을 만들며 비단잉어에 공들임
- 비단잉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유자에게 화풀이를 함
- 죽은 비단잉어로 매운탕을 끓여 먹은 직원들을 독종이라며 화를 냄



-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허영심과 사치심이 강한 인물임
- 사람보다 비단잉어를 중시하며 사람을 소홀히 대하는 위선적이고 비인간적인 인물임

#### 08 인물·사건 + 서술

(마)의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부러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에서 비단잉어가 죽은 진짜 이유를 유자는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9 인물·사건

화가 난 총수에게 유자는 변명을 하지 않고, 의문스러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㉔도 유자의 의문스러운 태도가 드러난 말로, 이를 통해 유자의 주대 있는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유자는 의문을 떨며 비단잉어를 애지중지하는 총수의 태도를 비꼬고 있다.

② 유자가 자신을 비꼬고 있음을 알아차린 총수는 유자에게 화를 내며 말하고 있다.

③ 비단잉어로 매운탕을 끓여 먹었다는 유자의 말에 매우 화가 난 총수가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⑤ 비단잉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고이 묻어 주지 않고 매운탕으로 끓여 술안주로 먹은 유자를 독종으로 취급하는 총수의 말을 통해 사람보다 비단잉어를 더 중시하는, 위선적이고 비인간적인 총수의 면모가 드러난다.

#### 07 유자소전 ③

본문 120~121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파리똥 05 제주도

심력 문제

06 ② 07 ③ 08 ③

01 (아)에서 총수는 각근하고 신실한 불교 신자라고 하였으며, 자택에도 불당을 두는 모습 등에서 총수가 독실한 불교 신자임을 알 수 있다.

02 (자)를 보면 유자가 불단에 올릴 정화수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총수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유자가 불상에 묻은 파리똥을 침으로 지우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03 총수는 유자의 잘못을 눈감아 주지 않고 '너 오늘부터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며 호통을 치고 있다.

04 (자)에서 유자가 마른행주에 침을 뱉어서 불상에 묻은 파리똥을 지우려던 순간, '소리 없이 나타나서 청소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총수에게 들켜서 유자는 쫓겨나게 된다.

05 정화수를 제주도까지 가서 공수해 오는 일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일로, 이를 통해 정화수를 올리는 사람의 정성을 물질로 대신하고자 하는 총수의 허영과 사치를 엿볼 수 있다.

#### 06 인물·사건

제주도에서 정화수로 쓸 약수를 공수해 오는 것은 총수의 허영과 사치를 드러내는 행동으로, 정성스럽게 정화수를 올리는 모습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정화수를 아침마다 갈아 올리는 일도 유자가 하는 것이지 총수가 직접 하는 일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불당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총수의 모습은 본질보다 형식을 중시하는 총수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총수 부인이 정화수를 자신의 식구들만 나누어 마시려고 하는 것에서 제 식구의 안녕만을 도모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엿볼 수 있다.

④ 유자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총수의 행동은 자비로운 불교 신자와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총수의 면모를 드러낸다.

⑤ 유자가 총수의 '회사'가 아닌 총수의 '집'에서 쫓겨난 것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굽어살피심'이라고 한 것은 유자가 원하는 대로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떠나게 된 상황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대조되는 총수의 속 좁고 인색한 성격을 부각한 표현이다.

#### 07 인물·사건

㉔ 뒤의 문장을 보면 유자는 총수가 보잘것없는 위선자로 비치기 시작하자, 총수를 모셔 온 날들이 치욕스럽고 자신의 신세가 구차스럽게 느껴진다고 하고 있다.

#### 08 인물·사건 + 서술

'금강역사의 눈'은 험악한 모습을 한 총수의 모습으로, 총수는 '금강역사'의 눈을 하고 화를 내며 유자를 물인정하게 내쫓고 있다. 이러한 총수의 모습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데, 이러한 대조를 통해 총수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면모를 효과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불상의 손등에 묻은 파리똥은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로, 불상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지만, 불상이나 총수 또는 유자 등의 어떤 대상에도 연민의 정서를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② 총수가 소리 없이 나타난 것은 참배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으로, 유자를 믿지 못해 감시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④ 유자가 '마른행주에 침을 뱉어서' 불상에 묻은 '파리똥을 지우려고' 한 것은 총수의 참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단의 정화수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⑤ '내 회사'가 아닌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총수의 집에서 쫓겨난 것일 뿐이며 여전히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계속된다. 즉 총수의 명령은 유자가 원하는 대로 총수를 모시는 운전기사를 그만두고 다른 자리로 옮겨 가는 계기가 된다. 여기서 총수의 명령은 자비가 없는 인색한 총수의 면모를 풍자하는 것으로, 회사와 집을 혼동하는 총수의 모순적 태도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 배경지식 + 풍자와 해학

풍자와 해학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나 인물의 희화화 등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방법인데 풍자가 비판이나 조롱의 성격이 강하다면, 해학은 웃음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풍자가 현실이나 인물의 부정적인 면을 비웃으며 폭로·비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해학은 대상에 대해 악의 없는 웃음을 유발하거나 호감·연민을 느끼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07 유자조건 4

본문 122~12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유자 05 사투리  
06 만연체

실력 문제

07 ⑤ 08 ③ 09 ③

- 01 (차)의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을 통해 알 수 있다.
- 02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유자는 운수 회사의 노선 상무로 좌천되어 그곳에서 사고 처리를 하는 일을 맡게 된다. 그리고 (차)~(타)의 내용으로 볼 때, 유자가 맡은 업무는 회사의 동료 운전수들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 03 (카)에서 유자는 사정이 딱한 스페어 운전수들에게 자신의 용돈을 털어 쌀이나 밀가루, 연탄 등을 들여놓아 주고 그 집을 나오면,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고 하였다.
- 04 이 작품에서 유자는 자신의 용돈을 털어 사정이 딱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에서 인정이 많고 사람의 도리를 실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05 이 작품의 인물들이 하는 말에 지역 사투리가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토속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며 이야기에 사실성, 현장감을 높이는 효과를 준다.

06 (차)에서는 호흡이 긴 만연체의 문장을 사용하여 유자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스페어 운전수의 집을 찾아간 상황과 거기서 느끼는 괴로운 심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07 인물·사건

(차)에서 유자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본다고 하였다.

**요약 풀이** ① (차)에서 유자는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어 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② (차)에서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③ (타)에서 노파는 쌀이나 연탄을 들여 줄 때 회사에서 으레 돌봐 주는 것이거나 하였다가 반찬거리까지 챙겨 주는 유자의 자상함에 눈시울을 적신다고 한 데서 유자의 진정한 인간미에 감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카)에서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레가 가지 않아 유자가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된다고 하였다.

### 08 어휘

㉔의 '팔다'는 '돈을 주고 곡식을 사다.'의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팔다'는 '값을 받고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기거나 노력 따위를 제공하다.'라는 뜻이지만, 쌀, 보리, 콩 등의 곡식류의 경우 '팔다'가 반대의 의미로 쓰인다.

### 09 주제

(차)~(타)에서 유자는 사고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동료 운전수라 하여 봐 주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 없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지만, 스페어 운전수의 집이 가난하면 자신의 용돈을 털어서 진정으로 도와줄 줄 아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요약 풀이** ① 이 작품에서 낙살 좋고 입담 좋은 유자의 언행을 통해 골계미를 느낄 수는 있지만,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은 아니다.

② 이 작품은 산업화 과정에서 하층민이 겪는 소외와 갈등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④ 이 작품에서 총수가 허영과 사치에 젖은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가산을 탕진한 것은 아니며 (차)~(타)에 제시된 내용도 아니다.

⑤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소시민)들의 생활상은 제시되어 있지만, 유자가 이들을 돕는 인간미 넘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무관심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한다고 볼 수 없다.

### + 독해 체크

본문 124쪽

- ① 유자 ② 비단잉어 ③ 인간미 ④ 위선적 ⑤ 총수  
⑥ 비판 ⑦ 사투리 ⑧ 일대기

### + 어휘 체크

본문 125쪽

- 1 (1) 좇대 (2) 위신 (3) 독종  
2 총기 - 기사 - 사단 - 단위 - 위선자 - 자택

**갈래** 고전 소설, 애정 소설, 액자 소설

**성격** 비극적, 비판적

**주제** 신분을 초월한 비극적인 사랑,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

**특징**

- 궁녀들의 억압된 삶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남
- 고전 소설의 보편적인 주제인 권선징악에서 벗어나 자유연애 사상을 보여 줌
- 액자식 구성으로 외부 이야기는 전지적 서술자 시점, 내부 이야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운영 05 편지

실력 문제

06 ④ 07 ⑤ 08 ③ 09 ②

**01** 안평 대군이 술자리에 모인 손님들에게 김 진사가 지은 시를 내보이는데, 모인 사람들이 김 진사를 한번 만나 보고 싶어 하자 안평 대군이 진사를 수성궁으로 초청한다.

**02** 이 작품에서 내부 이야기인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은 ‘수성궁’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그런데 유영이 등장하는 외부 이야기는 ‘수성궁 옛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이 펼쳐진 시기와 유영이 수성궁 옛터를 찾은 시기는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시기의 두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유영이 수성궁 옛터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고, 깨어나 김 진사와 운영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된다. 따라서 운영과 김 진사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

**04** (가)와 (나)는 내부 이야기로, 서술자인 운영이 유영에게 ‘-비니다’, ‘-습니다’, ‘-군요’ 등 상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말투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05** 운영과 김 진사는 벽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데, 운영은 벽에 구멍을 뚫어 김 진사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한다.

**06 인물·사건**  
대군은 이전과 달리 수척해진 김 진사의 모습을 보고, 위로하며 굴원의 고사를 인용하여 그 이유를 묻고 있다. 따라서 언짢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궁에 온 김 진사를 보고 ‘예전의 기상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운영은 이전에도 김 진사를 만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대군이 술자리에 모인 손님들에게 김 진사가 지은 시 두 편을 내보였더니 모인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마지않았다는 내용을 통

해 김 진사가 뛰어난 글솜씨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김 진사는 자신이 병이 들어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 대군에게 말하였다. (나)에서 김 진사가 운영의 편지를 읽고 ‘그리워하는 정이 지난날보다 곱절이 되어 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는 내용을 보아, 김 진사의 병은 운영에 대한 그리움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제가 벽에 구멍을 뚫고 엿보니 진사 역시 제 뜻을 알고 모퉁이를 향해 앉아 있더군요.’라는 내용을 통해, 운영은 자신과 김 진사의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 07 인물·사건 + 서술

(가)와 (나)는 내부 이야기로, 1인칭 서술자인 운영의 경험과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은 운영의 편지를 보고 난 김 진사의 심리를 서술한 것으로, 이는 운영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김 진사에게 들은 것이다.

### 배경지식 +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제약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이야기 내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것을 서술한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건은 전달할 수 없으므로,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나 전해 들은 이야기를 요약해 제시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 08 서술

(가)와 (나)는 ⑥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운영과 김 진사가 겪은 과거의 일이다. ④는 죽은 운영과 김 진사가 유영 앞에 나타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므로, 시간상 현재인 ④의 일이 과거인 ⑥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 이야기로 ⑥에 해당한다.

② 이 작품은 선비 유영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외부 이야기),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내부 이야기)를 다 듣고 다시 잠들었다가 깨어나는(외부 이야기)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④ ⑥의 김 진사와 운영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는 ④의 유영으로, 유영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깨어나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⑤ ③의 공간적 배경은 안평 대군의 궁궐인 수성궁 옛터이고 ⑥은 과거의 수성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알아두기 이 작품의 구조

이 작품은 유영이 수성궁 옛터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다시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구조로 전개된다. 이때 유영이 수성궁에 가서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외부 이야기이고, 그들에게 듣게 되는 사랑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에 해당한다.

#### 외부 이야기

유영이 수성궁 옛터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나  
죽은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남

#### 내부 이야기

운영과 김 진사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

## 09 배경·소재

〈보기〉의 설명에는 공녀들의 억압된 삶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공녀인 운영 역시 자신의 신분 때문에 김 진사에 대한 사랑을 자유롭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성궁'은 공녀로서의 사회적 제약이 나타나는 억압적인 공간을 상징한다.

**오답 풀이** ① 수성궁은 공녀들이 억압된 삶을 사는 공간이므로 제한된 삶에서 벗어난 이상적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 작품에서는 공녀라는 제한된 신분으로 인해 물래 사랑을 전하는 공녀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따라서 수성궁은 중세적 질서라는 시대의 모순에 대해 인물이 갈등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수성궁은 실제적인 공간이므로, 인물의 내면 공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④ 수성궁은 공녀라는 신분으로 인해 억압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수성궁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수성궁이 공녀로서의 비극적인 삶을 보여 주는 것은 맞지만, 모든 개인이 가진 능력을 전혀 펼칠 수 없는 공간인 것은 아니다. 김 진사가 시를 짓는 능력이 뛰어나 초청을 받는 것으로 보아 개인의 능력이 발휘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 공녀들은 시를 짓는 솜씨가 뛰어난 인물들로, 자신의 문학적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다만 공녀들이 대군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들이어서 억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제약이 따를 뿐이다.

### 알아두기 '수성궁'의 상징적 의미

수성궁은 절대 권력을 지닌 안평 대군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이곳의 공녀들은 안평 대군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도 이루어질 수 없는데, 결국 수성궁은 공녀인 운영을 억압하는 사회적인 제약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08 운영전 2

본문 128~129쪽

확인 문제

01 ○ 02 × 03 자란 04 편지

실력 문제

05 ② 06 ③ 07 ①

01 (다)~(마)에서 1인칭 서술자인 운영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인물들과의 대화와 자신의 심리를 제시하며 사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운영이 김 진사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무녀에게 부탁하려고 하지만 무녀가 끝내 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로 보아, 운영은 대화 장면을 통한 구체적 제시와 요약적 제시를 적절히 사용하여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옥녀는 처음 서궁에 도착했을 때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만족감을 느끼고 그 마음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김 진사에게 편지를 전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운영에게 자란은 중추에 궁 밖으로 나갈 수 있으므로 그때 무녀를 찾아가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04 운영은 자란의 말을 듣고 가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이는 가을이 되면 궁 밖으로 나갈 기회가 생기고 이때 무녀를 찾아가 김 진사에게 편지를 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 05 인물·사건

'비취가 어디서 그 말을 엿듣고는 짐짓 모른 채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라는 구절을 통해, 비취는 이미 운영의 상황과 처지를 모두 눈치채고 있으면서 운영을 걱정하는 척하며 은근히 떠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비취의 말은 조롱하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으나, 운영의 말은 통명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③ 비취의 말이 겉으로는 운영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 어린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비취의 말은 운영을 걱정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운영의 처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운영이 진사와 사랑하고 있음을 말해 주기를 바라며 던진 말이다.

⑤ 비취가 진실을 말할 것을 추궁하고 있지는 않으며, 운영도 사실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

### 배경지식 + 서궁의 공녀 '자란, 은섬, 옥녀, 비취'

운영과 함께 서궁으로 간 공녀들은 운영과 김 진사가 사랑하는 사이임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다. 그뿐만 아니라 안평 대군이 사실을 알고 처벌을 하려 할 때에도 운영의 입장에서 변호를 해 주거나, 함께 책임을 지고 죽겠다고 끼여 나서는 등 운영의 입장에 공감하고 운영을 함께하고자 한다.

## 06 어휘

서궁으로 옮긴 운영이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간혀 지내는 삶에 대한 답답함과 쓸쓸함을 토로하자, 다른 공녀들도 이에 공감하며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다. 따라서 ㉠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 성어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인 '동병상련'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각골난망(刻骨難忘)'은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이다.

② '노심초사(勞心焦思)'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뜻하는 말이다.

④ '절치부심(切齒腐心)'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을 뜻하는 말이다.

⑤ '좌불안석(坐不安席)'은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 07 주제

〈보기〉를 통해 '장신궁'은 반첩여가 쓸쓸하게 늙어 간 곳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서궁이 아름다운 곳이라도 자신들

은 간혀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결국 쓸쓸하게 늙어 갈 수밖에 없다는 탄식을 드러낸 말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서궁의 경치가 아름다워 독서당으로 적당하다는 옥녀의 말에, 운영은 자신들은 도를 닦는 사람도 아닌데 간혀 있으므로 서궁은 쓸쓸한 '장신궁'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한탄하는 의도이지, 서궁이 독서를 하는 곳도 도를 닦는 곳도 아니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 ③ 운영은 서궁이 독서당이 되려면 도를 닦아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중에 갇힌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다.
- ④ 운영은 깊은 궁중에 갇혀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다. 따라서 궁이 진정한 이상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⑤ 운영은 깊은 궁중에 갇혀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장신궁'에 빗대어 탄식하고 있을 뿐, 대군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알아두기 '궁'에 대한 운영의 생각

| 장신궁                          | 서궁                              |
|------------------------------|---------------------------------|
| 반첩여가 성제의 관심에서 밀려나 쓸쓸히 늙어 간 곳 | 외부와 단절되어 사랑의 마음조차 억압당한 채 살아가는 곳 |

## 08 운영전 3

본문 130~131쪽

확인 문제

01 ○ 02 × 03 강도 04 맹인

심력 문제

05 ② 06 ① 07 ②

- 01** 특이 재물을 강도에게 다 빼앗겼다고 하자 김 진사는 부모님이 알까 두려워 특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보냈다. 이를 통해 볼 때, 김 진사의 부모는 김 진사와 운영의 관계를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2** 김 진사는 특의 집에서 금비녀 한 쌍과 거울을 발견하고 이를 장물로 삼아 관가에 고발하려 했으나, 자신과 운영 사이의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 고발하지 못했다.
- 03** 특은 운영이 맡긴 재물을 가로채기 위해 옷을 찢고 스스로를 때린 다음 김 진사에게 가서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거짓 말하였다.
- 04** 특은 자신의 죄를 알고 달아나면 길한지를 물어보기 위해 맹인을 찾아가는데, 이곳에 가서 한 거짓말이 궁중으로 들어가 대군에게 알려져 운영은 결국 자결을 한다.

#### 05 인물·사건

김 진사가 기절한 특에게 약을 먹여 주는 것은 특이 죽으면 재물을 묻은 곳을 알 수 없게 될까 봐 걱정됐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① 특은 김 진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운영의 재물을 가로채기 위해 일부러 강도당한 척을 한다. 이때 강도를 당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자신의 옷을 찢고 코를 스스로 때려 피를 온몸에 흠뻑 발랐다.
- ③ 김 진사는 뒤늦게야 특이 한 일을 알고 노비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불시에 특의 집을 포위하고 수색을 한다.
- ④ 맹인의 옆에 있던 맹인의 이웃은 특의 거짓말을 듣는데, 이때 들었던 거짓말들이 전파되어 궁중으로 들어가 대군에게 알려지게 된다.
- ⑤ 특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을 죽이려는 주인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길하겠냐고 물어보기 위해 맹인을 찾아가다. 즉 특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방법이 적절한지를 묻기 위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 06 인물·사건

[A]와 [B]는 모두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특이 꾸며낸 말이다. 따라서 직접 경험한 일을 실제보다 과장한 내용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② [B]에서 특은 '우리 주인은 본래 염치가 없어서'라고 김 진사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지만, [A]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 ③ [A]에서 특은 '이 보물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이런 위험에 처했겠습니까?'라며 김 진사를 원망하고 있지만, [B]에서는 상대방인 맹인을 원망하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A]와 [B]에서 특이 한 거짓말로 인해 운영과 김 진사는 재물을 잃게 되고, 결국 대군에게까지 이 말들이 들어가 결국 운영이 자결을 하게 된다. 따라서 [A]와 [B]를 통해 특이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⑤ [A]는 특이 운영의 재물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한 거짓말이고, [B]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거짓말이다.

#### 알아두기 '특'의 인물형과 역할

|                                     |
|-------------------------------------|
| 운영의 재물을 가로채기 위한 탐욕 때문에 김 진사를 배신함    |
| ↓                                   |
| 안평 대군에게 궁궐의 담을 넘은 도둑 이야기가 알려짐       |
| ↓                                   |
| <b>역할</b> 김 진사와 운영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됨 |

## 07 주제

운영의 죽음은 이성에 대한 순수한 사랑마저 감추어야 하는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야 하는 궁녀의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갖는다.

- 오답 풀이** ① 운영은 김 진사와 진실한 사랑을 하지만 이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자결한 것이므로, 운영의 죽음이 영원한 사랑에 대한 욕망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운영은 김 진사와의 금지된 사랑을 대군에게 들킬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실을 털어놓고 자결한다. 따라서 운영의 죽음이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미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억압적 현실로 인해 김 진사와의 사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결하는 것이므로, 운영의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운영의 죽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마저 제한하는 현실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지만, 죽음을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알아두기 '운영'의 죽음이 갖는 의미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보다 감추어야 하는 유교 사회의 부조리와 궁녀의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



인간의 본성과 진정한 자아 추구

### 08 운영전 4

본문 132~13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실력 문제

05 ④ 06 ① 07 ⑤

01 (카)에서는 잠에서 깨어난 후 운영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02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은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는데, 이 작품은 내부 이야기인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도 비극적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외부 이야기의 운영 역시 허망하게 종적을 감춤으로써 비극성을 강화하고 있다.

03 김 진사와 운영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부하고 천상 세계로 돌아가는 중에 옛날 놀던 곳을 찾아온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 자주 수성궁을 방문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4 김 진사는 운영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주며 영원히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05 **서술** '산새 소리'는 운영이 잠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로, ㉠의 사실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과는 연관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에 해당하는 (카)에서는 이야기 밖에 있는 전지적 서술자가 운영의 행적과 심리를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은 운영이 김 진사와 운영을 만나는 내용으로 (아)~(차)에 해당하는데, 이는 주로 대화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③ (아)에서 운영이 이야기를 마치고 김 진사에게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의 이야기는 운영과 김 진사가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아)에서 김 진사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차)에서 기록한 원고를 운영에게 주고 있다.

#### 알아두기 외화와 내화의 시점

##### 외화(전지적 서술자 시점)

전지적 서술자가 운영과 운영, 김 진사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함

##### 내화(1인칭 주인공 시점)

운영과 김 진사가 각각의 시점에서 이야기함

### 06 인물·사건

[A]와 [B]는 모두 변함없는 자연과 유한한 인간사를 대조하여 폐허로 변해 버린 수성궁에서 느끼는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B]의 '천년만년 우리 사랑 꿈마다 찾아오네.'를 통해 과거의 사랑을 떠올리는 내용은 드러나지만, [A]와 [B] 모두 이루지 못한 사랑의 슬픔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A]와 [B]에 봄의 아름다운 풍경이 묘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유한한 인간사로 인한 무상감을 강조한 것이다.

④, ⑤ [A]와 [B] 모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다.

#### 배경지식 + 삽입 시의 역할

소설에 시를 삽입하면 인물들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서술 방식을 바꾸어 줌으로써 산문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다.

### 07 인물·사건 + 배경·소재

염라대왕이 죄 없음을 불쌍히 여겨 김 진사와 운영을 다시 인간에 태어나게 하려 했지만 두 사람이 거부했는데, 이는 인간의 낙보다 천상의 낙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 진사와 운영이 천상 세계에서 지은 죄로 인한 징벌은 이미 다 끝난 후이다.

**오답 풀이** ① 김 진사와 운영이 인간 세계로 쫓겨난 것은 옥황상제의 명으로 반도를 많이 따 왔는데 그것을 운영과 함께 먹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도를 먹는 것은 '금기의 위반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② <보기>를 보면 주인공이 천상 세계에서 지은 죄의 벌로 지상 세계에서 여러 고난을 겪는다고 했다. 따라서 김 진사와 운영이 인간의 괴로움을 겪는 것은 천상 세계에서 지은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다.

③ 김 진사와 운영이 죽어서 삼청궁으로 올라간 것은 다시 천상 세계로 돌아간 것으로, 이는 지상 세계에서 지은 징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④ 김 진사와 운영이 천상 세계에서 반도를 먹은 죄로 인해 지상 세계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적강 모티프'가 나타난 것이다.

#### + 독해 체크

본문 134쪽

① 편지 ② 특 ③ 책 ④ 궁녀 ⑤ 글솜씨 ⑥ 액자식  
⑦ 일인칭 주인공 ⑧ 비극 ⑨ 저항

#### + 어휘 체크

본문 135쪽

1 (1) ㉠ (2) ㉡ (3) ㉢  
2 (1) 소행 (2) 누설 (3) 외람

## 09

## 허생전 1 \_박지원

**갈래** 고전 소설, 한문 소설, 풍자 소설**성격** 풍자적, 비판적, 현실 개혁적**주제** 무능한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과 현실 개혁 촉구

**특징**

-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상황이 잘 드러남
-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달리 미완의 결말 구조로 끝 맺음
- 냉소적으로 현실을 풍자하며 작가의 실학사상과 가치관이 반영됨

확인 문제

01 ×   02 ○   03 과거   04 도둑질

실력 문제

05 ②   06 ③   07 ③   08 ③

01 (나)에서 허생이 본래 십 년 동안 책을 읽으려고 계획하였으나 이제 칠 년이 지났다고 하였으므로, 십 년 동안 글공부에 전념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발단 부분에서는 먹고사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글공부만 하는 허생과 생계를 책임져 온 아내 사이의 외적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03 (나)에서 허생의 아내는 허생에게 과거도 보지 않으면서 책을 읽어 무엇에 쓰려고 하나고 말한다. 따라서 허생의 아내가 생각하는 학문의 목적은 과거에 합격하여 출세의 방편으로 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4 (나)에서 공장 노릇도 못 한다고 하고 장사치 노릇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허생에게 아내는 도둑질이라도 못 하나고 말을 한다. 이 말은 남편을 믿고 오랜 세월을 참아온 허생의 아내가 허생이 끝내 실생활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폭발하여 내뱉은 말이라 할 수 있다.

## 05 서술

영웅 소설은 인물의 비범한 출생에서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지만, 이 작품은 허생의 활약상만을 담고 있어 영웅 소설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이 작품은 매점매석이 가능했던 조선 후기의 허약한 경제 구조와 명분만을 중요시하며 허례허식에 빠져 있던 무능한 양반 계층으로 인해 도탄에 빠진 서민들의 생활상 등 당대의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④ 이 작품은 이용후생(利用厚生)에 입각하여 상공업 발전을 중시하는 실학적 관점에서 현실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⑤ 이 작품은 전지적 서술자 시점으로 서술되었다.

## 06 어휘

허생의 아내는 생활력 없는 무능한 양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훌륭하고 점잖은 사람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속담인 '수염이 석 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가 (나)에서 허생의 아내가 말할 수 있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당사자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시킬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서당에서 삼 년 동안 살면서 매일 글 읽는 소리를 듣다 보면 개조차도 글 읽는 소리를 내게 된다는 뜻으로, 어떤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문에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들은 안 찢다'는 아무리 궁하거나 다급한 경우라도 체면을 깎는 짓은 하지 아니한다는 말이다.

⑤ '내 배 부르면 종의 밥 짓지 말라 한다'는 자기만 만족하면 남의 곤란함을 모르고 돌보아 주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07 인물·사건

허생의 아내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요구하는 인물이다. 이와 같은 요구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 사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의 아내는 글만 읽고 경제적으로는 무능한 허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는 공리공론만 일삼고 실용성이 없는 학문에 매달리는 당시 양반들의 무능한 모습을 강하게 비판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②, ④ 허생은 집이 가난하여 근근이 먹고사는 상황인데도 생계를 돌보지 않고 책만 읽으며 학문적 성취만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당시 양반의 경제적인 무능함을 엿볼 수 있다.

⑤ (나)에 나타난 대화를 통해 학문만을 중시하는 허생과 실제적인 현실 문제를 중시하는 아내의 갈등을 살펴볼 수 있다.

## 08 인물·사건

㉠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 역시 물질적으로 가난한 현실을 서러워하고 있을 뿐이다. 둘 다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의 아내와 <보기>의 흥부의 아내는 모두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② (나)에서 허생의 아내는 밤낮으로 책만 읽는 허생을 원망하고 있다. 하지만 <보기>에서 흥부의 아내는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 남편에 대해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에서 허생의 아내는 허생에게 장사라도 하라고 말하며, 가난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보기>에서 흥부의 아내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며 가난한 현실에 대해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허생의 아내는 일하지 않고 책만 읽는 허생을 탓하고 있고, <보기>의 흥부의 아내는 가난한 상황을 탓하고 있다.

## 09 허생전 2

본문 138~139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빈 선 05 화근

실력 문제

06 ④ 07 ③ 08 ④ 09 ③

- 01 이 작품에서 허생은 재물에 대해 이중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빈민 구제와 이용후생을 위해서는 재물을 긍정적 가치라고 여기지만, 재물이 어찌 도를 살찌우겠냐고 말하는 것에서 재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 02 이 작품이 창작되었던 조선 사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백성들의 경제적 생활 기반이 붕괴된 상황이었다. 게다가 관리들의 수탈이 극심하여 최소한의 생계마저 꾸릴 수 없었던 백성들은 도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허생이 이 도적들을 모두 데려가 국가 안이 안정되는 상황은 치안을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의 무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 03 (라)에서는 허생이 도적들을 데리고 빈 섬으로 가서 생활하는 모습이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 04 허생은 빈 섬에 도적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 사회 건설을 시도한다.
- 05 (마)에서 허생은 섬을 떠나면서 글을 아는 자들을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며 “이 섬에서 화근을 없애야지.”라고 말한다. 여기서 이론이나 논의만을 일삼는 당시의 지식인 계층을 화근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6 인물·사건

허생은 빈 섬을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시험의 공간으로 삼았다. 허생은 나라의 도적들을 모두 섬에 데려가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으로 자급자족하며 해외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등의 시험을 실행한다. 그러나 남녀평등과 관련된 시험은 하지 않는다.

#### 알아두기 조그만 시험

|                     |                    |
|---------------------|--------------------|
| 치안 문제 해결            | 도적들을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감 |
|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         | 빈 섬에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함 |
| 해외 무역 시도            | 남은 곡식을 일본의 장기도에 팔  |
| ↓                   |                    |
| 빈 섬에서 이상 사회 건설을 시도함 |                    |

### 07 인물·사건 + 배경·소재

허생은 빈 섬에서 백성들을 위해 따로 문자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제로 문자를 만들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허생은 추수가 끝나자 삼 년 동안 먹을 것을 쌓아 놓고, 나머지는 전부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져가 팔았다. 따라서 장기도라는 곳이 현재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 ② 이 작품에서 박지원은 ‘글을 아는 사람’을 화근이라고 하며 관념적인 지식인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이 작품을 읽은 학생이 관념적인 지식인을 비판하는 작가의 또 다른 작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 ④ (라)에서 허생은 해외 무역을 통해 은 백만 냥을 벌 수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백만 냥이 오늘날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얼마쯤 되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 ⑤ 허생은 자신의 조그만 시험을 실행해 보기 위해 빈 섬에서 추수한 물건을 가지고 해외 무역을 한다. 따라서 당시 사회는 무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 08 어휘

- ①은 현실적 생계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새로운 문화와 제도를 만들려 했다는 의미이다. ④는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예절이나 도덕을 알고 이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로, ①과 상통한다.

- 오답 풀이 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어려운 일이나 고된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 ② ‘바늘 가는 데 실 간다’는 바늘이 가는 데 실이 항상 뒤따른다는 뜻으로, 사람 간의 긴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단단한 땅에 물이 끈다’는 험하게 쓰지 않고 아끼는 사람이 재산을 모으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 09 인물·사건

허생은 스스로 상업의 중요성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장사꾼 취급을 받는 것은 못마땅해하고 있다. 따라서 ㉠과 ㉡는 허생이 갖고 있는 봉건적 계급 의식의 한계를 보여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과 ㉡에서 허생이 선비의 도와 상인의 도를 혼동하고 있지는 않다.
- ② 허생이 실제로 이익을 추구하여 백성들을 구제하는 상업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과 ㉡를 통해 부(富)의 축적보다 유교적 입신양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허생이 ㉠과 ㉡를 통해 재물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벌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과 ㉡에서 허생은 변씨와 달리 자신이 나라를 위하는 장사꾼이라는 우월 의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 09 허생전 3

본문 140~141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인재 등용 05 명나라  
06 허생, 이완 대장

실력 문제

07 ② 08 ⑤ 09 ③ 10 ③

- 01 (아)에서 허생은 자신을 찾아온 이완 대장을 문밖에 세워 둔다. 이를 통해 이완 대장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02 이 작품은 한글이 아닌 한문으로 창작된 박지원의 소설이므로 평민 문학의 대표작으로 볼 수 없다.
- 03 이 작품은 명분과 예법만을 중시하고 실천적 의지와 능력이 없는 당대 지배층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개혁 사상을 담고 있다.
- 04 (자)에서 허생은 이완 대장에게 ‘와룡선생, 삼고초려’ 등을 언급하며 올바른 인재 등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 05 (차)에서 허생은 이완 대장에게 명나라 후손들에 대한 예우와 관련하여 혼인과 거처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 06 (자)와 (차)에서는 허생과 이완 대장의 대화가 나타나는데, 허생은 실리를, 이완 대장은 명분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7 인물·사건

이완 대장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관료층, 나아가 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없는 사대부 계층을 대변한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은 두 번째 제안에서 명나라 후손들을 예우하기 위해 임금의 친족들과 혼인을 시키고 세도가들의 재물을 빼앗아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완 대장은 이런 허생의 제안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완 대장의 모습을 통해 명나라를 가까이하고 청나라를 멀리하고자 하는 친명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허생의 제안에 대해 계속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완 대장의 모습을 통해 당시 무능하고 명분만을 추구하던 집권층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허생과 이완 대장의 대화를 통해 무능한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⑤ 이완 대장은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로,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 작품의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배경지식 ④ 이완 대장과 북벌론

이완(李完, 1602~1674)은 조선 시대의 무관이다. 효종과 현종 때 훈련도감의 대장을 지냈는데, 효종이 북벌 정책을 펼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알려져 있다. 북벌론은 병자호란(1636~1637)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 서 청나라에 굴욕적인 항복을 했던 치욕을 갚기 위해 청나라에 복수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조선이 병자호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안정이 되어 가고 청나라가 번성하게 되면서, 북벌론과는 반대로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자는 북학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허생전』에서 이완이 북벌론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허생은 이와 반대로 북학론을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 08 인물·사건

이완 대장은 명분을 중시하고 보수적이며, 무기력하고 현실 개혁의 의지가 부족한 사대부 집권층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허생의 급진적인 제안을 지지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의 태도가 이완 대장에게 냉랭하기는 하지만 이완 대장을 질책하면서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② 허생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을 챙기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완 대장은 허생의 제안이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진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완 대장은 허생의 제안이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 09 주제

(차)에서 명나라의 유민들을 돌보지 않는 지배층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명나라 장군과 벼슬아치들이 조선에 배운 명나라의 옛 은혜를 빌미로 우리나라로 많이 탈출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조정에서 명나라를 배척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자)에서 적극적인 인재 등용을 위해서 임금에게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완 대장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데서 권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대부들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자)와 (차)에서 허생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는 이완 대장의 태도로 볼 때 지배층은 실질적인 개혁 의지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자)에서 올바른 인재 등용에 대해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인재 등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차)에서 명나라가 망한 후 그 자손들이 조선으로 탈출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10 주제

허생은 이완 대장에게 제시한 제안을 통해 인재 등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실리 대신 대의명분만을 추구하며 체면과 위신만을 중시하는 사대부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자 곤란해하는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② 허생은 명분만을 앞세우고, 자신의 재산을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개인적 부의 축적에만 관심을 둔 당시 집권층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실리보다는 국제적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관이나, 공동체 의식 없이 개인적인 부의 축적에만 관심 있는 권력자는 허생이 비판할 만한 인물이다.

④ 허생은 적극적이고 올바르게 인재를 등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학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킨 기업가를 비판할 만하다.

⑤ 허생은 실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지 않는 당시 집권층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알면서도 위신 때문에 나서지 않는 행정가를 비판할 만하다.

#### 09 허생전 ④

본문 142~14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이완    05 청나라  
06 사대부

심력 문제

07 ①    08 ①    09 ③    10 ④

01 이 작품은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특징인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결말 구조를 따르지 않고 미완의 결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02 이 작품에서 허생은 발단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무능한 양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비판의 대상이었지만,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의인으로 등장해 작가의 사상을 대변하는 인물로 설정이 바뀌었다.

03 (타)에서는 번거, 무령왕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신성인한 인물들의 사례를 제시하여 사대부들의 허례를 비판하고 있다.

04 이완은 당시 북벌론을 주장했던, 형식과 예법에만 얽매인 무능하고 보수적인 집권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05 (카)에서 허생은 청나라와 인적 교류 및 자유 무역 등을 통해서 실력을 기른 뒤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06 (타)에서 벼슬이 없는 허생은 벼슬이 높은 이완 대장을 크게 꾸짖고 있다. 허생이 현실 대응책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세 가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이완 대장은 명분만 앞세우고 실천 의지는 없는 무능한 사대부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신분 질서가 엄격했던 당시 사회에서 벼슬이 없는 허생이 벼슬이 높은 이완 대장을 꾸짖는 설정은 당시 사대부 집권층에 대한 노골적이고 신랄한 비판 및 허생의 비범함을 부각하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다.

07 **주제**  
(카)에서 허생은 세 가지 제안 중 마지막 제안으로 청나라를 치기 위해 청나라와 교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북벌론의 허구성(㉠)과 사대부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타)에서는 지배층인 사대부들이 가진 허례허식과 이완 대장과 같은 정치에 몸담은 지배 계층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 도적들이 판치는 나라의 허술한 치안 문제(㉣)와 매점매석이 가능할 정도로 취약한 경제 구조(㉤)는 이 작품의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만, (카)와 (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08 **서술**  
이 작품은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결말 처리와는 다르게 완성되지 않은 결말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최종 판단을 유보하여 여운을 주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또한 허생의 주장이 당시로서는 급진적이어서 수용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오답 풀이** ② 완성되지 않은 결말 구조로 사건 해결에 따른 여운을 남기고 있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③ 당시 사대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허생이 이미 떠나고 없었다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은 허생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암시한다.

④ 일반적인 고전 소설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권선징악의 구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이 작품은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는 다른 결말 처리로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⑤ 설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허생의 행적을 신비하게 마무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인공 허생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 알아두기 | 미완의 결말

##### 결말 구조

• 집은 텅 비어 있고 허생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 설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완결되지 않은 채 마무리됨



• 여운을 주며 허생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나타냄  
• 허생의 제안이 매우 급진적이어서 당시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냄

#### 09 배경·소재

㉠, ㉡는 허생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으로, 목적을 위해서 허례에 얽매이지 않았던 인물들이다. 반면, ㉢, ㉣, ㉤는 허생이 비판하는 대상으로 집권층이 유지하고자 하는 것, 즉 허울뿐인 명분과 허례를 의미하는 부정적 대상이다.

#### 10 주제

허생은 형식적인 예법을 버리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예법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청나라의 복식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실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③, ⑤ 청나라와의 인적 교류 및 무역도 자유롭게 하도록 하여 청나라의 실상을 파악하고 실력을 기른 후에야 천하를 도모하고 청나라에 당한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을 수 있다고 하였다.

#### + 독해 체크

본문 144쪽

- ① 허생 ② 사대부 ③ 장사치 ④ 집권층 ⑤ 빈 섬  
⑥ 설화적

#### + 어휘 체크

본문 145쪽

- 1 (1) 호걸 (2) 화근 (3) 종실  
2 (1) ㉠ (2) ㉡ (3) ㉢

**갈래** 영웅 소설, 군담 소설**성격** 영웅적, 일대기적**주제** 여성인 홍계월의 영웅적 활약상**특징**

- 영웅(주인공)의 일대기적 구성 방식을 취함
- 사회 활동을 위해 여성의 신분을 감추는 남장 화소가 사용됨

**확인 문제**

01 ○ 02 × 03 태몽 04 외모

**실력 문제**

05 ④ 06 ⑤ 07 ④ 08 ③

- 01 (나)에서 계월은 본래 천상계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는 선녀였으나 죄를 짓고 인간계에 태어난 인물임이 제시되어 있다.
- 02 (가)에서 홍무는 나이 사십에도 자식이 없는 것이 자신의 팔자 때문이라고 부인에게 말하고 있다.
- 03 (나)에서 선녀가 나오는 양씨 부인의 태몽을 통해 주인공 계월의 탄생을 암시한다.
- 04 (나)의 '얼굴이 도화(桃花) 같고 향내 진동하니 진실로 월궁항아(月宮姮娥)더라'는 계월의 외모를 묘사한 것으로, 인물이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05 서술**

(가)의 앞부분에서 홍무에 대해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홍무의 내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과거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천상계와 지상계의 공간 설정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③ 초월적 존재인 선녀가 내려와 부인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고뇌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⑤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키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06 인물·사건**

홍무는 계월이 태어나자 자식을 얻은 것을 매우 기뻐하였으나 계월이 남자가 아님을 한탄하였다.

**오답 풀이** ① 홍무는 자신을 시기하는 신하들의 모함으로 벼슬을 빼앗겼다.

② 괘 도시는 계월이 공후작록을 올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③ 양씨 부인이 첩을 들여 자식을 낳으라고 홍무에게 말하자 홍무는 다 자신의 팔자이니 부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며 부인을 위로하고 있다.

④ 양씨 부인이 계월을 낳자 선녀가 내려와 아기를 씻기고, 이 아기를 잘 길러 후복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홍무와 양씨 부인이 훗날 계월에 의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나타낸다.

**07 배경·소재**

[A]에서 양씨 부인은 삼천 가지 불효 중에서 자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당시에 큰 불효였음을 알 수 있다(ㄴ). 또한 양씨 부인은 남편에게 자식을 보기 위해 첩을 얻은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에는 일부다처(一夫多妻) 제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ㄷ).

**08 인물·사건 + 서술**

계월이 부인의 꿈에서 '세존이 부인 댁으로 가라 지시하옵기로 왔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짓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몰랐는데, 세존(부처)이 지시해 양씨 부인에게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 주인공이 천상계에서 본래 신분이 높았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영웅 소설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명문 집안의 사람임을 나타내 주인공이 고귀한 혈통임을 드러낸다.

② 양씨 부인은 선녀가 나타나는 꿈을 꾸고 계월을 낳게 되는데, 양씨 부인의 꿈속 선녀는 계월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주인공의 비정상적인 출생을 나타낸다.

④ 괘 도사의 예언에 따르면, 계월은 다섯 살이 되는 해에 부모와 이별하게 된다. 이는 유년기에 주인공이 겪게 되는 시련을 나타낸다.

⑤ 계월이 글을 한 번 보면 다 기억한다는 것은 계월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 10 홍계월전 2

**확인 문제**

01 ○ 02 × 03 충의 04 군담

**실력 문제**

05 ② 06 ④ 07 ③ 08 ④

- 01 계월은 여공에게 구출된 후 여공의 집에서 평국이란 이름으로 보국과 함께 공부해 과거에 급제한다.
- 02 계월이 양씨 부인에게 자신이 딸임을 밝히고, 이 말을 들은 양씨 부인과 시랑(홍무)이 서로 붙들고 통곡 기절할 때 계월의 군사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고 서로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였다.
- 03 계월은 시랑(홍무)이 천자의 은혜를 배반했다고 보고, 잡아내어 목을 베라고 명하였다. 이는 계월이 유교적 충의 사상을 중시했음을 보여 준다.
- 04 이 작품은 비범한 인물이 전쟁에 나가 나라를 구하는 활약상을 다룬 군담 소설에 해당한다.

## 05 인물·사건 + 서술

(마)에서 계월은 부모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의 우연성은 고전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이다.

## 06 인물·사건

양씨 부인은 계월이 남편인 시랑을 잡아내어 베라고 명령하자, ‘계월아. 너와 함께 강물에 빠져 그때 죽었다면 이런 욕을 면할 것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씨 부인은 계월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계월 군대의 제장이 벽파도를 둘러싸니 서달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자결하고자 하였다.

② (바)에서 보국은 평국(계월)이 부모를 잃은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③ 시랑(홍무)은 계월에게 자신이 장사랑 난에 잡혀 유배 온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⑤ 계월은 군졸로부터 시랑에 대해 적병과 동심협력했다고 보고를 받고, 이에 근거해 시랑 일행이 적의 무리에 내응되었다가 잡혔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계월은 시랑을 잡아내어 베라고 명령한 것이다.

## 07 인물·사건

㉠ ‘보국’을 뺀 나머지 ㉡, ㉢, ㉣, ㉤은 모두 주인공 ‘계월’을 지칭한다.

## 08 인물·사건

부모와 헤어진 계월은 여공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기르게 된다. 따라서 여공은 주인공인 계월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서달과 장사랑은 계월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들이다.

② 군졸은 계월의 부하일 뿐, 〈보기〉의 조력자와는 거리가 멀다.

③ 천자의 명으로 계월이 전쟁에 나가게 되므로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력자와는 거리가 멀다.

03 신하들이 평국을 반란군을 진압하는 원수로 출정시키자고 천자에게 제안하며, 작록을 거두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평국이 여자임이 밝혀졌음에도 벼슬을 유지했음을 의미한다.

04 계월은 여자의 신분이 드러나면서 천자의 주선으로 보국과 혼인을 올리고 규중에 거처하게 된다.

05 오왕과 초왕이 전쟁을 일으키자 남관장이 천자에게 장계를 올린다. 따라서 천자는 장계를 통해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06 배경·소재

남북은 남자들이 입는 옷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한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국이 여자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ㄷ), 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ㄹ).

**오답 풀이** ㄱ. 평국은 천상계의 인물이지만, 남북이 이를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ㄴ. 평국은 비범한 능력은 지닌 인물이지만, 남북이 그녀의 비범성을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 07 인물·사건

천자는 반란군 진압을 평국(계월)에게 맡기기 위해 그녀를 부른다. 이때 평국이 놀랐던 것은 천자가 자신을 부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을 평국이 천자가 자신을 등용할 것임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아픈 평국에게 어의를 보내면서 상태가 위태로우면 본인이 직접 가 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천자가 평국을 매우 아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어의가 천자에게 평국의 맥을 보니 남자의 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은 어의가 평국에게서 여성의 맥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③ ㉣은 평국이 여자임이 들끓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면 어쩔 수 없이 여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이다.

④ ㉤에서 평국이 눈물을 흘린 것은 자신이 여성임이 밝혀짐에 따라 예전과는 다르게 규중에서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이 서러웠기 때문이다.

## 08 주제

평국이 남장을 하고 전장에서 큰 공을 세운 것은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의 신분으로는 사회 활동을 하기 힘든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남장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도구는 되지만, 여성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우승상 명연태가 평국으로 하여금 도적을 막게 해야 한다고 말하자, 천자는 ‘지금은 규중처자라 어찌 불려 전장에 보내리오’라고 말한다. 이는 당시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해 사회적 제약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여 말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신하들은 평국이 여성임을 알고 있음에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인물로 평국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이는 평국이 여성임에도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았음을 보여 준다.

## 10 홍계월전 ③

본문 150~151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천자 05 장계

심력 문제

06 ⑤ 07 ⑤ 08 ④

01 (사)에서 어의는 천자의 명에 따라 평국의 맥을 짚어 병을 진단하였는데 평국의 병이 위중하지 않다고 하였다.

02 천자는 평국의 맥이 남자의 맥이 아니라는 어의의 보고를 듣고 ‘평국이 여자라면 어찌 전장에 나가 적병 심만 군을 사멸하고 왔으리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천자가 어의의 보고를 듣고 평국이 여자라고 확신했다고 볼 수 없다.

- ③ 평국은 자신이 여성임이 밝혀질 상황에 처하자 여복을 입고 규중에서 생활하겠다고 생각한다. 이는 유교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평국은 여성임에도 오왕과 초왕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이는 평국이 자신의 능력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 알아두기 「홍계월전」에 나타난 남장의 의미

##### 남장의 의미

-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의 신분으로 사회 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 줌
- 남장은 남성 중심 사회에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일시적 해결책으로 기능을 할 뿐 근본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변화시키지 못함

### 10 홍계월전 ④

본문 152~15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맹길 04 평국

심박 문제

05 ⑤ 06 ④ 07 ⑤

- 01 평국은 전장에 나가 반란을 진압하고 천자가 위험해지자 그를 구하러 황성으로 가서 천자를 구한다. 이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위기의 극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02 천자는 평국에게 진 보국을 위로하면서 평국이 '평정 후 돌아가면 예로써 중군을 섬길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부인인 평국이 남편인 보국을 섬길 것이라는 의미로, 당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표현이다.
- 03 보국은 백총마를 탄 평국을 보고 적장 맹길이 평국인 척해서 자신을 유인하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 04 보국은 평국이 자신의 창검을 빼앗고 목을 잡자 우는 소리를 하며 평국을 찾고 있다. 이에 대해 평국이 '네 어찌 평국에게 달려오며 평국은 무슨 일로 부르느냐?'라고 말하자 보국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눈물을 거두었다.

### 05 서술

서술자가 인물의 과거 행동에 대해 논평한 부분은 제시된 지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② 평국이 팽 도사에게 배운 술법을 배우니 눈 깜짝할 사이에 태풍이 일어나며 검은 구름 안개가 자욱해지고 있다. 이는 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평국과 보국의 대결을 통해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보국이 어떻게 할 줄 몰라 겁을 먹고 당황하더니', '술품은 간데없고 도리어 부끄러워' 등과 같이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06 배경·소재

㉔은 평국이 적군으로 위장하기 위해 입은 것으로, 보국이 평국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㉔은 보국이 오, 초 두 왕의 반란군을 진압했다는 소식을 담고 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천자는 기뻐하고 있다.

② 평국은 준총마를 탔는데, 천자와 함께 보국의 진으로 향할 때 ㉔을 탔다. 이에 보국은 평국이 평소에 타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평국을 적군으로 의심하게 된다.

③ 깃발과 칼 빛은 원수의 칼과 깃발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㉔에는 평국의 군대임을 나타내는 기호가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평국이 ㉔을 베풀어 태풍을 일어나게 하고 검은 구름 안개가 자욱하게 만들자 보국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겁을 먹고 당황하고 있다.

### 07 인물·사건

천자는 보국을 위로하면서 보국이 평국과 대결을 벌이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천자와 평국은 보국이 오, 초 두 왕의 항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보국을 보기 위해 보국의 진으로 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㉔에서 천자와 평국은 보국의 소식을 알고 있다.

② 보국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평국을 알아보지 못하고 적장 맹길이라고 생각했으므로, 보국만 평국을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다.

③ 보국이 평국을 적장으로 오인하자 천자가 평국에게 적장인 체하고 중군을 속여 오늘 재주를 시험해 보라며 제안한다. 따라서 평국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천자에게 보국과의 대결을 먼저 제안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평국과 보국의 대결에서 창검을 빼앗긴 것은 보국이다.

#### 알아두기 여성 영웅 소설로서의 의의

##### 계월

- 여성의 몸으로 입신양명하고 남성인 보국보다 큰 활약을 함
-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전군을 호령하는 원수로 출정함
- 천자의 인정을 받고 영웅이 됨

계월은 조선 시대 여성들을 억압했던 규범이나 제도에 저항하는 인물

- 여성이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남자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영웅으로 등장함
- 조선 사회의 남존여비 사상에 반발하던 사회 분위기가 반영됨

### + 독해 체크

본문 154쪽

- ① 부모 ② 보국 ③ 여자 ④ 영웅 ⑤ 원수  
⑥ 남성 ⑦ 선녀 ⑧ 계월 ⑨ 남존여비

### + 어휘 체크

본문 155쪽

- 1 <가로> ② 조야 ③ 폐하  
<세로> ① 만조백관 ④ 하직  
2 (1) 결박 (2) 거동 (3) 하교

### 3. 극/수필

본문 160~161쪽

01

소 ① 유치진

- 갈래** 희곡, 장막극, 사실주의 극  
**성격** 사실적, 현실 고발적  
**주제** 일제 강점하 가난에 시달리는 농촌의 비참한 모습  
**특징** • 사실주의 경향의 장막극임  
 • 희극적인 요소를 통해 비극성을 강조함  
 • 비속어와 방언을 사용하여 극적 사실감을 높임

확인 문제

01 ○ 02 × 03 만주 04 소 05 농사

실력 문제

06 ③ 07 ④ 08 ② 09 ①

- 01** 개똥이는 만주에 가서 큰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데, 그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소를 팔고 싶어 한다.
- 02**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린 희곡으로, 연극의 대본이다.
- 03** 개똥이는 아버지 국서에게 소를 팔고 그 돈으로 만주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허황된 생각에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04** 국서는 소를 팔자고 조르는 개똥이의 말에, 소의 내력을 이야기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개똥이의 말을 묵살하고 있다.
- 05** 국서는 농사로 바쁜 시기에 두 아들이 일을 돕지는 않고 빈둥거리고 논다며 화를 내고 있다.
- 06** **형상화 방식**  
 ‘죽일 놈들’, ‘대가리’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여 국서의 투박스러운 성격과 못마땅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국서와 개똥이가 대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소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이다.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사건이 극적으로 전환된 부분도 없고, 인물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 것도 아니다.  
 ④ 소에 대한 입장 차이로 국서와 개똥이가 갈등하고 있는 장면으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국서와 개똥이의 갈등만 제시되어 있을 뿐, 유사한 장면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 07** **형상화 방식**  
 ㉔의 뒤에 이어지는 국서의 대사를 보아 소는 국서에게 궁지와 애정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똥이가 소를 팔아 자신이 만주로 갈 노자를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국서

가 반문하며 화를 내는 상황이므로, 국서가 호탕하게 웃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㉔에는 어이없어하거나 말도 안 된다는 뜻이 놀라는 태도가 어울린다.

- 오답 풀이** ① 바쁜 날에 농사일을 돕지 않는 아들을 보며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 어울린다.  
 ② 자신은 농사에 관심도 없는데 아버지가 농사일을 돕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형을 찾는 상황이므로, 통명스러운 태도로 답변하는 것이 어울린다.  
 ③ 아버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를 팔아 자신이 만주로 갈 노자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상황이므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것이 어울린다.  
 ⑤ 아버지가 자신의 부탁을 묵살해 버리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똥이가 무엇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므로, 다급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어울린다.

#### 08 인물·사건

[A]에서 국서는 개똥이에게 인신공격을 하면서 개똥이의 제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즉, 개똥이의 말을 어리석은 것으로 몰아붙임으로써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아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아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뿐, 국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④ 아들이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  
 ⑤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 알아두기 「소」에 나타난 사실주의 경향

-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계층적 갈등을 통해 식민지 현실의 부조리를 드러냄
- 농촌의 가난한 모습과 농민의 비참한 생활을 구체적으로 드러냄
- 등장인물이 비속어와 방언을 사용함
- 시대적 배경을 알려 주는 어휘를 사용함



극에 현실감을 부여함

#### 09 주제

(가)~(나)는 소를 팔아 만주로 가려는 아들 개똥이와 소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으로 소를 절대 팔 수 없다는 국서와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국서와 개똥이가 갈등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소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 오답 풀이** ② 개똥이가 만주로 떠나려고 하는 것은 큰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이런 개똥이의 모습을 <보기>의 내용과 관련지어 본다면, 가난에 시달리는 농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보기>를 통해 국서와 개똥이의 갈등에 영향을 준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농촌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 일제의 수탈 정책임을 알 수 있다.

- ④ 국서는 개똥이의 의견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묵살하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히 하라고 호통치고 있다. 이를 통해 권위적인 구세대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⑤ 개똥이라는 이름과 투박한 국서의 대사와 행동은 이 작품의 희극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01 소 2

본문 162~16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농지령 05 소작인

실력 문제

06 ④ 07 ② 08 ②

- 01 (다)에서는 밀린 도지를 한꺼번에 받으려는 마름과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소작인 가족인 국서네의 갈등이 드러난다.
- 02 마름은 소작인 국서의 사정은 고려해 주지 않는 냉정한 인물이며, 소를 빼앗아 가는 방식으로 도지를 받아내려는 비열하고 교활한 인물이다. 그러나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 03 국서와 처는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말하며 봐주기를 애원하고 있으나, 말뚱이는 불합리한 현실을 밝히며 마름에게 대 들고 있다.
- 04 ‘농지령’은 일제 강점기에 공포된 농지법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일제의 수탈 정책 중 하나이다.
- 05 “빠가 빠지게 농사지어 놓은 것 막 다 가져갔죠.”라는 말뚱이의 대사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도 지주의 수탈로 남는 게 없는 소작인의 현실이 드러난다.
- 06 인물·사건

말뚱이의 대사를 통해 빠 빠지게 농사를 지었지만 마름이 다 가져가 버려서 풍년이어도 집에 양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서네 집에 양식이 없는 것이 농사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마름이 국서에게 밀린 도지를 갚으라고 재촉하는 것으로 보아, 국서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지 대신 소를 끌고 가겠다고 위협하는 마름의 대사를 통해 국서가 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마름은 명년에 농지령이 새로 실시되면 밀린 도지를 받는 일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한꺼번에 밀린 도지를 다 받아 내려는 것이다.

③ 마름은 도지 대신 기둥이라도 빼어 가고 술이라도 떼어 가고 소마저 몰고 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름이 도지를 빌미로 무엇이든 빼앗아 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마름은 ‘나는 그저 논임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논임자의 지시에 따라 국서에게 밀린 도지를 갚으라고 압박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알아두기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

이 작품은 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국서에게 소는 소중하지만, 묵은 도지를 해결하고 장남 말뚱이가 결혼할 처녀인 귀찬이가 빚 대신 일본인에게 팔려가는 것을 막으려면 소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밤낮없이 땀 흘려 농사지어도 빚에 치여 허덕일 수밖에 없고, 담보가 없어 돈을 빌리지 못하거나 빌린다 하여도 비싼 이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소작하는 농민들은 가난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다.

## 07 인물·사건

마름은 밀린 도지를 갚지 않으면 최후 결단을 짓겠다고 말하면서 국서네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두 소용없다니까!’라는 말을 통해 국서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마름의 냉정한 태도가 드러난다.

③ 논임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마름이라는 지위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협박하고 있다.

④ 농지령의 실시를 내세워 밀린 도지를 한꺼번에 다 받으려 하지만, 이를 논리적인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새로 시행되는 법령으로 인해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질까 봐 소작인을 몰아붙이고 있다.

⑤ 논임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우고 있지는 않다.

## 08 인물·사건 + 형상화 방식

국서는 마름에게 대드는 아들 말뚱이 때문에 혹시라도 마름의 노여움을 살까 봐 황급하게 말뚱이를 헛간으로 끌어내고 있다. 이를 계층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당시에 농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 ‘헛간’ 등의 소재를 연극적 장치로 사용하면 무대에 현실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국서와 그의 처가 마름에게 찢절매고 애걸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당시의 마름과 소작농 사이의 지배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④ 말뚱이를 지팡이로 때리는 마름의 행동과 비속어의 사용을 통해 마름과 말뚱이 사이의 갈등을 실감 나게 보여 주고 있다.

⑤ ‘농지령’, ‘작인’, ‘도지’ 등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말로, 이를 통해 당시 농촌 사회의 구체적인 실상이 드러난다.

## 01 소 3

본문 164~165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재판 05 도지, 논

실력 문제

06 ③ 07 ④ 08 ② 09 ④

- 01 국진은 재판을 하려면 소 값 이상의 비용이 들고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논임자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논을 부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논임자와 타협하는 것이 좋다고 국서를 설득하고 있다.

**02** 국서가 가진 소의 조상이 일등상을 받았지만 논임자가 이 이유로 소를 가져간 것은 아니다. 논임자는 밀린 도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그 대신 소를 가져간 것이다.

**03** 이 작품은 도지 대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를 빼앗기는 국서를 통해 지주의 수탈로 인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일제 강점기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보여 주고 있다.

**04** 국진은 읍내 대서소에 가서 재판 절차를 알아본 후에 국서에게 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05** 국진은 논임자와의 타협을 통해 소를 포기하는 대신 도지를 탕감하고 논도 다시 부치게 되었다고 국서에게 말한다.

## 06 주제

국서는 논임자에게 도지 대신 소를 빼앗기고 재판을 통해 이를 되찾으려고 하지만 재판 비용이 많이 들고 논임자에게 미움을 살 수 있어서 결국 재판을 포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작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논임자가 밀린 도지 대신 국서의 소를 끌고 간 상황이므로, 소를 매매하려면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
- ② 국서의 대사를 통해 동네 주민들이 증인으로 재판에 나서 준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소작인들이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④ 논임자가 묵은 도지를 받기 위해 집행을 하면 국서네는 집과 집터를 모두 잃고 화전이나 파먹는 신세가 된다는 내용을 보아 화전을 경작한다는 것은 소작권을 잃고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전을 마음대로 경작할 수 있게 되면서 농민들의 생활이 나아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땅 주인과 소작인 사이의 갈등을 중재해 주는 관청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대서소는 갈등을 중재해 주는 곳이 아니라,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일을 하는 곳이다.

### 알아두기 국서가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와 타협 결과

#### 소송을 하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

-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여도 논임자가 묵은 도지를 두고 집행을 하면 집과 집터를 모두 잃게 됨
- 소송하는 비용이 소 값보다 많이 듦
- 재판을 하면 지주의 미움을 받아 소작권을 잃게 되어 생계가 막힘



#### 타협 결과

밀린 도지를 소로 탕감하고 소작권을 유지하기로 함

## 07 인물·사건

국진은 소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는 형 국서에게 재판을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인물이다.

**오답 풀이** ① 융통성이 없는 국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소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람은 형 국서이다.

③ 국진은 재판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여러 방안으로 생각해 보고, 형 국서에게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한다.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권위적인 인물과 거리가 멀다.

⑤ 국진은 형 국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08 현상화 방식

㉠에서 국진은 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국서에게 설명하고 있다. 즉 재판에서 이겨 소를 다시 찾아도 논임자가 묵은 도지에 대해 집행을 하면 집과 땅을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을 국서에게 설명해 주는 상황이므로, 심각한 표정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재판을 하면 소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므로, 반가워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모습이 적절하다.

③ 재판을 하면 소는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집과 집터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 비용도 많이 든다는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므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처구니없어하는 모습이 어울린다.

④ 자금심과 애정의 대상인 소를 그냥 빼앗길 수 없다는 분함의 드러나야 하므로,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도지의 대가로 소를 잃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므로, 원통해하며 절망하는 모습이 어울린다.

## 09 인물·사건 + 어휘

㉠에서 국진은 국서에게 재판을 한 번 거는 비용이 소 값보다 많을 것 같다고 하였으므로, 국서에게 재판은 기본(소 값)이 되는 것보다 덧붙이는 것(재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오답 풀이** ① '마른하늘에 날벼락'은 뜻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뜻밖에 입는 재난을 이르는 말이다. 국서가 소를 빼앗긴 상황을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속담이다.

② '코가 께인다'는 것은 '약점이 잡힌다'는 의미이다.

③ '가난이 소 아들'이라는 것은 소처럼 죽도록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갑갑한 놈이 송사한다'는 것은 제일 급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 + 독해 체크

본문 166쪽

- ① 소 ② 마름 ③ 국서 ④ 귀찬이 ⑤ 개똥이  
⑥ 방언 ⑦ 일제 강점기 ⑧ 소작인 ⑨ 도지 ⑩ 농촌

### + 어휘 체크

본문 167쪽

- 1 (1) ㉠ (2) ㉡ (3) ㉢  
2 (1) 샛꾼 (2) 시비곡절 (3) 탕감

**갈래** 민속극, 가면극

**성격** 풍자적, 해학적

**주제**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

**특징**

- 언어유희, 희화화를 통해 양반을 풍자함
-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됨
-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음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쉬이, 춤 05 조롱, 호통  
06 병거지, 채찍 07 노새 원님

**실력 문제**

08 ③ 09 ① 10 ②

- 01 이 작품은 황해도 봉산 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극으로, 탈을 쓰고 연행하는 가면극에 해당한다.
- 02 말뚝이는 양반을 모시는 하층민으로 당시 서민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말뚝이는 이 작품에서 무능한 양반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풍자하는 역할을 한다.
- 03 ‘놈’이라는 비속어를 통해 양반들을 격하한 표현으로, 양반에 대한 말뚝이의 반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양반에 복종하고 있으므로 말뚝이가 거만하다고 볼 수는 없다.
- 04 (나)에 드러난 재담 구조를 살펴보면,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쉬이’로 시작해서 재담의 끝을 알리는 ‘춤’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 05 이 작품은 여러 재담이 ‘양반의 위엄 →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호통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 → 화해 춤’의 구조로 반복된다.
- 06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고 있는 말뚝이의 모습은 마부의 모습으로, 말뚝이의 신분이 마부임을 나타낸다.
- 07 (다)에서 ‘노 생원님’을 ‘노새 원님’으로 표현한 것은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로, 이를 통해 말뚝이는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 08 인물·사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샌님, 서방님, 도련님은 위선과 허세에 가득 찬 당시의 양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풍자의 대상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양반 삼 형제는 당시 서민 계층을 대표하는 말뚝이와 대비되는 인물로, 무능하고 어리석은 당시의 양반 계층을 대표한다.

② (나)에서 양반 삼 형제는 말뚝이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믿고, ‘이 생원이라네.’라며 말뚝이의 조롱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모습을 보인다.

④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진 인물로 모두 신체 결함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어색하게 춤을 추거나 방정맞게 구는 등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

⑤ 흰 창옷에 관을 쓰고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는 샌님, 서방님과 달리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쓰고 부채만 가지고 있으며, 형들의 얼굴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구는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

#### 배경지식 + ‘탈’의 기능

「봉산 탈춤」과 같은 가면극에서 ‘탈’은 각 인물의 특징을 과장하거나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전형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관객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연기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당대 지배 계층인 양반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09 형상화 방식

이 작품은 전통 가면극인 「봉산 탈춤」의 대본으로, 인과 관계에 의해 사건이나 재담이 구성되지 않고, 각 과장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옴니버스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특별한 무대나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공연하는 곳이 곧 무대가 된다.

③ 일반적으로 관객이 수동적으로 감상만 하는 현대극과 달리 전통극인 「봉산 탈춤」은 관객이 극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극 중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현대극과 달리 전통극인 「봉산 탈춤」은 시·공간을 자유롭게 선택, 변화시킬 수 있다.

⑤ 「봉산 탈춤」은 공연 예술이기 때문에 관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몸짓, 표정, 춤, 재담과 해학적인 표현이 활용된다.

#### 알아두기 「봉산 탈춤」의 갈래적 특성

|      | 「봉산 탈춤(전통극)」                           | 현대극                                |
|------|----------------------------------------|------------------------------------|
| 구성   | 각 과장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옴니버스식 구성임             | 단일한 주제로 일관성 있게 구성됨                 |
| 무대   |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으며, 특정한 무대나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무대와 객석을 엄격히 구분하며, 특정한 무대 공간을 필요로 함 |
| 관객   | 능동적으로 참여함                              | 수동적으로 감상함                          |
| 시·공간 | 극 중 시·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음         | 극 중 시·공간에 제약을 받음                   |

#### 10 형상화 방식 + 주제

㉠에서는 ‘개잘량’의 ‘양’자와 ‘개다리 소반’의 ‘반’자를 쓰는 ‘양반’이라며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의 ‘우리 집 샌님인지, 댄님인지, 졸님인지’에서도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양반의 위엄을 내세우는 말로 언어유희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몹시 아쉬워 무언가를 찾는 모양'을 빗댄 속담인 '비 오는 날 나막신 찾는다'를 활용하고 있으나 언어유희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자기 결함은 생각지 아니하고 애꿎은 사람이나 조건만 탓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장님이 개천 나무란다'라는 속담을 활용하고 있으나 언어유희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고시조의 한 대목을 인용하고 있으나 언어유희는 나타나 있지 않다.

## 02. 본산 탈춤 2

본문 170~171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실력 문제

04 ② 05 ④ 06 ③

- 01 양반이 새처를 정하라고 한 명령에 따라 말뚝이가 새처를 찾는데, 채찍으로 원을 그린 후 새처라고 말한다. 이는 무대 장치가 따로 없는 민속극의 특징이 드러난 것으로, 말뚝이가 그린 원이 새처가 된다.
- 02 (라)에 나타난 양반의 거처는 보석과 꽃무늬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당대 양반들의 사치와 부도덕성을 폭로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 03 (마)와 (바)에서 양반들은 자신들의 유식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글자 놀이를 한다. 그러나 양반들의 시조 읊기는 말뚝이의 민요와 같은 수준의 것이고, 운자 놀이는 일반인들이 즐기는 수수께끼 놀이와 같은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이를 통해 학식과 교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양반들의 무식한 면모를 풍자하고 있다.
- 04 **형상화 방식**  
[A]는 말뚝이의 변명에 안심한 양반들이 굿거리장단으로 춤을 추며 재담이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양반들의 춤은 극을 신명나게 만들고 갈등의 해소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쉬이'이다.
-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의 반복되는 재담 구조를 고려할 때, [A]에는 말뚝이의 변명에 대한 양반들의 마음이 나타나야 하므로 적절한 판단이다.
- ③ 이 작품은 말뚝이의 변명을 듣고 안심한 양반들이 굿거리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것으로 재담이 마무리되는 구조가 반복되므로 적절한 판단이다.
- ④ 하나의 재담이 마무리되면서 등장인물이 추는 춤은 흥을 돋우며 극을 신명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판단이다.
- ⑤ 말뚝이의 변명을 듣고 안심한 양반들이 말뚝이와 함께 추는 춤은 인물 간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음을 드러내므로 적절한 판단이다.

### 알아두기 '쉬이'와 '춤'의 기능

| 쉬이                                                                                                                            | 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담의 시작을 알려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킴</li> <li>•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림</li> <li>•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담의 끝을 알리고 재담을 구분함</li> <li>• 인물 간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함</li> <li>• 흥을 돋우며 극을 신명나게 함</li> </ul> |

## 05 인물·사건

㉠에서 말뚝이는 양반의 거처를 '참나무 울장', '깃', '하늘로 낸 문'을 통해 마구간의 형상으로 표현하여 양반을 가축으로 비하하고 있다. 그리고 양반의 호통에 말뚝이는 ㉡와 같이 화려하게 장식된 양반의 거처를 묘사함으로써 양반의 사치와 부도덕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 알아두기 제6과장 '양반춤'의 재담 구조

|         |                                                                                                                                    |
|---------|------------------------------------------------------------------------------------------------------------------------------------|
| 양반의 위엄  | 양반과 하인 말뚝이의 정상적인 신분 관계를 나타냄                                                                                                        |
| 말뚝이의 조롱 | 말뚝이의 도전으로 양반의 위엄이 급격히 떨어짐                                                                                                          |
| 양반의 호통  | 양반이 제재를 가해 '말뚝이의 조롱'을 부정하고 양반의 위엄을 세우려 함                                                                                           |
| 말뚝이의 변명 | 말뚝이는 표면적으로는 '말뚝이의 조롱'을 부정하고, '양반의 호통(양반의 위엄)'을 긍정하는 척함                                                                             |
| 양반의 안심  | 양반은 '말뚝이의 변명'만 알고 '말뚝이의 조롱'이 부정되고, '양반의 호통(양반의 위엄)'이 긍정되었다고 기분 좋게 생각(착각)함 → 객관적으로 '양반의 호통(양반의 위엄)'과 '말뚝이의 변명'이 부정되고 '말뚝이의 조롱'이 긍정됨 |

## 06 인물·사건 + 형상화 방식 + 주제

가면극이 양반에 대한 풍자를 통해 하층민의 울분을 풀 수 있게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양반을 조롱하고 이에 대해 변명하는 말뚝이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말뚝이가 양반에게 호통을 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호통은 양반을 조롱하는 말뚝이에게 양반들이 한 행동이다.

- 오답 풀이** ① 일상어나 비속어는 주로 서민의 언어이고, 한자어는 주로 양반의 언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언어들이 사용된 것은 관객인 양반과 서민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일상어나 비속어, 한자어 등이 함께 사용된 것은 여러 계층의 관객을 고려한 것이다.
- ② 양반들의 화려한 새처는 양반들의 사치와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양반들의 글자 놀이는 양반들의 허세와 무식함을 풍자하고 있다.
- ④ (라)에서는 말뚝이에 의해 양반들이 풍자되고 있지만, (마)와 (바)에서는 양반들이 글자 놀이를 하면서 자신들의 무식함을 드러냄으로써 양반들 스스로에 의해 풍자가 이루어진다.
- ⑤ 양반과 하인의 질서가 확실했던 당시 사회에서 하인인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가면극에서만은 이것이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말뚝이의 조롱과 풍자를 통해 하층민들은 대리만족을 느끼며 양반에게 가졌던 울분을 풀 수 있었다.

##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취발이  
06 전령    07 엉덩이

## 실력 문제

08 ⑤    09 ①    10 ⑤    11 ③

- 01 엉터리 파자 놀이를 하면서 서로를 칭찬하는 양반들의 모습을 통해 양반의 무지와 허세가 드러난다.
- 02 피자 놀이는 한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생원과 서방이 하는 피자 놀이는 유치한 수수께끼 수준으로, 양반의 학식과 수준이 낮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 03 이 작품에서 취발이는 힘이 세고 날랜 인물로 그려지고 있지만, 양반보다 신분이 낮기 때문에 양반의 명을 받은 말뚝이에 게 끌려 간다.
- 04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의 표현을 통해 취발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이 작품에서 풍자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다.
- 05 소설이나 극에서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건의 전개를 예고하는 기능을 한다. 이 작품 역시 취발이의 등장으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06 취발이를 잡아들이라는 생원의 명령에 말뚝이가 요구한 것은 '전령'으로, 이것을 본 취발이가 순순히 양반 앞에 끌려오는 것을 볼 때 '전령'은 당대 양반의 권위나 권력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07 말뚝이가 취발이의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는 행동은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 08 **인물·사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취발이는 조선 후기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성장한 신흥 상인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그놈이 심(힘)이 무랑대как이요, 날랜이 비호 같은데'를 통해 취발이가 힘이 세고 날렵함을 알 수 있다.

②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을 통해 국고를 횡령하였고, 이에 대한 죄목으로 양반이 잡아들이려고 하므로, 취발이가 국고 횡령의 죄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양반이 취발이를 잡아다가 뇌물을 받아 내려고 하고 있으므로, 양반들의 비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양반이 작성한 전령을 보고 순순히 말뚝이를 따라 양반의 앞에 끌려오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 09 인물·사건 + 주제

이 작품에서는 양반 삼 형제의 시조 읊기, 운자 놀이, 파자 놀이 등의 글자 놀이를 통해 양반들의 무식함과 허세를 풍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글자 놀이 재담에 걸치레만 중시하는 양반들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양반들이 즐기는 풍류 그 자체가 풍자의 대상은 아니다.

③ 양반들의 시조 읊거나 파자 놀이가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로 볼 수는 없다.

④ 글자 놀이 재담을 통해 양반들의 무식함이 드러나므로 양반들의 현학적인 말투와 태도는 관련이 없다.

⑤ 글자 놀이를 하는 양반들의 모습에서 자기 과시와 허세가 드러나 나 양반의 위신과 체면을 내세우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0 배경·소재

(아), (자)를 통해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 민심이 흉흉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자)의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라는 말뚝이의 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② (자)의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야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이라는 말뚝이의 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③ (아)에서 취발이를 함부로 대하는 양반(생원)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④ (아)에서 취발이의 등장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 11 인물·사건 + 형상화 방식 + 주제

(사)와 같은 글자 놀이 재담에는 말뚝이의 조롱 없이도 풍자가 이루어진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에서 양반은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므로, 양반탈은 대상의 부정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면서 웃음을 유발할 수 있게 제작해야 한다는 구상 내용은 적절하다.

② 이 작품과 같은 전통극은 특별한 무대나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관객과 가깝고 소통해야 하므로 구상 내용은 적절하다.

④ 재담이 끝나고 등장인물들이 함께 추는 춤은 갈등이 해소된 화해의 춤이므로, 악공이 흥겨움을 더할 수 있게 연주를 해야 한다는 구상 내용은 적절하다.

⑤ 이 작품은 등장인물들이 일제히 어울려서 흥겹게 춤을 추면서 재담을 마무리하는 구조가 반복되므로 구상 내용은 적절하다.

## + 독해 체크

본문 174쪽

- ① 말뚝이    ② 비판    ③ 풍자    ④ 양반    ⑤ 상인  
⑥ 황금    ⑦ 조롱    ⑧ 변명    ⑨ 무식

## + 어휘 체크

본문 175쪽

- 1 (1) 만연 (2) 흥흥 (3) 호사  
2 현학 - 학식 - 식상 - 상통 - 통쾌 - 쾌자

- 갈래** 경수필, 서사적 수필  
**성격** 회상적, 체험적, 극적  
**주제** • 소망을 이루려는 노력과 그 성취의 기쁨  
 • 인간의 맹목적인 소유욕과 집착에 대한 연민  
**특징** • 대화체를 사용해 현장감을 살림  
 • 여운을 주는 결말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함

##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진짜 05 다양[대양]  
한 폰

## 실력 문제

06 ① 07 ② 08 ④

- 01 (가)의 '예전 상해에서 본 일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글쓴이가 중국 상해에서 실제 목격한 일을 사실대로 쓴 수필이다.
- 02 이 작품에서 '나'와 늙은 거지가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3 (다)에서 '나는 한 폰 한 폰 얻은 돈에서 몇 뉘씩 모았습니다. ~이 돈을 얻느라고 여섯 달이 더 걸렸습니다.'라는 늙은 거지의 말을 통해 은전 한 뉘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알 수 있다.
- 04 (가)의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과 같이 전장 사람의 입을 쳐다본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늙은 거지는 전장에서 은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서 은전이 진짜가 아닐까 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05 늙은 거지가 은전 한 뉘를 갖게 된 내력과 이유를 고려할 때, '다양[대양] 한 폰'은 '삶의 목표'나 '인간의 집착과 소유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06 표현

이 작품은 글쓴이가 본 늙은 거지의 행동과 늙은 거지와와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주된 인물은 늙은 거지이며 늙은 거지와 대조적인 성격의 인물이나 대상은 나타나지 않으며, 인물의 대비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늙은 거지와 전장 주인과의 대화, 늙은 거지와 '나'의 대화로 내용을 전개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주고 있다.

③ 짧고 간결한 문체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④, ⑤ 글쓴이가 경험한 일을 제시하고 있을 뿐, 경험에 대한 글쓴이의 해석이나 감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 07 주제 + 어휘

이 작품의 '늙은 거지'는 은전 한 뉘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품은 후 오랜 기다림과 고생 끝에 그것을 성취하고 몹시 기뻐한

다. 이러한 거지의 모습은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인 '고진감래'로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노심초사'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뜻하는 말이다. '늙은 거지'는 흠치지 않고 구걸을 통해 얻은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은전 한 뉘를 얻은 것이므로 인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아니다.

③ '소탐대실'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을 뜻하는 말로, 각 전 여섯 뉘과 대양 한 폰은 가치가 다르지 않으므로 소탐대실로 볼 수 없다.

④ '백년하청'은 '중국의 황허강(黃河江)이 늘 흐려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므로 사자성어를 적절히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

⑤ '안분지족'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알'을 뜻하는 말로, 은전 한 뉘를 얻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늙은 거지의 모습을 고려할 때, 그가 만족할 줄 모른다고 볼 수는 없다.

## 08 주제

목적물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는 돈의 속성과 은전을 얻은 후에도 '은전이 가짜일까, 은전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릴까' 불안해하는 거지의 모습 등을 고려한다면 '인간의 맹목적인 집착에 대한 경계'를 이 작품의 주제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일반적인 수필과 달리 글쓴이의 소감이나 논평을 제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태도로 늙은 거지와 관련된 경험담만을 제시하여 독자 스스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도록 이끌고 있다.

②, ③ 이 작품은 은전 한 뉘를 얻기 위한 거지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작품의 주제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즉 각고의 노력 끝에 은전 한 뉘를 얻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늙은 거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소망을 이루려는 노력과 성취의 기쁨'을 작품의 주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토록 소망하던 은전 한 뉘를 얻은 후, 노심초사하는 거지의 모습을 고려한다면 '인간의 그릇된 소유욕이나 맹목적인 집착에 대한 경계'를 작품의 주제로 볼 수 있다.

⑤ 뚜렷한 목적 없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돈에 집착하는 거지의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인간의 그릇된 소유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 알아두기 이 작품의 양면적 주제

|                      |        |                      |
|----------------------|--------|----------------------|
| 은전 한 뉘를 얻기 위한 거지의 행동 | 긍정적 평가 | 소망을 이루려는 노력과 성취의 기쁨  |
|                      | 부정적 평가 | 소유욕이나 무의미한 집착에 대한 경계 |

## + 독해 체크

본문 178쪽

- ① 상해 ② 은전 한 뉘 ③ 만족감 ④ 객관적 ⑤ 소망  
⑥ 집착 ⑦ 회상 ⑧ 대화 ⑨ 여운 ⑩ 성취 ⑪ 소유욕

## + 어휘 체크

본문 179쪽

- 1 (1) 노심초사 (2) 소탐대실 (3) 백년하청  
2 서두 - 두각 - 각전 - 전장 - 장황 - 황망히

# 04

## 미안합니다 1 장영희

**갈래** 경수필

**성격** 성찰적, 체험적

- 주제** •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위력  
•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의 중요성
- 특징** • 두 가지 일화를 대조하여 주제를 제시함  
• 일상적 경험에서 삶의 성찰을 이끌어 냄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반항, 모욕  
06 진상

**실력 문제**

07 ④    08 ①    09 ②    10 ③

- 01 이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경수필이다.
- 02 서훈이가 영수 대신 책을 읽은 이유는 영수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말더듬이 증세가 있는 영수를 도와주려 했기 때문이다.
- 03 '나'는 사건의 진상을 서훈이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에게 들게 된 후 영수의 상황과 처지에 충분히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안해하였다.
- 04 영수는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가 있었는데, 이러한 증세는 긴장을 하면 더욱 심해지게 된다. 그래서 영수는 책을 읽지도 못한다는 자신의 상황을 '나'에게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 05 '나'는 자신이 호명한 영수를 대신하여 서훈이가 책을 읽는 것을 보고, 이를 자신에 대한 반항이나 모욕으로 생각하였다.
- 06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나'는 자신의 오토크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영수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 07 **글쓴이**  
(가)의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쓴이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에서 글쓴이가 화를 내는 이유는 영수와 서훈이가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권위 의식이 강하기 때문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19세기 미국 소설 강의 시간'에 통해 '나'가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앞부분 줄거리의 내용을 통해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 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자신이 호명한 영수를 대신하여 서훈이가 책을 읽는 것을 보고,

'나'가 선생으로서의 위엄과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가 선생으로서의 위엄과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어렸을 때 나도 한때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08 표현

'지난주, 19세기 미국 소설 강의 시간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글쓴이가 직접 겪은 일을 일화로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는 글이다.

**오답 풀이** ② 이 작품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서술하고 있다.

③ 통념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을 말하는데 이 작품에서 현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통념이 제시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글쓴이가 겪은 일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의 현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실제 있었던 일화 하나를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사실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 09 어휘

㉠에 들어갈 관용 표현은 이어지는 서술어 '고요하다(조용하고 잠잠하다)'와 의미가 서로 통해야 하므로, '매우 조용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쥐 죽은 듯'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쥐 잡듯'은 꼼짝 못 하게 하여 놓고 잡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쥐도 새도 모르게'는 감쪽같이 행동하거나 처리하여 아무도 그 경위나 행방을 모르게 한다는 말이다.

④ '쥐 본 고양이 같이'는 무엇이나 보기만 하면 결단을 내리고야 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⑤ '쥐 초 먹은 것 같이'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는 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10 글쓴이 + 표현

'나'는 영수와 서훈이가 자신에게 반항하거나 자신을 알본다고 생각해 화가 났지만, 서훈이가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학생을 나무랐다.

**오답 풀이** ① '그 사정을 잘 아는 서훈이가 당황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대신 읽었다는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서훈이가 영수 대신 책을 읽은 것은 말더듬이 증세가 있는 영수를 도와주기 위한 행동이다.

② '처음에는 단지 의아해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은근히 부아가 치밀었다.' '그것은 나에 대한 반항이거나~모욕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나'는 서훈이가 대신 책을 읽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다가 서훈이와 영수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두 사람을 질책했다.

④ '나는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⑤ '어렸을 때 나도~기분을 잘 알 수 있었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나'는 영수의 상황과 처지, 영수가 느꼈을 감정 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04 미안합니다 2

본문 182~18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대비 05 목발

실력 문제

06 ⑤ 07 ① 08 ① 09 ⑤

- 01 (다)에서 '나'는 자신의 오해로 인해 상처를 입은 영수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02 (라)의 '하지만 오늘 나는 '미안합니다'라는 말, 아니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만 했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나'는 아버지와 일이 있기 전까지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위력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 03 이 작품은 아버지와 경비원의 모습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마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4 이 작품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온갖 구실을 만들어 회피하는 '나'와 달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아버지의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 교훈적인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05 '목발'은 다리가 불편한 글쓴이의 처지를 드러내면서 현관 가까이 차를 댈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상황을 경비원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06 글쓴이

아버지가 현관 가까이에 차를 댄 이유는 딸이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었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딸이 좀 더 편하게 차에 타길 바랐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라)의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대셔야지요'라는 말을 통해 경비원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씨를 지닌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다)의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와 같이 '나'는 자신의 오해로 인해 상처를 입은 영수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③ (라)의 '왜 하필이면 현관 앞에 차를 대냐고요.'라고 아버지를 질책하는 경비원의 모습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④ (라)의 '경비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를 통해 알 수 있다.

#### 07 글쓴이

㉠, ㉡, ㉢은 글쓴이가 영수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된다.

**오답 풀이** ㉣, ㉤는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글쓴이가 영수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사과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떠올린 내용에 해당하므로 글쓴이가 미안하다는 말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 08 주제

(라)에서 아버지와 경비원은 글쓴이인 '나'와 달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⑤ 아버지와 경비원은 미안하다는 말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구실을 만들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인물로, 이들의 공통된 면모와는 거리가 멀다.

#### 알마두기 등장인물의 특성

|     |                                                                                                                                    |
|-----|------------------------------------------------------------------------------------------------------------------------------------|
| '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침 → 교수</li> <li>자존심이 세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li> <li>목발 → 몸이 불편함</li> </ul> |
| 아버지 | 체면을 따지지 않고 자신이 잘못된 일을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겸허한 성품을 지님                                                                                        |
| 경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즉시 사과하는 태도를 보임</li> <li>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씨를 지님</li> </ul>                   |

#### 09 글쓴이

'나'는 자신의 오해로 인해 상처를 입은 영수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온갖 구실을 만들어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⑤의 조언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오해로 인해 서훈이와 영수가 상처를 입은 상황이므로, 적절한 조언이 아니다.

② '나'는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만큼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므로, 적절한 조언이 아니다.

③ '나'가 영수나 서훈이와 가깝게 지내다가 상처를 주고받은 상황이 아니라 '나'의 오해로 인해 일어난 일이므로, 적절한 조언이 아니다.

④ (다)에서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구실을 만들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적절한 조언으로 보기 어렵다.

#### 04 미안합니다 3

본문 184~185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사과 05 성찰

06 인정, 처지

실력 문제

07 ④ 08 ④ 09 ④ 10 ①

- 01 아버지는 체면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머리 숙여 사과할 줄 아는 겸허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다. 이러한 행동을 아무에게나 굽신거리는 인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2 (마)~(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영수에게 사과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 03 이 작품은 대비되는 일화를 통해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지닌 위력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04 아버지와 경비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사과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05 이 작품에는 체면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머리 숙여 사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나'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작품이 자아 성찰적 성격을 띤 글임을 알 수 있다.

06 이 작품에서 '나'는 아버지와 경비원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의 필요성,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지닌 효력에 대해 깨닫고 있다.

#### 07 글쓴이

'나'는 영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온갖 구실을 대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앞부분인 (다)에서 '나'는 '선생 체면에 학생에게 그렇게까지 사과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실속을 중시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이 작품에서 찾을 수 없다.
- ② '나'가 타인에게 거만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아버지는 경비원에게 자신을 낮추어 거듭 사과하고 있으므로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나'가 앞부분인 (가)에서 서훈이와 영수에게 질책한 행동을 냉정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상대의 잘못을 덮어 주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나'가 타인과 쉽게 불화를 일으킨다거나 아버지가 타인과의 화합을 추구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8 표현

이 작품에서는 영수에 관해 오해한 일에 대해 사과 없이 넘어가려는 '나'의 일화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아버지, 경비원에 대한 일화, 이 두 대비되는 일화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등장인물 간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상황을 보다 실감 나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② (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가!'와 같은 영탄적 표현을 통해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문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글쓴이가 직접 겪은 두 가지 일화를 제시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⑤ 이 작품은 글쓴이가 겪은 일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솔직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 알아두기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

- 일상적 경험에서 삶의 성찰을 이끌어 냄
- 대화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실감 나게 표현함
- 대비되는 두 가지 일화를 제시하여 깨달음을 전달함
- 자신의 심리를 고백하는 어조로 솔직담백한 느낌을 줌

#### 09 주제

이 작품에서 글쓴이는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한 아버지와 경비원의 모습을 보며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지닌 효력에 대해 깨닫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도 있었으나, 이 작품에서는 사과의 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자존심의 측면이 아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상대방의 처지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사과의 말이 가진 효력을 살펴보고 있다.
- ③ 사과의 말을 하면 어떤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 ⑤ 아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며 사과하는 것의 위력을 강조하고 있다.

#### 10 글쓴이

[A]는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이고, [B]는 그 이후(오늘) 일어난 사건으로, 서로 연관성이 없이 일어난 별개의 사건이다. '나'가 [A]에서 사과하지 않은 일에 대해 [B]의 사건을 본 후 [C]의 깨달음을 얻어 자기반성을 하게 된다.

- 오답 풀이** ② [A]에서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지만, [B]에서 아버지와 경비원은 서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 ③ (바)의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미안합니다'를 좀 더 자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를 통해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나'의 긍정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 ④ [B]의 일화를 통해 '나'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지닌 위력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되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 ⑤ 자신의 잘못을 고개 숙여 사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나'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지닌 위력을 깨닫고 영수에게 사과하지 않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리라 다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 + 독해 체크

본문 186쪽

- ① 아버지    ② 반성    ③ 미안    ④ 사과    ⑤ 배려  
⑥ 합리화    ⑦ 일화    ⑧ 성찰    ⑨ 갈등    ⑩ 위력

#### + 어휘 체크

본문 187쪽

- 1 (1) 평정심 (2) 융통성 (3) 합리화  
2 (1) ㉠ (2) ㉡ (3) ㉢

05

어부\_이육

**갈래** 고전 수필

**성격** 비판적, 교훈적, 풍자적, 우의적

**주제** 올바른 군주의 도

**특징**

- 인간 세계를 물속 세계에 빗대어 표현함
- 유추의 방식을 통해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탐관오리)들을 비판하고 군주의 역할을 제시함
-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민본주의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큰 물고기 05 국가, 군주, 백성 06 백성

**실력 문제**

07 ② 08 ⑤ 09 ④

- 01 이 작품은 물속 물고기들의 관계에 빗대어 인간 사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가 관리(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02 (마)에서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어찌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심하지 않다고 하랴?’라며 탐관오리가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개탄이 드러나 있다.
- 03 이 작품에서 군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용’인데, ‘용’은 물고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존재로 제시되어 있다. (다)에서 ‘하지만 물고기에게 인자하게 베푸는 것은 한 마리 용뿐이요, 물고기를 학대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를 통해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군주가 아닌 ‘큰 물고기’에 해당하는 관리(탐관오리)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 04 (다)에서 ‘물고기를 학대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라고 하였고, 이후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큰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들을 괴롭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05 (가)에서 ‘물이 하나의 국가라면, 용은 그 나라의 군주다.~이 밖에 크기가 한 자 못 되는 것들은 물나라의 만백성이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인간 세계를 물속 세계에 빗대어 나타냄을 알 수 있다.
- 06 (라)에서 글쓴이는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이 누구와 더불어 군주가 되며, 저 큰 물고기들이 어찌 으스스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작은 물고기인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표현

‘상하가 서로 차례가 있고~그것이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어찌 으스스할 수 있겠는가?’, ‘물고기가 사람을~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심하지 않다고 하랴?’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국가의 근본이 되는 백성들이 탐관오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물고기들의 상하 관계와 약육강식의 관계가 나타나 있지만, 물고기나 다른 대상에 대한 외양 묘사나 대상의 희화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진실로 강한 자, 높은 자가~작은 물고기는 반드시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에서 ‘~을 것이다’라는 추측의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과거 사실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다.

④ 이 작품의 부조리한 대상은 작은 물고기를 괴롭히는 큰 물고기, 즉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탐관오리)들이다. 이렇게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들을 ‘큰 물고기’에 빗대는 방식을 통해 비판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 고사를 활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슬프다’, ‘차라리 먼저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만 못하리라’, ‘아아’ 등에 영탄적 어조가 나타나지만, 이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는 상황에 빗대어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다. 대상이 부재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는 관련이 없다.

**배경지식 + 글쓴이 이육의 현실에 대한 태도**

이육은 성군관 유생으로 있던 때에 정조 임금이 출제한 문장 시험에 소품체(小品體)를 구사하여 임금으로부터 불경스럽고 괴이한 문체를 고치라는 하명을 받았으나,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문체를 완전히 고친 뒤에야 과거에 응시할 것을 허용한다는 징벌을 받아 관직 진출이 막혀 버렸지만, 신념을 지키며 문학 창작에 몰두했다. 군주로부터 견책을 당할 만큼 개성적인 문체와 내용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의 글들은 살아온 시대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각을 보여 준다. 그의 글들에서는 죽는 날까지 현실에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글을 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진정성이 드러난다.

08 글쓴이 + 주제

①은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심하다(크다)는 의미이다. 물고기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기 마련인데, 이러한 특징이 인간 세계에도 있으며 그 정도가 물고기 세계보다 인간 세계가 더 심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물속 세계에 있는 상하 관계가 인간 세계에도 있음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글쓴이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그 상하 관계 속에서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탐관오리의 행태이다.

② ①은 물속 세계에 ‘큰 물고기’가 있듯이 인간 세계에도 ‘큰 물고기’가 있는데, 물속 세계보다 인간 세계가 더 심각함을 강조한 말이다. 단순히 사람들이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아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 관리(탐관오리)들의 수탈로 인해 백성들의 괴로움이 더 심각함을 드러낸 것이다.

- ③ 이 작품에서 글쓴이는 용의 도리란 작은 물고기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은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현실에 대한 개탄을 드러낸 것이다.
- ④ ㉠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약탈하는 것이 물고기 세계보다 인간 세계에서 더 심함을 의미한다. 물고기 세계와 인간 세계를 동일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9 글쓰기 + 주제

이 작품에서 ㉠은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이 누구와 더불어 군주가 되며, 저 큰 물고기들이 어찌 으스스할 수 있겠는가?'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진실로 강한 자, 높은 자가 싫증 내지 않는다면 작은 물고기는 반드시 남아나지 않을 것'은 〈보기〉의 '백성들은 죽어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다는 내용과 대응되므로, 이를 ㉠과 대응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에서 성상을 의미하는 것은 '용'이며, 성상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를 빚던 것은 '비를 내려 주고'와 '큰 물결을 겹쳐 일어나게 하여 덮어' 주는 것이다.

② '고래와 암코래'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일을 자신의 시사로 삼고, '교룡과 악어'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을 농사일로 삼는 것은 조정의 대신들이 백성들을 하찮고 가볍게 여기는 행태와 관련된다.

③ 서리나 아전을 의미하는 '문절망둑, 쏘가리, 두렁허리, 가물치의 족속'은 틈을 타서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은이요 욕으로 삼는데, 이는 서리나 아전 등이 백성을 자신의 이익을 축적하는 방편으로 여기는 행태를 고발한 것이다.

⑤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백성들을 해치는 못된 관리들을 물리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용의 도리란 작은 물고기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만 못하리라'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알아두기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해결 방안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이 누구와 더불어 군주가 되며, 저 큰 물고기들이 어찌 으스스할 수 있겠는가?"

백성이 없다면 군주와 신하, 관리들이 존재할 수 없음 → 백성 없이는 국가가 존립하기 어려움

↓

군주의 도리란 작은 물고기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임

↓

군주가 백성을 괴롭히는 신하와 관리들을 벌함으로써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함

## + 독해 체크

본문 190쪽

- ① 군주    ② 국가    ③ 부정적    ④ 은혜    ⑤ 영탄법  
⑥ 학대    ⑦ 탐관오리

## + 어휘 체크

본문 191쪽

- 1 (1) 약탈 (2) 통솔 (3) 족속  
2 (1) ㉠ (2) ㉡ (3) ㉢